2023학년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과제책임자:
이은경

Institute of Future Distance Education IFD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실태조사 23-02
2023학년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미래원격교육연구원 IFDE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FDE 미래원격교육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실태조사 23-02

2023학년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과제책임자 : 이 은 경

2023년 7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연 구　개 요

본 연구는 방송대 대학원과 경영대학원 재학생들의 지원 및 재학 현황 및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방송대 대학원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목적에 따라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1년에 대학원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2022년 원격대학 박사과정 개설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대학원생들의 대학원 생활 전반과 박사과정 진학 수요 등에 대한 자료와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다. 격년으로 끝자리 홀수 해에 이루어지는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실태조사 정책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에 방송대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수행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방송대 [데이터허브]을 통한 대학원생 전수 데이터 분석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방송대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재학생은 2,577명이었고 유효 설문 응답자 수는 321명으로 모집단 대비 12.5%를 차지하였다.

연구 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대학원 재학생 전체 데이터를 통한 기초적인 실태조사 결과로 2장에서 제시하였고, 두 번째는 설문지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로 3장과 4장, 5장에서 다루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송대 대학원의 학생 관련 정책을 제언한 것으로 마지막 6장에서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을 각 장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2장에서는 방송대 데이터허브를 활용하여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적 변동 추이와 재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의 입학배경 및 준비과정과 관련하여 입학 전 학력, 현재의 직업, 입학동기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의 학업 수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주당 학습시간, 장소, 매체 등 학습태도 및 방법에 관련된 사항들이나 소모임/스터디, 졸업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학교생활 및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미등록 경험 여부,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된 만족 정도와 주변에 진학 추천 의향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박사과정 신설에 대한 요구와 인식도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보고서 내

용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부분을 다루었다.

대학원 지원과 입학에 관련하여, 2017년(211.2%)부터 2019년(189.8%)까지 감소세에 있던 대학원 지원율이 2020학년도에는 반등하고 2021년에는 223.8%을 2022년에는 201.4%를 기록하였다. 경영대학원은 지원율은 2020년부터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지원자 수는 전해보다 증가하였다. 대학원과 경영대학원 재학생의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해서 전체의 37.0%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학원 재학생들의 거주지역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서울과 경기 거주자가 대학원 재학생의 63.0%에 달했다.

다음으로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의 입학 배경과 준비 과정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출신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가 74.8%로 가장 많았고, 최종학력은 일반오프라인 대학교 학위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학력 전공계열은 사회계열이 26.2%로 가장 많았다. 대학원 재학생들의 직업은 회사원(사무직)이 12.1%로 가장 많았고, 가계 월평균 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31.8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30.5%로 가장 많았으나, 직업관련 경력관리를 위해서도 28.7%로 높은 수준이었다. 방송대 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직업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진학의 장애요인은 교육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31.5%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과 선택 요인으로는 평소 관심분야라는 응답이 34.6%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나, 직업관련 경력관리(29.0%)와 학부전공 관련(28.7%)도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어서,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의 학업 수행과정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학생들의 주당 학습 시간은 2~4시간이라고 답한 경우가 44.5%로 가장 많았고, 강의를 주로 수강하는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자정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웹강의 수강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7.3%로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학습 방식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에 비해 개인적 학습을 선호하는 비율이 82.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오프라인 활동에 비해 온라인 활동 선호도 74.5%로 매우 높았다. 학습자료 읽기 방식으로는 디지털 학습자료를 모니터로 읽는 방법보다 인쇄본이나 출력 자료를 선호하는 비율이 58.9%로 더 많았다. 웹강의 수강을 위한 주요 활용 매체는 노트북이 48.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소모임이나

스터디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참여한다는 응답이 62.9%였으며 참여 목적에 대해서는 과제 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30.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졸업논문 작성의사에 대해서는 현재 작성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60.7%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논문작성 이유에 대해서는 충실한 연구경험을 위해서가 46.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논문 작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논문주제와 연구방법 정하기가 42.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의 학교 생활 및 만족도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의 해결방법으로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경험에 대해서는 79.1%가 미등록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생활의 여러 영역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매체 강의 방식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진로 및 취업지도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에게 방송대 대학원 진학을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89.2%를 차지했다.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3.2가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진학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예상 진학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공지식 습득이 가장 강한 동기라고 응답하였으며, 예상 진학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일과 병행의 어려움이 28.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송대 대학원의 학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다섯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의 명암에 따른 대응에 대한 제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교육에 인식 변화와 온라인 실시간 수업 도입 등이 방송대 대학원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대학원생들의 학업과 일상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도 영향이 있었다. 정보 취득의 온라인 집중이 더 심화되었고, 스터디/소모임 참여가 감소하였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원생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19 팬데믹의 명과 암에 따른 영향과 그 대응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다. 2022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대학교에서도 온라인 대학원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방송대 대학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다른 온라인 대학원의 설립은 이러한 방송대만의 장점에 도전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다양한 대학원 입학자원의 특성과 요구의 차이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전공 마련 및 대학원 운영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연령대 차이에 따른 학생 지원 정책

의 다변화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학생 특성 및 요구에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학원생들의 고령화 현상의 징후도 나타나는 동시에 일부 학과는 대학원생들의 나이가 20대와 30대에 집중되기도 한다. 현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지원 정책을 연령대에 따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송대 대학원생들은 교육과정 영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지만 진로 및 취업지도, 장학제도, 졸업논문지도 등 학생 지원 서비스 영역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대학원들이 학교적응과 학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원생들 학업과정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다섯째, 박사과정 신설 관련 제언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의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과별 편차가 컸다. 예상 진학 동기 분석에 따르면 전공지식 습득이 가장 큰 동기요인이었고, 가장 큰 예상 진학 장애 요인은 회사일과 병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 운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은 교수진 및 교수진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교수진의 연구 역량과 경력, 교수진과의 상호작용 등 교수진과 관련된 변인들은 짧은 시간 내에 그 변화를 이루어내기 어렵고 학교 구조적으로 그 변화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박사과정 신설 시에 어떠한 전공에서 박사과정을 열 것인지와 함께 교수진 및 연구 영역과 관련된 요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차 례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

Ⅱ. 대학원 재학생 현황 분석 ····· 7

1. 지원율·합격률·등록률 변화추이 ····· 7
2. 대학원생 인구통계학적 분석 ····· 11

Ⅲ. 입학 배경 및 준비 과정 ····· 19

1. 학력 배경 ····· 19
2. 직업 분포 ····· 28
3. 소득 분포 ····· 32
4. 입학 준비 및 고려 사항 ····· 34

Ⅳ. 학업 수행 과정 ····· 51

1. 학습태도 및 요구 ····· 51
2. 소모임 및 스터디 ····· 65
3. 졸업논문 ····· 70

Ⅴ. 학교생활 및 만족도 ····· 77

1. 학업과정에서의 어려움 해결 방법 ····· 77
2. 미등록 경험 ····· 80
3. 영역별 학교생활 만족도 ····· 82
4. 진학 권유 의사 ····· 85

5. 박사과정 신설에 대한 요구 ····· 86

Ⅵ. 요약 및 제언 ····· 95

1. 요약 ····· 95

2. 제언 ····· 106

※ 참 고 문 헌 ····· 111

※ 부 록 [설문지] ····· 113

표 차 례

<표 Ⅰ-1>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분포 현황 ····· 5
<표 Ⅱ-1> 연도별 방송대 대학원 지원자 수 ····· 7
<표 Ⅱ-2> 연도별 방송대 경영대학원 지원자 수 ····· 8
<표 Ⅱ-3> 연도별 학과별 방송대 대학원 지원자 수 ····· 9
<표 Ⅱ-4> 연도별 학과별 방송대 남학생 비율 ····· 12
<표 Ⅱ-5> 학과별 연령대 분포 ····· 15
<표 Ⅱ-6> 학과별 거주지역 분포 ····· 17
<표 Ⅲ-1> 학과별 출신 고등학교 ····· 20
<표 Ⅲ-2> 성별 출신 고등학교 ····· 22
<표 Ⅲ-3> 연령별 출신 고등학교 ····· 22
<표 Ⅲ-4> 학과별 입학 전 최종 학력 ····· 24
<표 Ⅲ-5> 성별 입학 전 최종 학력 ····· 25
<표 Ⅲ-6> 연령별 입학 전 최종 학력 ····· 26
<표 Ⅲ-7> 학과별 입학 전 최종 학력에서의 계열 ····· 27
<표 Ⅲ-8> 학과별 직업 ····· 29
<표 Ⅲ-9> 학과별 가정(가계)의 월평균 총 수입 ····· 33
<표 Ⅲ-10> 학과별 대학원 진학 동기 ····· 35
<표 Ⅲ-11> 연령별 대학원 진학 동기 ····· 36
<표 Ⅲ-12> 학과별 방송대 대학원 선택 이유 ····· 37
<표 Ⅲ-13> 연령별 방송대 대학원 선택 이유 ····· 38
<표 Ⅲ-14> 학과별 방송대 대학원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 ····· 40
<표 Ⅲ-15> 연령별 방송대 대학원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 ····· 41
<표 Ⅲ-16> 학과별 진학 장애 요인 ····· 43
<표 Ⅲ-17> 연령별 진학 장애 요인 ····· 44
<표 Ⅲ-18> 학과별 학과 선택 요인 ····· 46

<표 Ⅲ-19> 연령별 학과 선택 요인 ····· 47
<표 Ⅲ-20> 학과별 방송대 대학원 목표 동의 정도 ····· 48
<표 Ⅲ-21> 학과별 방송대 대학원 목표 구현 정도 ····· 50
<표 Ⅳ-1> 학과별 주당 평균 학습 시간(웹 강의 시청 시간 제외) ····· 52
<표 Ⅳ-2> 성별 주당 평균 학습 시간(웹 강의 시청 시간 제외) ····· 53
<표 Ⅳ-3> 연령별 주당 평균 학습 시간(웹 강의 시청 시간 제외) ····· 53
<표 Ⅳ-4> 학과별 강의 수강 시간대 ····· 55
<표 Ⅳ-5> 연령별 강의 수강 시간대 ····· 56
<표 Ⅳ-6> 학과별 웹강의 학습 장소 ····· 57
<표 Ⅳ-7> 성별 웹강의 학습 장소 ····· 58
<표 Ⅳ-8> 학과별 선호 학습방법 ····· 59
<표 Ⅳ-9> 연령별 선호 학습방법 ····· 60
<표 Ⅳ-10> 학과별 선호 학습활동 ····· 61
<표 Ⅳ-11> 연령별 선호 학습활동 ····· 62
<표 Ⅳ-12> 학과별 선호 학습자료 읽기 방법 ····· 63
<표 Ⅳ-13> 연령별 선호 학습자료 읽기 방법 ····· 63
<표 Ⅳ-14> 학과별 웹강의시 주요 활용 매체 ····· 64
<표 Ⅳ-15> 학과별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경험 ····· 66
<표 Ⅳ-16> 연령별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경험 ····· 67
<표 Ⅳ-17> 학과별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목적 ····· 68
<표 Ⅳ-18> 연령별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목적 ····· 69
<표 Ⅳ-19> 학과별 졸업논문 작성 의사 ····· 71
<표 Ⅳ-20> 학과별 졸업논문 작성 이유 ····· 72
<표 Ⅳ-21> 학과별 졸업논문 작성 시 인식하는 어려움 ····· 74
<표 Ⅴ-1> 학과별 학업과정의 어려움 해결 방법 ····· 78
<표 Ⅴ-2> 성별 학업과정의 어려움 해결 방법 ····· 79
<표 Ⅴ-3> 연령별 학업과정의 어려움 해결 방법 ····· 80
<표 Ⅴ-4> 학과별 미등록 경험 여부 ····· 81
<표 Ⅴ-5> 학과별 학교생활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 ····· 83

<표 Ⅴ-6> 학과별 방송대 대학원 진학 권유 의사 ····· 86
<표 Ⅴ-7> 학과별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의사 ····· 87
<표 Ⅴ-8> 학과별 박사과정 신설 시 예상 진학 동기 ····· 89
<표 Ⅴ-9> 학과별 박사과정 신설 시 예상 진학 전공 ····· 91

그림차례

[그림 Ⅲ-1] 출신 고등학교 분포 ····· 19
[그림 Ⅲ-2] 입학 전 최종 학력 ····· 23
[그림 Ⅲ-3] 입학 전 최종 학력에서의 계열 ····· 27
[그림 Ⅲ-4] 방송대 재학생 직업 ····· 29
[그림 Ⅲ-5] 가정(가계)의 월평균 총 수입 ····· 32
[그림 Ⅲ-6] 대학원 진학동기 ····· 34
[그림 Ⅲ-7] 방송대 대학원 선택 이유 ····· 37
[그림 Ⅲ-8] 방송대 대학원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 ····· 39
[그림 Ⅲ-9] 진학 장애 요인 ····· 42
[그림 Ⅲ-10] 학과 선택 요인 ····· 45
[그림 Ⅲ-11] 방송대 대학원 목표 동의 정도 ····· 48
[그림 Ⅲ-12] 방송대 대학원 목표 구현 정도 ····· 49
[그림 Ⅳ-1] 주당 평균 학습 시간(웹 강의 시청 시간 제외) ····· 51
[그림 Ⅳ-2] 강의 수강 시간대 ····· 54
[그림 Ⅳ-3] 웹강의 학습 장소 ····· 56
[그림 Ⅳ-4] 선호 학습방법 ····· 59
[그림 Ⅳ-5] 선호 학습활동 ····· 60
[그림 Ⅳ-6] 선호 학습자료 읽기 방법 ····· 62
[그림 Ⅳ-7] 웹강의시 주요 활용 매체 ····· 64
[그림 Ⅳ-8]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유무 ····· 66
[그림 Ⅳ-9]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목적 ····· 68
[그림 Ⅳ-10] 졸업논문 작성 의사 ····· 70
[그림 Ⅳ-11] 졸업논문 작성 이유 ····· 72
[그림 Ⅳ-12] 졸업논문 대체수업 수강 이유 ····· 73
[그림 Ⅳ-13] 졸업논문 작성 시 인식하는 어려움 ····· 74
[그림 Ⅴ-1] 학업과정의 어려움 해결 방법 ····· 77
[그림 Ⅴ-2] 미등록 경험 여부 ····· 81

[그림 Ⅴ-3] 미등록 경험 이유 ····· 82
[그림 Ⅴ-4] 학교생활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 ····· 83
[그림 Ⅴ-5] 방송대 대학원 진학 권유 의사 ····· 85
[그림 Ⅴ-6]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의사 ····· 87
[그림 Ⅴ-7] 박사과정 신설 시 예상 진학 동기 ····· 88
[그림 Ⅴ-8] 박사과정 신설 시 예상 진학 전공 ····· 90
[그림 Ⅴ-9] 박사과정 진학 고려 시 예상 장애 요인 ····· 92
[그림 Ⅴ-10] 박사과정 운영 관련 항목들의 중요도 평가 ····· 93
[그림 Ⅴ-11] 박사학위가 갖는 가치에 대한 평가 ····· 9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22년 10월 18일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1]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과거 석사과정 운영만 가능했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관련 요건을 충족할 시에 박사과정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의 출발을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9월 1일 특수대학원으로 개설되어 4개 학과 200명 정원으로 출발하였으며, 2022학년도 기준으로 19개 학과 913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3학년도에 경영대학원이 추가적으로 신설되어 2022학년도 기준 158명 정원으로 경영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방송대 대학원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그에 어울리는 질적 성장을 위해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실태와 교육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미래원격교육연구원(구, 원격교육연구소)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해오고 있다. 이번 2023년 실태조사 이전까지 총 7차례의 방송대 대학원 실태조사가 수행되었으며(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1년), 방송대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지원율 변동 추이, 인구통계학적 분석, 입학 배경 및 동기, 재학 중 학습태도 및 요구, 학교 생활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분석해왔다.

첫 번째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인 2011년도 조사(황지원·주형선, 2012)에서는 대학원생 전체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전에 모집단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원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두 번째로 수행되었던 2014년의 실태조사(권순형·황지원, 2014)에서는 2011년의 문항에 더해 대학원 재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유형, 주당 학습 시간, 소모임 참여 여부, 졸업논문 작성 의사 등의 학습 및 대학원 생활과 관련한 변수

1)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② [법률 제 18989호. 2022.10.18., 일부 개정]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대학원 재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현황에 대한 문항 및 소모임 및 동문회와 관련된 문항들을 추가하여 보고하였다. 2015년 실태조사(남나라, 2016)부터 2016년(김화민, 2017), 2017년(김화민, 2018)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문항 및 분석틀을 정형화하여 이전 실태조사와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19년 실태조사(정연희, 2019)에서는 당시 화두가 되었던 박사과정 신설과 관련된 요구 조사 문항을 추가하였다. 2021학년도 실태조사에서는 기존의 조사틀을 유지하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문항을 정비하였다. 또한, 2019년 실태조사에서 논의된 박사과정 신설에 대한 요구 조사 문항에 박사과정 운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였다.

이번 2023학년도 실태조사에서는 2021학년도 조사(이은경, 2021)와 연결성을 유지하여 박사과정 신설과 관련된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 대학원 재학생 전체의 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 분석 결과를 서술하고, 이후 설문지 응답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 수립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절에서는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연구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1) 연구 내용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대학원 재학생 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초적인 실태조사 결과이며, 이를 Ⅱ장에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2023학년도 설문지에 학생들이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로 Ⅲ장에서 Ⅴ장까지에 담겨있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대학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마지막 Ⅵ장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각 장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Ⅱ장에서는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적 변동 추이와 재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대 데이터허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 Ⅲ장과 Ⅳ장, Ⅴ장은 설문조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3장에서는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의 입학배경 및 준비과정과 관련하여 입학 전 학력, 현재의 직업, 입학동기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의 학업 수행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하였으며, 주당 학습시간, 장소, 매체 등 학습태도 및 방법에 관련된 사항들이나 소모임/스터디, 졸업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학교생활 및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다.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미등록 경험 여부,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된 만족 정도와 주변에 진학을 추천 의향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박사과정 신설에 대한 요구도와 박사과정과 관련된 대학원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박사과정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내용은 서순식·윤태영·연경심(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인 Ⅵ장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요약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다루었다.

각 장의 설문 조사 결과는 문항별로 전체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과와 학과별 분석결과로 제시하되, 전체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으로 표현하였고 학과별 응답 결과는 <표>의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이 외에 분석 결과 중 성별, 연령별 변수에 따른 차이가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석 결과를 추가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방송대 대학원 현황 분석은 방송대의 [데이터허브]를 통해 대학원 전체 재학생의 학적 데이터를 추출한 후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거주지역 분포 등을 검토하였다. [데이터허브]를 통해 확인한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방송대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재학생 수는 2,577명이었다.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재학생 학적 데이터는 학기 간(1학기와 2학기) 편차가 있어, 설문조사 결과가 아닌 학적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보고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자료 수집이 완료된 경우까지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이 보고서(2023학년도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에서 학적 데이터 기반 통계치는 현재(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를 제외하고 2022학년도까지의 결과를 업데이트하여 제

시하였다.

둘째, [데이터허브]를 통해 수집하기 어려운 학생 배경, 입학 과정, 학업 수행 과정, 학교 생활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응답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우선, 방송대 대학원 및 학과 홈페이지 공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설문 참여를 안내하고 독려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23년 4월 7일에서 4월 28일까지였으며, 전체 응답건수 중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한 것은 321건이었다. 전체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재학생 집단(모집단) 대비 응답률은 12.5%였다. 분석 대상 자료에 SPSS statistics 29.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표본 집단의 구성비율을 모집단과 비교해보기 위해 <표 Ⅰ-1>을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는 2023학년도 전체 대학원 재학생 집단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집단의 분포 현황을 각각 비교할 수 있다. 대학원과 경영대학원 재학생은 총 2,577명이고, 유효 설문 응답자 수는 321명으로 모집단 대비 12.5%를 차지하였다. 이를 집단별로 나눠서 살펴보았고, 먼저 성별을 보면 모집단 분포에서는 여자가 57.7%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본집단 분포에서도 55.1%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20대 모집단이 4.7%인데 표본집단에서 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에서는 모집단이 20.2%, 표본집단에서는 18.4%인 것으로, 40대에서는 모집단의 비율이 37.4%, 표본집단에서는 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대에서는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비율이 각각 29.1%, 2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에서는 8.6%, 9.3%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재학생들의 연령대별 분포는 40대 재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중(37.2%)을 보이고 있는데, 표본 분포에서도 가장 높은 분포(42.7%)를 보인 연령대가 40대여서 이 역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생활과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는 모집단에 비해 표본집단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실용중국어학과, 이러닝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유아교육과는 비율이 다소 낮았으나 그 외 학과는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일부 학과에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표본집단이 학과별 모집단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Ⅰ-1>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분포 현황

구분	내용	모집단		표본집단	
		인원수	백분율	인원수	백분율
성별	남자	1,090	42.3%	144	44.9%
	여자	1,487	57.7%	177	55.1%
연령대	20대	121	4.7%	14	4.4%
	30대	521	20.2%	59	18.4%
	40대	964	37.4%	137	42.7%
	50대	749	29.1%	81	25.2%
	60대 이상	222	8.6%	30	9.3%
일반대학원 (학과)	문예창작콘텐츠학과	128	5.0%	17	5.3%
	실용영어학과	186	7.2%	24	7.5%
	실용중국어학과	137	5.3%	11	3.4%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40	1.6%	5	1.6%
	일본언어문화학과	65	2.5%	8	2.5%
	법학과	105	4.1%	14	4.4%
	행정학과	90	3.5%	10	3.1%
	경영학과	2	0.1%	0	0.0%
	사회복지학과	138	5.4%	13	4.0%
	영상문화콘텐츠학과	85	3.3%	15	4.7%
	농업생명과학과	118	4.6%	14	4.4%
	생활과학과	151	5.9%	26	8.1%
	정보과학과	138	5.4%	18	5.6%
	이러닝학과	120	4.7%	10	3.1%
	통계·데이터과학과	121	4.7%	17	5.3%
	환경보건시스템학과	95	3.7%	7	2.2%
	간호학과	154	6.0%	19	5.9%
	평생교육학과	144	5.6%	21	6.5%
	청소년교육학과	126	4.9%	22	6.9%
	유아교육학과	157	6.1%	9	2.8%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	277	10.7%	41	12.8%
계		2,577	100.0%	321	100.0%

다만 본 보고서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분석 결과들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학과별 분석 결과와 같이 응답자가 집단으로 세분화되는 경우에는 표본수가 상당히 적어지는데 이 경우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표본수가 너무 적으면 이상치(outlier)가 분석 결과에 실제보다 큰 영향을 미쳐서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이를 감안해서 학과별 분석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영학과는 경영대학원이 설립되며 통합된 학과로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 재적생과 재학생(2명)이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영학과 학생이 없었고,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결과에서는 경영학과가 제외되었다.

II. 대학원 재학생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방송대 대학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자, 합격자, 등록자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현재 대학원 재학생들의 성, 연령,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1. 지원율·합격률·등록률 변화추이

본 절에서는 20012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의 대학원 지원자 수와 등록자 수, 합격자 수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표 Ⅱ-1>에 제시하였다. 방송대 대학원은 2001년 가을에 정원 200명으로 시작되어 2011까지는 연간 정원이 300~400명이었다. 2012년에 연간 정원이 800명로 증가하였다. 1학기와 2학기를 나누지 않고, 학년도 전체의 정보를 담기 위하여 2022학년도까지로 제한하여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II-1> 연도별 방송대 대학원 지원자 수

연도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합격자수	합격률(%)	등록자수	등록률(%)
2012	800	3,007	375.8	811	26.9	806	99.3
2013	827	2,835	342.8	831	29.3	813	97.8
2014	876	2,344	267.6	814	34.7	786	96.5
2015	907	2,354	259.5	849	36.1	798	94.0
2016	1,470	2,042	138.9	821	40.2	771	93.9
2017	900	1,901	211.2	824	43.3	792	96.1
2018	907	1,785	196.8	819	45.9	775	94.6
2019	873	1,657	189.8	823	49.7	795	96.6
2020	975	1,931	198.1	884	45.8	845	95.6
2021	891	1,994	223.8	868	43.5	835	96.2
2022	913	1,839	201.4	866	47.1	826	95.4

대학원 정원은 개원한 이래 계속 증가하여 2016년 1,470명까지 이르렀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22학년도 기준으로 913명이었다. 대학원 지원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왔으

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들어가면서 2021년과 2022년에는 지원율이 20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2010년대에 합격률은 지원율이 감소하는 것과 반비례하여 높아져서 2019학년도에 49.7%로 가장 높았고,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22년에 47.1%를 나타내었다. 등록률은 대체로 95%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2022학년도에는 등록률이 95.4%였다.

2013년 개원한 경영대학원은 처음에는 대학원보다 더 높은 지원율을 보여, 2013년의 경우 모집 정원 110명에 지원자는 583명이 몰려 지원율이 530.0%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2022학년도에는 157.0%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원자 수 자체가 준 것은 아니며, 2020년부터 경영대학원 정원이 50명 이상 늘어나면서 지원율이 감소한 것이다. 지원율이 감소함에 따라 합격률이 높아져서 2022학년도 63.7%를 나타냈으며 등록률은 95.6%로 나타났다.

<표 II-2> 연도별 방송대 경영대학원 지원자 수

연도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합격자수	합격률(%)	등록자수	등록률(%)
2013	110	583	530.0	110	18.8	105	95.5
2014	106	492	464.2	107	21.7	107	100.0
2015	104	362	348.1	104	28.7	104	100.0
2016	200	263	131.5	104	39.5	101	97.1
2017	105	244	232.4	105	43.0	102	97.1
2018	103	205	199.0	103	50.2	100	97.1
2019	102	229	224.5	102	44.5	100	98.0
2020	156	277	177.6	156	56.3	153	98.1
2021	157	235	149.7	157	66.8	153	97.5
2022	158	248	157.0	158	63.7	151	95.6

최근 10년 간 학과별 지원 현황을 <표 II-3>에 제시하였다. 2022학년도 학과별 지원율을 살펴보면 문예창작콘텐츠학과를 비롯한 6개 학과는 2021년보다 지원율이 증가하였지만, 실용영어학과를 비롯한 13개 학과는 지원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문예창작콘텐츠학과, 법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정보과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간호학과는 2019-2020년 대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2022년에 지원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2022학년도 기준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문예창작콘텐츠학과로 377.4%의 지원율을 기록하였으며, 사회복지학과의 지원율이 322.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지원율이 가장

낮은 학과는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로 지원율이 48.7%였다. 이 밖에도 행정학과(94.3%), 일본언어문화학과(114.7%)가 지원율이 낮은 학과였다.

<표 Ⅱ-3> 연도별 학과별 방송대 대학원 지원자 수

연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2013	53	276	520.8	53	302	569.8	51	132	258.8
2014	53	199	375.5	53	238	449.1	51	110	215.7
2015	52	169	325.0	55	192	349.1	54	149	275.9
2016	50	113	226.0	100	175	175.0	100	113	113.0
2017	52	120	230.8	54	141	261.1	51	97	190.2
2018	54	156	288.9	56	150	267.9	54	115	213.0
2019	53	144	189.8	50	139	278.0	52	78	150.0
2020	53	157	296.2	50	132	264.0	60	63	105.0
2021	51	168	329.4	59	117	198.3	59	86	145.8
2022	53	200	377.4	65	106	163.1	54	84	155.6
연도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2013	33	46	139.4	64	92	143.8	31	167	538.7
2014	41	33	80.5	67	93	138.8	30	120	400.0
2015	50	26	52.0	65	71	109.2	30	121	403.3
2016	50	28	56.0	60	43	71.6	90	143	158.9
2017	43	23	53.5	35	64	182.8	48	167	347.9
2018	44	17	38.6	40	43	107.5	46	112	243.5
2019	37	22	59.5	32	44	137.5	50	103	206.0
2020	35	26	74.3	30	56	186.7	44	77	175.0
2021	39	23	59.0	33	48	145.5	42	91	216.7
2022	39	19	48.7	34	39	114.7	42	89	211.9
연도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2013	54	103	190.7				31	76	245.2
2014	69	82	118.8				32	45	140.6
2015	65	84	129.2				39	43	110.3
2016	100	66	66.0				60	52	86.67
2017	79	74	93.7				34	48	141.2
2018	56	58	103.6				44	35	79.6
2019	46	77	167.4				36	59	163.9
2020	57	43	75.4	50	199	398.0	45	35	77.8
2021	49	75	153.1	50	179	358.0	33	59	178.8
2022	53	50	94.3	50	161	322.0	36	51	141.7

연도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정보과학과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2013	41	111	270.7	66	97	147.0	51	133	260.8
2014	41	96	234.1	56	92	164.3	53	104	196.2
2015	43	123	286.1	69	77	111.6	53	117	220.8
2016	80	110	137.5	100	91	91.0	100	109	109.0
2017	42	91	216.7	50	69	138.0	58	95	163.8
2018	43	81	188.4	51	67	131.4	56	85	151.8
2019	44	70	159.1	67	68	101.5	54	91	170.4
2020	44	83	188.6	82	75	91.5	53	89	167.9
2021	40	87	217.5	50	83	166.0	55	130	236.4
2022	40	98	245.0	59	98	166.1	54	98	181.5
연도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2013	51	82	160.8	31	84	271.0	32	87	271.9
2014	70	75	107.1	30	88	293.3	33	50	151.5
2015	70	74	105.7	31	131	422.6	33	70	212.1
2016	100	72	72.0	70	125	178.6	60	52	86.7
2017	83	63	75.9	36	135	375.0	34	54	158.8
2018	72	58	80.6	41	94	229.3	32	41	128.1
2019	61	58	95.1	44	95	215.9	32	80	250.0
2020	70	116	165.7	44	117	265.9	36	110	305.6
2021	49	100	204.1	41	135	329.3	37	134	362.2
2022	52	81	155.8	41	122	297.6	37	86	232.4
연도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2013	51	109	213.7	50	302	604.0	33	451	1,366.7
2014	52	134	257.7	52	329	632.7	40	252	630.0
2015	50	137	274.0	52	290	557.7	43	264	614.0
2016	100	149	149.0	100	235	235.0	40	181	452.5
2017	51	141	276.5	50	150	300.0	40	186	465.0
2018	51	114	223.5	57	219	384.2	46	147	319.6
2019	55	113	205.5	55	144	261.8	50	161	322.0
2020	55	105	190.9	55	150	272.7	50	130	260.0
2021	51	126	247.1	52	138	265.4	46	86	187.0
2022	52	128	246.2	51	103	202.0	46	114	247.8

연도	유아교육학과			대학원학과(전체)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2013	51	185	362.7	827	2,835	342.8
2014	53	204	384.9	876	2,344	267.6
2015	53	216	407.6	907	2,354	259.5
2016	110	185	168.2	1,470	2,042	138.9
2017	60	183	305.0	900	1,901	138.9
2018	64	193	301.6	907	1,785	211.2
2019	55	110	200.0	873	1,657	196.0
2020	62	168	271.0	975	1,931	198.1
2021	55	129	234.5	891	1,994	223.8
2022	55	112	203.6	913	1,839	201.4

2. 대학원생 인구통계학적 분석

이 절에서는 대학원 재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인 분포를 살펴보았다. 대학원 재학생 전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살펴보았다.

1) 성별 분포 현황

아래의 <표 Ⅱ-4>는 남학생을 기준으로 입학연도에 따른 학과별 성별 분포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2022학년도 대학원 재학생 전체 2,577명[2] 중 남학생은 1,090명으로 42.3%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지만 학과별로 편차가 크다. 2022년 기준으로 문예창작콘텐츠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일본언어문화학과를 비롯한 9개 학과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다. 남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정보과학과로 85.7%였으며 가장 낮은 학과는 유아교육학과로 0.8%를 나타냈다.

2) 경영대학원 재학생을 포함한 수치이다.

<표 II-4> 연도별 학과별 방송대 남학생 비율

남자비율(%)

연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2013	35	88	39.8	53	210	25.2	71	166	42.8
2014	60	156	38.5	61	239	25.5	99	221	44.8
2015	68	186	36.6	73	227	32.2	105	236	44.5
2016	78	227	34.4	73	226	32.3	107	237	45.1
2017	80	225	35.6	98	241	40.7	122	229	53.3
2018	79	233	33.9	74	243	30.5	134	255	52.5
2019	80	237	30.8	92	260	35.4	127	240	52.9
2020	81	245	33.1	105	314	33.4	117	257	45.5
2021	86	243	35.4	101	307	32.9	141	278	50.7
2022	81	245	33.1	108	332	32.5	104	266	39.1
연도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2013	10	50	20.0	60	166	36.1	84	97	86.6
2014	19	74	25.7	67	202	33.2	100	123	81.3
2015	29	79	36.7	58	192	30.2	106	139	76.3
2016	39	78	50.0	52	162	32.1	127	177	71.8
2017	32	67	47.8	49	139	35.3	138	202	68.3
2018	36	72	50.0	50	115	43.5	133	187	71.1
2019	39	83	47.0	57	124	46.0	127	185	68.6
2020	38	89	42.7	77	145	53.1	142	190	74.7
2021	30	91	33.0	84	149	56.4	125	190	65.8
2022	26	82	31.7	74	142	52.1	123	185	66.5
연도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2013	145	210	69.0				62	95	65.3
2014	146	206	70.9				70	117	59.8
2015	160	222	72.1				78	125	62.4
2016	155	216	71.8				69	114	60.5
2017	156	217	71.9				71	145	49.0
2018	150	219	68.5				61	121	50.4
2019	127	201	63.2				74	130	56.9
2020	104	183	56.8	18	91	19.8	71	134	53.0
2021	117	202	57.9	38	163	23.3	80	148	54.1
2022	118	200	59.0	61	211	28.9	90	152	59.2

연도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정보과학과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2013	89	144	61.8	19	240	7.9	214	242	88.4
2014	123	183	67.2	12	252	4.8	238	255	93.3
2015	134	191	70.2	23	221	10.4	250	279	89.6
2016	121	193	62.7	25	214	11.7	237	272	87.1
2017	111	188	59.0	30	241	12.4	208	251	82.9
2018	123	187	65.8	29	238	12.2	229	269	85.1
2019	113	183	61.7	37	213	16.0	224	259	86.5
2020	123	205	60.0	39	219	17.8	223	257	86.8
2021	107	188	56.9	51	269	19.0	216	244	88.5
2022	94	186	50.5	46	279	16.5	222	259	85.7
연도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타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2013	109	201	54.2	67	92	72.8	68	104	65.4
2014	111	208	53.4	94	118	79.7	83	121	68.6
2015	104	198	52.5	107	134	79.9	97	133	72.9
2016	82	193	42.5	119	140	85.0	106	148	71.6
2017	64	176	36.4	133	152	87.5	119	162	73.5
2018	87	183	47.5	157	180	87.2	106	157	67.5
2019	91	175	52.0	166	186	89.2	106	168	63.1
2020	101	185	24.6	164	202	81.2	118	186	64.5
2021	108	225	48.0	180	222	81.1	120	190	63.2
2022	110	235	46.8	169	213	79.3	115	187	61.5
연도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2013	6	232	2.6	70	242	28.9	24	104	23.1
2014	6	252	2.4	62	251	24.7	46	161	28.6
2015	13	256	5.1	59	259	22.8	63	191	33.0
2016	11	250	4.4	60	245	24.5	54	210	25.7
2017	9	247	3.6	65	246	26.4	46	211	21.8
2018	9	233	3.9	58	248	23.4	41	206	19.9
2019	8	254	3.1	58	260	22.3	44	229	19.2
2020	7	266	2.6	55	274	20.1	46	234	19.7
2021	4	263	1.5	45	264	17.0	36	230	15.7
2022	7	246	2.8	53	270	19.6	33	217	15.2

연도	유아교육학과			경영학과			경영대학원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남자	전체수	남자비율
2013	3	244	1.2	180	206	87.4	128	166	77.1
2014	1	242	0.4	100	114	87.7	240	299	80.2
2015	0	240	0.0	39	42	92.9	284	345	82.3
2016	3	249	1.2	16	20	80.0	283	352	80.4
2017	2	271	0.7	24	29	82.8	286	374	76.5
2018	3	260	1.2	15	19	78.9	286	397	76.5
2019	2	251	0.8	5	7	71.4	287	395	72.7
2020	1	258	0.4	3	5	60.0	317	439	72.2
2021	2	258	0.8	3	5	60.0	389	524	74.2
2022	2	266	0.8	2	4	50.0	404	539	75.0

`

2) 연령대별 분포 현황

2022학년도 대학원 재학생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표 Ⅱ-5>와 같다. 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을 모두 합친 전체 집단에서 40대가 37.0%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50대 26.8%, 30대 23.6%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60대 이상이 7.1%, 20대가 5.5%로 나타났다..

학과별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대 집단 중 20대가 가장 많은 학과는 아프리카·불어권문화학과로 20대가 전체의 17.1%를 차지하였다. 30대가 많은 학과는 통계·데이터과학과(49.3%), 정보과학과(35.3%), 행정학과(33.5%)로, 이 세 학과는 연령대별 집단 중 30대가 40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가 재학생의 절반이 넘는 학과로는 청소년교육학과(55.3%)와 유아교육학과(52.6%)가 있었다. 이 외에도 40대의 분포가 많은 학과로는 이러닝학과(49.4%), 평생교육학과(45.6%), 간호학과(44.7%)를 꼽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50대의 분포가 높은 학과에는 생활과학과(43.7%), 농업생명과학과(40.3%), 실용영어학과(38.0%)가 있었다. 60대 이상의 분포가 15% 이상으로 나타난 학과로는 일본언어문화학과(24.6%), 농업생명과학과(16.1%), 실용중국어학과(15.0%)가 있었다.

경영대학원 재학생들의 연령대별 분포는 다른 대학원 전공들과 유사한 양태를 나타내었다. 경영대학원에서 가장 많은 연령 집단은 40대(41.0%)였으며, 다음으로는 50대(23.6%), 30대(21.2%) 순이었다. 30대에서 50대가 경영대학원 재학생의 85.8%에 해당하였다.

<표 Ⅱ-5> 학과별 연령대 분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문예창작콘텐츠학과	8	40	79	90	28
	3.3%	16.3%	32.2%	36.7%	11.4%
실용영어학과	8	46	121	126	31
	2.4%	13.9%	36.4%	38.0%	9.3%
실용중국어학과	2	50	86	88	40
	0.8%	18.8%	32.3%	33.1%	15.0%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14	27	20	18	3
	17.1%	32.9%	24.4%	22.0%	3.7%
일본언어문화학과	10	13	44	40	35
	7.0%	9.2%	31.0%	28.2%	24.6%
법학과	9	47	71	42	16
	4.9%	25.4%	38.4%	22.7%	8.6%
행정학과	12	67	53	50	18
	6.0%	33.5%	26.5%	25.0%	9.0%
사회복지학과	3	25	83	81	19
	1.4%	11.8%	39.3%	38.4%	9.0%
영상문화콘텐츠학과	10	33	67	37	5
	6.6%	21.7%	44.1%	24.3%	3.3%
농업생명과학과	8	33	40	75	30
	4.3%	17.7%	21.5%	40.3%	16.1%
생활과학과	6	27	92	122	32
	2.2%	9.7%	33.0%	43.7%	11.5%
정보과학과	22	94	92	49	2
	8.5%	36.3%	35.5%	18.9%	0.8%
이러닝학과	10	72	116	33	4
	4.3%	30.6%	49.4%	14.0%	1.7%
통계·데이터과학과	16	105	68	24	
	7.5%	49.3%	31.9%	11.3%	0.0%
환경보건시스템학과	25	57	66	30	9
	13.4%	30.5%	35.3%	16.0%	4.8%
간호학과	4	74	110	54	4
	1.6%	30.1%	44.7%	22.0%	1.6%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평생교육학과	6	47	123	75	19
	2.2%	17.4%	45.6%	27.8%	7.0%
청소년교육학과	9	20	120	62	6
	4.1%	9.2%	55.3%	28.6%	2.8%
유아교육학과	10	53	140	61	2
	3.8%	19.9%	52.6%	22.9%	0.8%
경영학과			2		2
	0.0%	0.0%	50.0%	0.0%	50.0%
대학원학과(전체)	192	930	1,593	1,157	305
	4.6%	22.3%	38.1%	27.7%	7.3%
경영대학원	35	114	221	127	42
	6.5%	21.2%	41.0%	23.6%	7.8%
계	227	1,044	1,814	1,284	347
	4.8%	22.1%	38.5%	27.2%	7.4%

3) 지역 분포 현황

대학원 재학생들의 지역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6>과 같다. 방송대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지역 거주자가 31.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지역 거주자가 31.3%로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지난 실태조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과별로 살펴볼 때 대부분의 학과에서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가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학과에 따라 편차가 있음은 보인다. 예를 들어, 통계·데이터과학과, 법학과, 이러닝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의 서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다른 학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또한, 환경보건시스템학과나 농업생명공학과 등은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다른 학과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Ⅱ-6> 학과별 거주지역 분포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서울	63 25.7%	101 30.4%	84 31.6%	26 31.7%	60 42.3%	87 47.0%	63 31.5%	67 31.8%	60 39.5%	30 16.1%	80 28.7%
부산	14 5.7%	13 3.9%	9 3.4%	3 3.7%	6 4.2%	7 3.8%	7 3.5%	4 1.9%	3 2.0%	5 2.7%	9 3.2%
대구	7 2.9%	15 4.5%	8 3.0%	1 1.2%	0.0%	0.0%	3 1.5%	5 2.4%	4 2.6%	7 3.8%	3 1.1%
인천	15 6.1%	18 5.4%	9 3.4%	3 3.7%	13 9.2%	8 4.3%	10 5.0%	15 7.1%	1 0.7%	5 2.7%	14 5.0%
광주	3 1.2%	15 4.5%	7 2.6%	0.0%	1 0.7%	2 1.1%	1 0.5%	0.0%	2 1.3%	1 0.5%	6 2.2%
대전	9 3.7%	14 4.2%	2 0.8%	5 6.1%	1 0.7%	2 1.1%	10 5.0%	2 0.9%	6 3.9%	9 4.8%	5 1.8%
울산	4 1.6%	2 0.6%	3 1.1%	1 1.2%	0.0%	9 4.9%	1 0.5%	4 1.9%	3 2.0%	16 8.6%	19 6.8%
강원	9 3.7%	5 1.5%	3 1.1%	4 4.9%	0.0%	6 3.2%	15 7.5%	11 5.2%	6 3.9%	14 7.5%	15 5.4%
경기	68 27.8%	105 31.6%	96 36.1%	23 28.0%	41 28.9%	29 15.7%	51 25.5%	72 34.1%	46 30.3%	56 30.1%	84 30.1%
경남	4 0.8%	0.6%	1 0.0%	0.0%	3 0.7%	1 0.0%	0.0%	2 0.0%	1 0.0%	1.1%	2 0.0%
경북	10 5.7%	6 1.2%	13 4.9%	2 0.0%	6 5.6%	7 4.3%	3 1.0%	7 4.3%	2 1.3%	6 3.2%	8 2.9%
전남	15 5.7%	6 2.1%	4 1.9%	1 3.7%	1 1.4%	3 1.6%	3 2.0%	3 0.9%	1 0.7%	5 2.7%	7 2.9%
전북	0.0%	1 0.0%	0.0%	0.0%	1 0.0%	1 0.0%	2 0.0%	4 0.0%	1 0.0%	2 0.0%	2 0.0%
제주	10 4.5%	2 0.9%	7 2.6%	0.0%	0.0%	7 3.8%	6 3.0%	6 1.9%	3 2.6%	7 3.8%	7 2.9%
충남	7 2.9%	6 1.8%	11 4.1%	11 13.4%	3 2.1%	8 4.3%	10 5.0%	6 2.8%	2 1.3%	3 1.6%	4 1.4%
충북	4 1.6%	16 5.1%	9 3.4%	0.0%	3 2.8%	3 2.2%	9 5.5%	1 4.3%	10 7.2%	18 10.8%	14 5.7%
세종	1 0.4%	5 1.5%	0.0%	2 2.4%	2 1.4%	5 2.7%	6 3.0%	0.5%	1 0.7%	0.0%	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 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학과	대학원(전체)	경영대학원	계
서울	101	101	107	28	52	91	55	57	2	1,315	184	1,499
	39.0%	43.0%	50.2%	15.0%	21.1%	33.7%	25.3%	21.4%	50.0%	31.5%	34.1%	31.8%
부산	6	10	4	18	7		8	3		136	14	150
	2.3%	4.3%	1.9%	9.6%	2.8%	0.0%	3.7%	1.1%	0.0%	3.3%	2.6%	3.2%
대구	1	7	8	9	3	4	4	10		99	6	105
	0.4%	3.0%	3.8%	4.8%	1.2%	1.5%	1.8%	3.8%	0.0%	2.4%	1.1%	2.2%
인천	14	9	7	13	18	5	18	15		210	37	247
	5.4%	3.8%	3.3%	7.0%	7.3%	1.9%	8.3%	5.6%	0.0%	5.0%	6.9%	5.2%
광주	1	1	4	6	4	5	4	2		65	7	72
	0.4%	0.4%	1.9%	3.2%	1.6%	1.9%	1.8%	0.8%	0.0%	1.6%	1.3%	1.5%
대전	19	6	10	4	9		2	6		121	9	130
	7.3%	2.6%	4.7%	2.1%	3.7%	0.0%	0.9%	2.3%	0.0%	2.9%	1.7%	2.8%
울산	4	2	1	14	2	7	6	4		102	5	107
	1.5%	0.9%	0.5%	7.5%	0.8%	2.6%	2.8%	1.5%	0.0%	2.4%	0.9%	2.3%
강원		3	14	3	2	6	6	10		132	15	147
	0.0%	1.3%	6.6%	1.6%	0.8%	2.2%	2.8%	3.8%	0.0%	3.2%	2.8%	3.1%
경기	80	72	38	67	82	111	68	117	2	1,308	186	1,494
	39.0%	30.6%	17.8%	35.8%	33.3%	41.1%	31.3%	44.0%	50.0%	31.3%	34.5%	31.7%
경남				1	2	1	2	2		22	6	28
	0.0%	0.0%	0.0%	0.5%	0.8%	0.4%	0.9%	0.8%	0.0%	0.5%	1.1%	0.6%
경북	5			4	8	8	5	10		110	17	127
	1.9%	0.0%	0.0%	2.1%	3.3%	3.0%	2.3%	3.8%	0.0%	2.6%	3.2%	2.7%
전남	7	2	4	6	3	11	12	4		97	13	110
	2.7%	0.9%	1.9%	3.2%	1.2%	4.1%	5.5%	1.5%	0.0%	2.3%	2.4%	2.3%
전북				1	7		2			23	1	24
	0.0%	0.0%	0.0%	0.5%	2.8%	0.0%	0.9%	0.0%	0.0%	0.6%	0.2%	0.5%
제주	6	2	2	4	6	11	9	5		98	6	104
	2.3%	0.9%	0.9%	2.1%	2.4%	4.1%	4.1%	1.9%	0.0%	2.3%	1.1%	2.2%
충남	5	12	3	2	4	6	4	6		113	15	128
	1.9%	5.1%	1.4%	1.1%	1.6%	2.2%	1.8%	2.3%	0.0%	2.7%	2.8%	2.7%
충북	6	4	8	6	31	3	12	11		173	14	187
	2.3%	1.7%	3.8%	3.2%	12.6%	1.1%	5.5%	4.1%	0.0%	4.1%	2.6%	4.0%
세종	4	4	3	1	3	1		4		43	4	47
	1.5%	1.7%	1.4%	0.5%	1.2%	0.4%	0.0%	1.5%	0.0%	1.0%	0.7%	1.0%

* 데이터허브에 거주지역에 대해 '코드미지정(총 10건)으로 분류된 자료는 표에 포함하지 않음. 단, 각 비율은 코드미지정 10건을 포함한 전체 재학생 대비로 산출함

III. 입학 배경 및 준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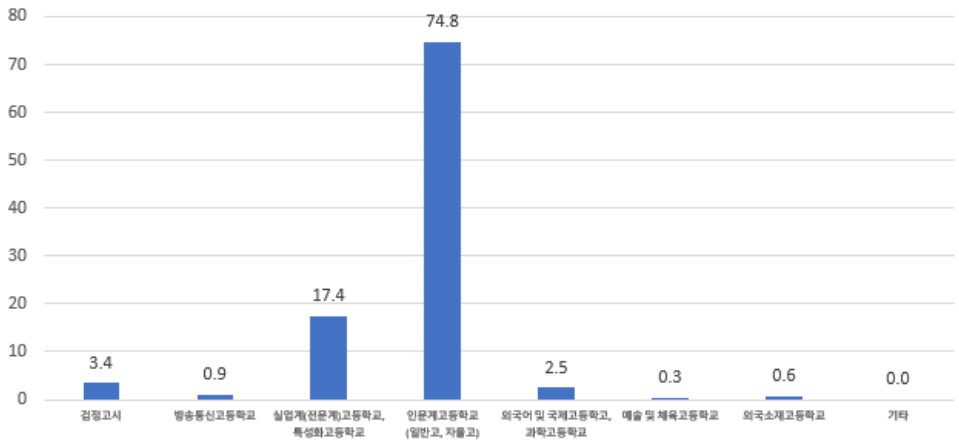
본 연구의 제 Ⅲ장부터 제 Ⅴ장은 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번 Ⅲ장에서는 대학원 재학생들의 학력 배경, 현재 직업 및 월 소득, 입학동기를 비롯한 입학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학력 배경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의 학력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출신 고등학교, 입학전 최종학력, 최종학력에서의 전공 계열이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1) 출신 고등학교

방송대 대학원생들의 출신 고등학교를 묻는 문항에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응답한 비율이 7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가 17.4%, 검정고시 3.4%, 외고와 과학고 출신이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 출신 고등학교 분포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태조사에서도 모두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가 75%

이상을 차지하였고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가 대략 16~17% 정도였다. 인문계 고교를 졸업한 비율은 처음으로 75% 아래로 떨어졌으나, 74.8%로 75%에 근접한 상태이고 이 수준도 다른 고등학교 유형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학과별 출신 고등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100.0%), 사회복지학과(100.0%), 통계·데이터과학과(94.1%), 간호학과(87.5%)에서 인문계고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실업계고의 비율이 타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에는 농업생명과학과(50.0%), 유아교육학과(33.3%), 청소년교육학과(31.8%), 이러닝학과(30.0%)가 있었다.

<표 III-1> 학과별 출신 고등학교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검정고시	1 5.9%	1 4.2%	1 9.1%	0 0.0%	0 0.0%	1 7.1%	0 0.0%	0 0.0%	0 0.0%	0 0.0%	1 3.8%
방송통신고	1 5.9%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1 7.1%	0 0.0%
실업(전문)계고, 특성화고	2 11.8%	2 8.3%	3 27.3%	0 0.0%	1 12.5%	2 14.3%	2 20.0%	1 6.7%	0 0.0%	7 50.0%	5 19.2%
인문계고(일반고,자율고)	13 76.5%	19 79.2%	6 54.5%	5 100.0%	7 87.5%	9 64.3%	7 70.0%	12 80.0%	13 100.0%	6 42.9%	20 76.9%
외고, 국제고, 과학고	0 0.0%	1 4.2%	0 0.0%	0 0.0%	0 0.0%	2 14.3%	0 0.0%	1 6.7%	0 0.0%	0 0.0%	0 0.0%
예·체능계고	0 0.0%	1 4.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외국소재 고	0 0.0%	0 0.0%	1 9.1%	0 0.0%	0 0.0%	0 0.0%	0 0.0%	1 6.7%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검정고시	1 5.6%	1 10.0%	0 0.0%	0 0.0%	0 0.0%	1 4.8%	0 0.0%	0 0.0%	3 7.3%	11 3.4%
방송통신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0.9%
실업(전문)계고, 특성화고	2 11.1%	3 30.0%	0 0.0%	2 28.6%	2 10.5%	1 4.8%	7 31.8%	3 33.3%	11 26.8%	56 17.4%
인문계고(일반고, 자율고)	15 83.3%	5 50.0%	16 94.1%	5 71.4%	17 89.5%	18 85.7%	15 68.2%	6 66.7%	26 63.4%	240 74.8%
외고, 국제고, 과학고	0 0.0%	1 10.0%	1 5.9%	0 0.0%	0 0.0%	1 4.8%	0 0.0%	0 0.0%	1 2.4%	8 2.5%
예·체능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외국소재 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6%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대학원 재학생의 성별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분포를 살펴보았다. 인문계고의 경우 남자가 77.8%, 여자가 72.3%로 나타났으며, 실업계고는 남자가 16.0%, 여자가 18.6%, 검정고시는 남자가 2.8%, 여자가 4.0%로 나타났다. 인문계고 출신의 비율이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실업계고나 검정고시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 출신 고등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뒤를 이었다. 다만 세대별도 분포 비율에는 편차가 나타났는데, 60대의 출신 고등학교 비율이 다소 다른 구성을 나타내었다. 60대 대학원생들 중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인 비율이 53.3%로 다른 연령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20대의 출신 고등학교 비율 역시 다른 연령대 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20대 대학원생들의 인문계고(57.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실업계고(21.4%)와 검정고시(14.3%)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 성별 출신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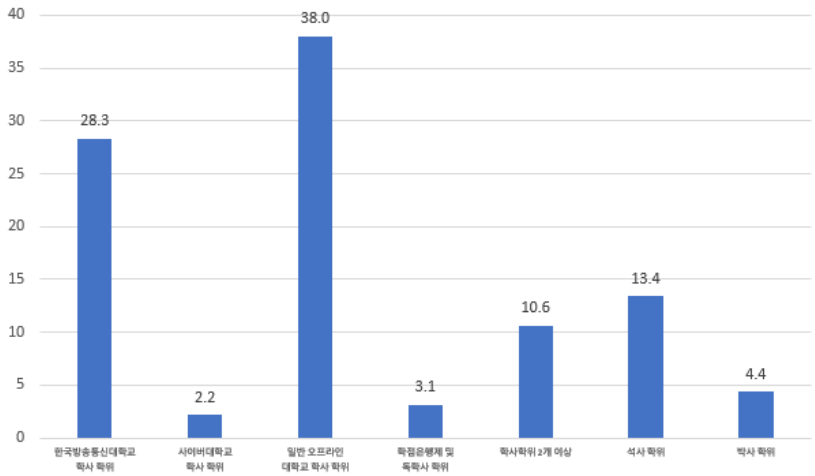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계
검정고시	4 2.8%	7 4.0%	11 3.4%
방송통신고	1 0.7%	2 1.1%	3 0.9%
실업(전문)계고, 특성화고	23 16.0%	33 18.6%	56 17.4%
인문계고(일반고, 자율고)	112 77.8%	128 72.3%	240 74.8%
외고, 국제고, 과학고	4 2.8%	4 2.3%	8 2.5%
예·체능고	0 0.0%	1 0.6%	1 0.3%
외국소재 고	0 0.0%	2 1.1%	2 0.6%
기타	0 0.0%	0 0.0%	0 0.0%
계	144 100.0%	177 100.0%	321 100.0%

<표 III-3> 연령별 출신 고등학교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검정고시	2 14.3%	4 6.8%	3 2.2%	0 0.0%	2 6.7%	11 3.4%
방송통신고	0 0.0%	0 0.0%	1 0.7%	1 1.2%	1 3.3%	3 0.9%
실업(전문)계고, 특성화고	3 21.4%	5 8.5%	21 15.3%	16 19.8%	11 36.7%	56 17.4%
인문계고(일반고, 자율고)	8 57.1%	46 78.0%	107 78.1%	63 77.8%	16 53.3%	240 74.8%
외고, 국제고, 과학고	0 0.0%	2 3.4%	5 3.6%	1 1.2%	0 0.0%	8 2.5%
예·체능고	0 0.0%	1 1.7%	0 0.0%	0 0.0%	0 0.0%	1 0.3%
외국소재 고	1 7.1%	1 1.7%	0 0.0%	0 0.0%	0 0.0%	2 0.6%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2) 입학 전 최종 학력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의 입학 전 최종 학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일반오프라인 대학교 학사학위가 38.0%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방송대가 28.3%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3.4%가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지난 2021년 조사보다 4.2% 이상 상승한 것이다. 그 뒤를 이어, 학사학위를 2개 이상 가진 응답자가 10.6%로 나타났다.



[그림 Ⅲ-2] 입학 전 최종 학력

입학 전 최종 학력을 학과별로 살펴보면, 학과에 따라 최종 학력으로 졸업한 학교 종규에 편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용영어학과,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경영대학원은 일반 오프라인대학교 학사학위의 비율이 50% 이상을 나타내서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용중국어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유아교육학과는 방송대 학사학위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타과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III-4> 학과별 입학 전 최종 학력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방송대 학사학위	3 17.6%	3 12.5%	5 45.5%	0 0.0%	0 0.0%	3 21.4%	4 40.0%	3 20.0%	7 53.8%	10 71.4%	13 50.0%
사이버대 학사학위	1 5.9%	1 4.2%	0 0.0%	0 0.0%	0 0.0%	1 7.1%	0 0.0%	0 0.0%	0 0.0%	0 0.0%	0 0.0%
일반오프라인 학사학위	6 35.3%	15 62.5%	1 9.1%	2 40.0%	2 25.0%	6 42.9%	3 30.0%	7 46.7%	4 30.8%	3 21.4%	5 19.2%
학점은행제, 독학사	1 5.9%	1 4.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7.7%	0 0.0%	0 0.0%
학사학위 2개 이상	2 11.8%	1 4.2%	1 9.1%	1 20.0%	1 12.5%	1 7.1%	0 0.0%	3 20.0%	0 0.0%	1 7.1%	5 19.2%
석사학위	3 17.6%	3 12.5%	4 36.4%	2 40.0%	4 50.0%	2 14.3%	2 20.0%	0 0.0%	1 7.7%	0 0.0%	2 7.7%
박사학위	1 5.9%	0 0.0%	0 0.0%	0 0.0%	1 12.5%	1 7.1%	1 10.0%	2 13.3%	0 0.0%	0 0.0%	1 3.8%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방송대 학사학위	5 27.8%	1 10.0%	3 17.6%	1 14.3%	5 26.3%	7 33.3%	7 31.8%	4 44.4%	7 17.1%	91 28.3%
사이버대 학사학위	1 5.6%	0 0.0%	0 0.0%	0 0.0%	1 5.3%	0 0.0%	1 4.5%	0 0.0%	1 2.4%	7 2.2%
일반오프라인 학사학위	10 55.6%	6 60.0%	5 29.4%	4 57.1%	5 26.3%	4 19.0%	8 36.4%	4 44.4%	22 53.7%	122 38.0%
학점은행제, 독학사	0 0.0%	0 0.0%	0 0.0%	0 0.0%	5 26.3%	1 4.8%	0 0.0%	0 0.0%	1 2.4%	10 3.1%
학사학위 2개 이상	1 5.6%	0 0.0%	2 11.8%	1 14.3%	2 10.5%	4 19.0%	2 9.1%	1 11.1%	5 12.2%	34 10.6%
석사학위	1 5.6%	3 30.0%	4 23.5%	1 14.3%	1 5.3%	4 19.0%	4 18.2%	0 0.0%	2 4.9%	43 13.4%
박사학위	0 0.0%	0 0.0%	3 17.6%	0 0.0%	0 0.0%	1 4.8%	0 0.0%	0 0.0%	3 7.3%	14 4.4%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전체 설문 응답자의 대학원 입학전 최종 학력 학교 종류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일반오프라인 학사학위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약간 나타나는 한편, 여성이 남성보다 방송대 학사학위(남성 21.5%, 여성 33.9%)를 가진 경우가 많았고 학사학위를 2개 이상(남성 6.9%, 여성 13.6%) 가진 경우도 더 많았다. 반면, 석사학위(남성 18.1%, 여성 9.6%)나 박사학위(남성 6.9%, 여성 2.3%)를 가진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표 Ⅲ-5> 성별 입학 전 최종 학력

구분	남성	여성	계
방송대 학사학위	31 21.5%	60 33.9%	91 28.3%
사이버대 학사학위	5 3.5%	2 1.1%	7 2.2%
일반오프라인 학사학위	57 39.6%	65 36.7%	122 38.0%
학점은행제, 독학사	5 3.5%	5 2.8%	10 3.1%
학사학위 2개 이상	10 6.9%	24 13.6%	34 10.6%
석사학위	26 18.1%	17 9.6%	43 13.4%
박사학위	10 6.9%	4 2.3%	14 4.4%
계	144 100.0%	177 100.0%	321 100.0%

연령별 최종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으로 차이가 발견되었다. 방송대 학사학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늘어났으며, 일반오프라인 학사학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졌다. 일반오프라인 학사학위의 경우, 20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일반오프라인 학사학위 소지자였다. 석사학위 소지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사학위 2개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대로 15.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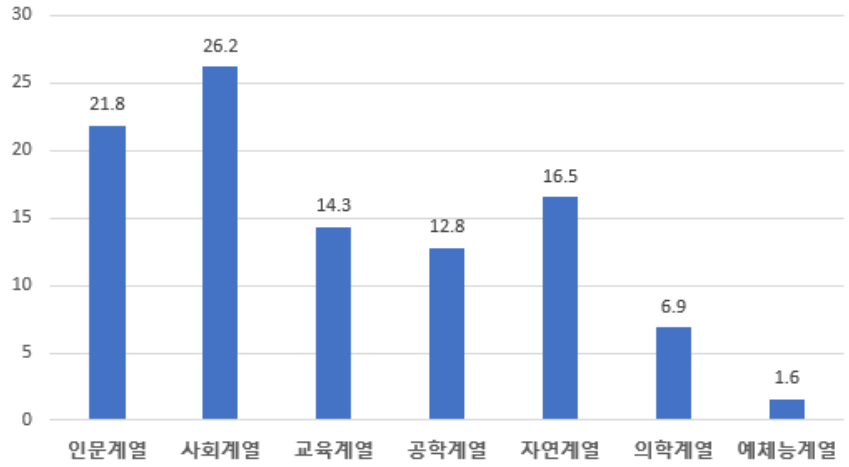
<표 III-6> 연령별 입학 전 최종 학력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방송대 학사학위	2 14.3%	15 25.4%	39 28.5%	25 30.9%	10 33.3%	91 28.3%
사이버대 학사학위	2 14.3%	1 1.7%	2 1.5%	1 1.2%	1 3.3%	7 2.2%
일반오프라인 학사학위	7 50.0%	22 37.3%	48 35.0%	35 43.2%	10 33.3%	122 38.0%
학점은행제, 독학사	1 7.1%	2 3.4%	6 4.4%	0 0.0%	1 3.3%	10 3.1%
학사학위 2개 이상	1 7.1%	9 15.3%	19 13.9%	3 3.7%	2 6.7%	34 10.6%
석사학위	1 7.1%	7 11.9%	17 12.4%	12 14.8%	6 20.0%	43 13.4%
박사학위	0 0.0%	3 5.1%	6 4.4%	5 6.2%	0 0.0%	14 4.4%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3) 최종 학력에서의 전공계열

최종 학력 전공계열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대학원 입학 전 최종 학력에서의 전공계열은 사회계열이 2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인문계열 21.8%, 자연계열 16.5%, 교육계열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공학계열 12.8%, 의학계열 6.9%, 예체능계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최종 학부 계열과 현재 대학원 전공 계열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행정학과는 인문계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러닝학과, 경영대학원은 사회계열의 비율이, 농업생명과학과와 생활과학과와 환경보건시스템학과는 자연계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과학과는 공학계열의 비율이 높았고,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는 교육계열, 간호학과와 통계·데이터과학과의 경우 의학계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Ⅲ-3] 입학 전 최종 학력에서의 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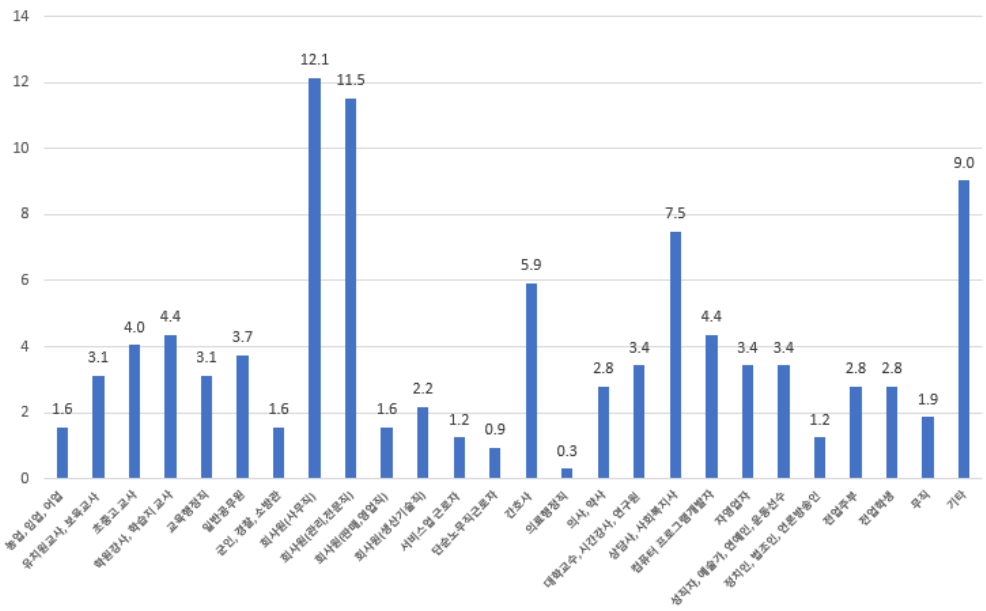
<표 Ⅲ-7> 학과별 입학 전 최종 학력에서의 계열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인문계열	8 47.1%	11 45.8%	8 72.7%	3 60.0%	5 62.5%	1 7.1%	4 40.0%	2 13.3%	1 7.7%	2 14.3%	2 7.7%
사회계열	1 5.9%	6 25.0%	1 9.1%	1 20.0%	2 25.0%	10 71.4%	3 30.0%	10 66.7%	10 76.9%	0 0.0%	5 19.2%
교육계열	4 23.5%	2 8.3%	1 9.1%	1 20.0%	0 0.0%	0 0.0%	3 30.0%	0 0.0%	1 7.7%	0 0.0%	5 19.2%
공학계열	1 5.9%	1 4.2%	0 0.0%	0 0.0%	1 12.5%	1 7.1%	0 0.0%	1 6.7%	0 0.0%	1 7.1%	1 3.8%
자연계열	2 11.8%	2 8.3%	1 9.1%	0 0.0%	0 0.0%	0 0.0%	0 0.0%	0 0.0%	1 7.7%	11 78.6%	12 46.2%
의학계열	1 5.9%	1 4.2%	0 0.0%	0 0.0%	0 0.0%	2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예체능계열	0 0.0%	1 4.2%	0 0.0%	0 0.0%	0 0.0%	0 0.0%	0 0.0%	2 13.3%	0 0.0%	0 0.0%	1 3.8%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인문계열	2 11.1%	1 10.0%	1 5.9%	0 0.0%	0 0.0%	4 19.0%	3 13.6%	2 22.2%	10 24.4%	70 21.8%
사회계열	2 11.1%	4 40.0%	2 11.8%	1 14.3%	2 10.5%	4 19.0%	6 27.3%	0 0.0%	14 34.1%	84 26.2%
교육계열	0 0.0%	3 30.0%	0 0.0%	0 0.0%	0 0.0%	8 38.1%	12 54.5%	6 66.7%	0 0.0%	46 14.3%
공학계열	10 55.6%	2 20.0%	4 23.5%	2 28.6%	1 5.3%	5 23.8%	0 0.0%	0 0.0%	10 24.4%	41 12.8%
자연계열	4 22.2%	0 0.0%	4 23.5%	4 57.1%	5 26.3%	0 0.0%	1 4.5%	0 0.0%	6 14.6%	53 16.5%
의학계열	0 0.0%	0 0.0%	6 35.3%	0 0.0%	11 57.9%	0 0.0%	0 0.0%	0 0.0%	1 2.4%	22 6.9%
예체능계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5 1.6%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2. 직업 분포

방송대 대학원생들의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원(사무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사원(관리, 전문직)이 11.5%, 상담사·사회복지사가 7.5%, 간호사가 5.9%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학원강사·학습지교사와 컴퓨터프로그램개발자가 각각 4.4%, 초·중·고 교사가 4.0%, 일반공무원이 3.7%를 차지하였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담사·사회복지사와 컴퓨터프로그램개발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학과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학과 외에 다른 어떤 원인에 따라 직업분포가 달라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Ⅲ-4] 방송대 재학생 직업

학과별로 살펴보면 직업분포에 편차가 나타나는데, 이는 <표 Ⅲ-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학과별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직업과 학과의 학문영역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방송대 대학원 진학이 해당 직업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 내지는 지식 습득을 위해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표 Ⅲ-8> 학과별 직업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농업, 임업, 어업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0%	0 0.0%	4 28.6%	0 0.0%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0 0.0%	1 4.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0%	0 0.0%	0 0.0%	0 0.0%
초중고 교사	3 17.6%	3 12.5%	0 0.0%	0 0.0%	0 0.0%	1 7.1%	0 0.0%	0 0.00%	0 0.0%	0 0.0%	1 3.8%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2 11.8%	2 8.3%	2 18.2%	0 0.0%	0 0.0%	0 0.0%	0 0.0%	0 0.00%	0 0.0%	0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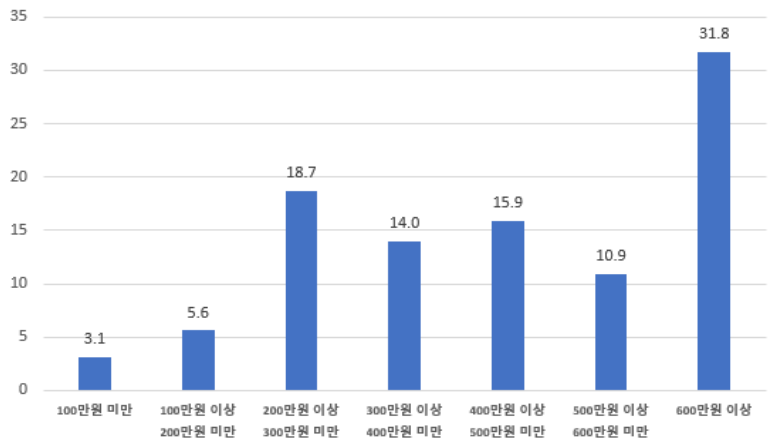
교육행정직	0 0.0%	0 0.0%	1 9.1%	0 0.0%	0 0.0%	0 0.0%	1 10.0%	1 6.67%	0 0.0%	0 0.0%	0 0.0%
일반공무원	0 0.0%	4 16.7%	0 0.0%	0 0.0%	0 0.0%	0 0.0%	2 20.0%	2 13.33%	0 0.0%	0 0.0%	0 0.0%
군인, 경찰, 소방관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1 10.0%	0 0.00%	0 0.0%	0 0.0%	0 0.0%
회사원(사무직)	1 5.9%	3 12.5%	2 18.2%	0 0.0%	0 0.0%	1 7.1%	2 20.0%	1 6.67%	0 0.0%	0 0.0%	0 0.0%
회사원(관리, 전문직)	1 5.9%	2 8.3%	0 0.0%	0 0.0%	2 25.0%	1 7.1%	1 10.0%	0 0.00%	1 7.7%	3 21.4%	4 15.4%
회사원(판매, 영업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0%	1 7.7%	1 7.1%	0 0.0%
회사원(생산기술직)	0 0.0%	0 0.0%	1 9.1%	0 0.0%	1 12.5%	1 7.1%	0 0.0%	0 0.00%	0 0.0%	1 7.1%	1 3.8%
서비스업 근로자	1 5.9%	1 4.2%	0 0.0%	0 0.0%	0 0.0%	0 0.0%	0 0.0%	1 6.67%	0 0.0%	0 0.0%	0 0.0%
단순노무직 근로자	1 5.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7.7%	0 0.0%	0 0.0%
간호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0%	0 0.0%	0 0.0%	0 0.0%
의료행정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0%	1 7.7%	0 0.0%	0 0.0%
의사, 약사	1 5.9%	0 0.0%	0 0.0%	0 0.0%	0 0.0%	1 7.1%	0 0.0%	0 0.00%	0 0.0%	0 0.0%	0 0.0%
대학교강사, 연구원	1 5.9%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2 13.33%	0 0.0%	1 7.1%	2 7.7%
상담사, 사회복지사	1 5.9%	0 0.0%	1 9.1%	0 0.0%	0 0.0%	1 7.1%	0 0.0%	0 0.00%	7 53.8%	0 0.0%	7 26.9%
컴퓨터프로그램개발자	1 5.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0%	0 0.0%	0 0.0%	0 0.0%
자영업자	0 0.0%	0 0.0%	0 0.0%	0 0.0%	1 12.5%	1 7.1%	0 0.0%	1 6.67%	0 0.0%	1 7.1%	3 11.5%
성직,예술,연예인,운동	2 11.8%	1 4.2%	1 9.1%	1 20.0%	1 12.5%	0 0.0%	0 0.0%	4 26.67%	0 0.0%	0 0.0%	0 0.0%
정치,법조인, 언론방송	0 0.0%	0 0.0%	0 0.0%	0 0.0%	0 0.0%	2 14.3%	0 0.0%	1 6.67%	0 0.0%	0 0.0%	0 0.0%
전업주부	0 0.0%	1 4.2%	0 0.0%	0 0.0%	2 25.0%	0 0.0%	0 0.0%	0 0.00%	0 0.0%	0 0.0%	4 15.4%
전업학생	0 0.0%	1 4.2%	1 9.1%	2 40.0%	0 0.0%	1 7.1%	1 10.0%	1 6.67%	0 0.0%	0 0.0%	1 3.8%
무직	1 5.9%	0 0.0%	1 9.1%	1 20.0%	0 0.0%	1 7.1%	0 0.0%	0 0.00%	0 0.0%	0 0.0%	0 0.0%
기타	1 5.9%	5 20.8%	1 9.1%	1 20.0%	1 12.5%	2 14.3%	1 10.0%	1 6.67%	2 15.4%	3 21.4%	3 11.5%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농업, 임업, 어업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5 1.6%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 100.0%	0 0.0%	10 3.1%
초중고 교사	0 0.0%	1 10.0%	0 0.0%	0 0.0%	0 0.0%	2 9.5%	2 9.1%	0 0.0%	0 0.0%	13 4.0%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0 0.0%	2 20.0%	2 11.8%	0 0.0%	0 0.0%	2 9.5%	2 9.1%	0 0.0%	0 0.0%	14 4.4%
교육행정직	1 5.6%	1 10.0%	0 0.0%	0 0.0%	0 0.0%	2 9.5%	2 9.1%	0 0.0%	1 2.4%	10 3.1%
일반공무원	0 0.0%	0 0.0%	0 0.0%	1 14.3%	0 0.0%	1 4.8%	0 0.0%	0 0.0%	2 4.9%	12 3.7%
군인, 경찰, 소방관	1 5.6%	0 0.0%	1 5.9%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5 1.6%
회사원(사무직)	2 11.1%	3 30.0%	3 17.6%	0 0.0%	0 0.0%	6 28.6%	2 9.1%	0 0.0%	13 31.7%	39 12.1%
회사원(관리, 전문직)	3 16.7%	1 10.0%	1 5.9%	4 57.1%	0 0.0%	1 4.8%	0 0.0%	0 0.0%	12 29.3%	37 11.5%
회사원(판매, 영업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7.3%	5 1.6%
회사원(생산기술직)	1 5.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7 2.2%
서비스업 근로자	0 0.0%	0 0.0%	0 0.0%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4 1.2%
단순노무직근로자	0 0.0%	0 0.0%	0 0.0%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3 0.9%
간호사	0 0.0%	0 0.0%	0 0.0%	0 0.0%	19 100.0%	0 0.0%	0 0.0%	0 0.0%	0 0.0%	19 5.9%
의료행정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의사, 약사	0 0.0%	0 0.0%	6 35.3%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9 2.8%
대학교강사, 연구원	0 0.0%	0 0.0%	1 5.9%	0 0.0%	0 0.0%	1 4.8%	2 9.1%	0 0.0%	0 0.0%	11 3.4%
상담사, 사회복지사	0 0.0%	1 10.0%	0 0.0%	0 0.0%	0 0.0%	1 4.8%	5 22.7%	0 0.0%	0 0.0%	24 7.5%
컴퓨터프로그램개발자	9 50.0%	0 0.0%	3 17.6%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14 4.4%
자영업자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2 9.1%	0 0.0%	1 2.4%	11 3.4%
성직,예술,연예인,운동	0 0.0%	0 0.0%	0 0.0%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11 3.4%

정치,법조인, 언론방송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4 1.2%
전업주부	0 0.0%	0 0.0%	0 0.0%	0 0.0%	0 0.0%	1 4.8%	1 4.5%	0 0.0%	0 0.0%	9 2.8%
전업학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9 2.8%
무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4.9%	6 1.9%
기타	1 5.6%	0 0.0%	0 0.0%	1 14.3%	0 0.0%	1 4.8%	4 18.2%	0 0.0%	1 2.4%	29 9.0%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3. 소득 분포

가계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00만원 이상이 31.8%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고 이어서,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18.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5.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4.0%,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5.6%, '100만 미만'은 3.1%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I-5] 가정(가계)의 월평균 총 수입

학과별 가계 소득을 살펴보면,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정보과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에서 600만원 이상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

<표 Ⅲ-9> 학과별 가정(가계)의 월평균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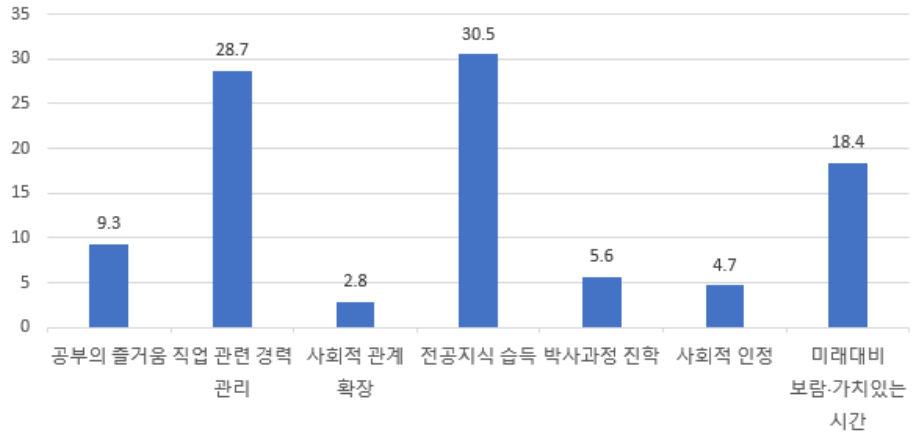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100만원 미만	0 0.0%	2 8.3%	1 9.1%	3 60.0%	0 0.0%	1 7.1%	0 0.0%	1 6.7%	0 0.0%	1 7.1%	1 3.8%
100만원-200만원	2 11.8%	1 4.2%	2 18.2%	0 0.0%	0 0.0%	0 0.0%	1 10.0%	1 6.7%	1 7.7%	1 7.1%	3 11.5%
200만원-300만원	4 23.5%	8 33.3%	2 18.2%	0 0.0%	2 25.0%	3 21.4%	4 40.0%	1 6.7%	2 15.4%	3 21.4%	5 19.2%
300만원-400만원	3 17.6%	2 8.3%	1 9.1%	1 20.0%	1 12.5%	2 14.3%	1 10.0%	3 20.0%	2 15.4%	4 28.6%	4 15.4%
400만원-500만원	1 5.9%	2 8.3%	2 18.2%	1 20.0%	3 37.5%	1 7.1%	3 30.0%	1 6.7%	2 15.4%	1 7.1%	4 15.4%
500만원-600만원	4 23.5%	1 4.2%	0 0.0%	0 0.0%	2 25.0%	3 21.4%	0 0.0%	3 20.0%	1 7.7%	0 0.0%	3 11.5%
600만원 이상	3 17.6%	8 33.3%	3 27.3%	0 0.0%	0 0.0%	4 28.6%	1 10.0%	5 33.3%	5 38.5%	4 28.6%	6 23.1%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100만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 3.1%
100만원-200만원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2 9.1%	1 11.1%	2 4.9%	18 5.6%
200만원-300만원	4 22.2%	2 20.0%	3 17.6%	1 14.3%	0 0.0%	8 38.1%	4 18.2%	1 11.1%	3 7.3%	60 18.7%
300만원-400만원	3 16.7%	0 0.0%	1 5.9%	0 0.0%	7 36.8%	2 9.5%	1 4.5%	2 22.2%	5 12.2%	45 14.0%
400만원-500만원	4 22.2%	2 20.0%	5 29.4%	2 28.6%	4 21.1%	3 14.3%	7 31.8%	0 0.0%	3 7.3%	51 15.9%
500만원-600만원	1 5.6%	3 30.0%	2 11.8%	1 14.3%	3 15.8%	1 4.8%	2 9.1%	1 11.1%	4 9.8%	35 10.9%
600만원 이상	6 33.3%	2 20.0%	6 35.3%	3 42.9%	5 26.3%	7 33.3%	6 27.3%	4 44.4%	24 58.5%	102 31.8%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4. 입학 준비 및 고려 사항

1) 입학 동기

방송대 대학원생들의 대학원 진학 동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공지식 습득을 위해서가 30.5%로 가장 많았고, 직업관련 경력관리를 위해서가 28.7%를 차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밖에 미래대비 보람있고 가치있는 시간을 위해서라는 응답도 18.4%였다. 그 외에 공부의 즐거움이 9.3%, 박사과정 진학이 5.6%, 사회적 인정이 4.7%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방송대 대학원 진학에는 전공지식 자체에 대한 관심과 직업적 동기가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와 보람있고 가치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욕구나 공부자체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내적인 동기 또한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I-6] 대학원 진학동기

학과별로 진학동기를 살펴보면 학과에 따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용중국어학과, 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는 전공지식습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데 비해 실용영어학과, 행정학과, 생활과학과, 정보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경영대학원에서는 직업관련 경력

관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문예창작콘텐츠학과와 일본언어문화학과에서는 공부의 즐거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타학과와의 차별성을 보였다.

<표 Ⅲ-10> 학과별 대학원 진학 동기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공부의 즐거움	9 52.9%	3 12.5%	3 27.3%	0 0.0%	3 37.5%	2 14.3%	0 0.0%	0 0.0%	0 0.0%	0 0.0%	2 7.7%
직업 관련 경력 관리	2 11.8%	7 29.2%	2 18.2%	0 0.0%	0 0.0%	3 21.4%	4 40.0%	5 33.3%	2 15.4%	3 21.4%	10 38.5%
사회적 관계 확장	0 0.0%	1 4.2%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2 14.3%	0 0.0%
전공지식 습득	3 17.6%	3 12.5%	5 45.5%	2 40.0%	2 25.0%	5 35.7%	2 20.0%	7 46.7%	8 61.5%	6 42.9%	7 26.9%
박사과정 진학	0 0.0%	3 12.5%	0 0.0%	1 20.0%	0 0.0%	1 7.1%	0 0.0%	1 6.7%	0 0.0%	1 7.1%	0 0.0%
사회적 인정	1 5.9%	2 8.3%	0 0.0%	0 0.0%	1 12.5%	0 0.0%	0 0.0%	0 0.0%	2 15.4%	0 0.0%	0 0.0%
미래대비 보람·가치	2 11.8%	5 20.8%	1 9.1%	2 40.0%	2 25.0%	3 21.4%	3 30.0%	2 13.3%	1 7.7%	2 14.3%	7 26.9%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공부의 즐거움	2 11.1%	1 10.0%	0 0.0%	0 0.0%	0 0.0%	0 0.0%	2 9.1%	1 11.1%	2 4.9%	30 9.3%
직업 관련 경력 관리	7 38.9%	2 20.0%	2 11.8%	5 71.4%	9 47.4%	6 28.6%	8 36.4%	4 44.4%	11 26.8%	92 28.7%
사회적 관계 확장	0 0.0%	0 0.0%	0 0.0%	0 0.0%	0 0.0%	2 9.5%	0 0.0%	1 11.1%	2 4.9%	9 2.8%
전공지식 습득	6 33.3%	3 30.0%	10 58.8%	2 28.6%	3 15.8%	5 23.8%	8 36.4%	1 11.1%	10 24.4%	98 30.5%
박사과정 진학	0 0.0%	0 0.0%	1 5.9%	0 0.0%	2 10.5%	0 0.0%	3 13.6%	1 11.1%	4 9.8%	18 5.6%
사회적 인정	1 5.6%	0 0.0%	0 0.0%	0 0.0%	2 10.5%	4 19.0%	0 0.0%	0 0.0%	2 4.9%	15 4.7%
미래대비 보람·가치	2 11.1%	4 40.0%	4 23.5%	0 0.0%	3 15.8%	4 19.0%	1 4.5%	1 11.1%	10 24.4%	59 18.4%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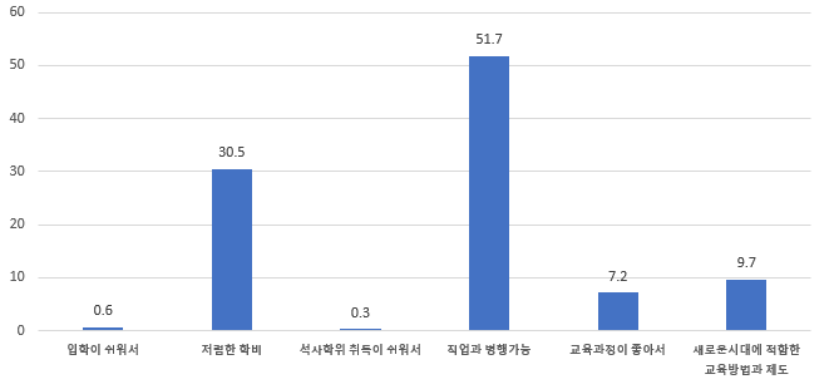
연령별 진학동기를 살펴보면, 전공지식 습득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공부의 즐거움, 사회적 관계 확장, 사회적 인정과 같은 진학동기는 역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집단 중 30대와 40대에서 직업 관련 경력 관리를 진학동기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 연령별 대학원 진학 동기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공부의 즐거움	0 0.0%	3 5.1%	10 7.3%	13 16.0%	4 13.3%	30 9.3%
직업 관련 경력 관리	2 14.3%	26 44.1%	42 30.7%	14 17.3%	8 26.7%	92 28.7%
사회적 관계 확장	0 0.0%	0 0.0%	3 2.2%	4 4.9%	2 6.7%	9 2.8%
전공지식 습득	6 42.9%	20 33.9%	39 28.5%	27 33.3%	6 20.0%	98 30.5%
박사과정 진학	3 21.4%	1 1.7%	8 5.8%	6 7.4%	0 0.0%	18 5.6%
사회적 인정	0 0.0%	1 1.7%	8 5.8%	3 3.7%	3 10.0%	15 4.7%
미래대비 보람·가치	3 21.4%	8 13.6%	27 19.7%	14 17.3%	7 23.3%	59 18.4%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2) 방송대 선택 이유

방송대 대학원생들이 여러 대학교 중에서 특히 '방송대' 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1.7%가 직업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30.5%의 학생들은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9.7%의 학생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법과 과정 때문에 방송대를 선택했고, 7.2%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좋기 때문에 방송대를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7] 방송대 대학원 선택 이유

학과별로 방송대 대학원 선택이유를 살펴보면,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와 유아교육학과에서 저렴한 학비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고 그 외의 학과들은 모두 직업과 병행가능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문예창작콘텐츠학과에서는 저렴한 학비와 직업과 병행 가능의 비율이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 학과는 다른 학과 나름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언어문화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30% 이상의 응답자들이 교육과정이 좋아서를 방송대 대학원 선택이유로 꼽았다.

<표 Ⅲ-12> 학과별 방송대 대학원 선택 이유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입학이 쉬워서	0 0.0%	1 4.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8%
저렴한 학비	7 41.2%	6 25.0%	1 9.1%	3 60.0%	1 12.5%	3 21.4%	1 10.0%	5 33.3%	5 38.5%	3 21.4%	9 34.6%
석사학위 취득이 쉬워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직업과 병행가능	7 41.2%	14 58.3%	7 63.6%	2 40.0%	4 50.0%	8 57.1%	6 60.0%	7 46.7%	3 23.1%	8 57.1%	11 42.3%
교육과정이 좋아서	2 11.8%	1 4.2%	2 18.2%	0 0.0%	3 37.5%	0 0.0%	2 20.0%	2 13.3%	4 30.8%	0 0.0%	1 3.8%
새로운 시대에 적합	1 5.9%	2 8.3%	1 9.1%	0 0.0%	0 0.0%	3 21.4%	1 10.0%	1 6.7%	1 7.7%	3 21.4%	4 15.4%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입학이 쉬워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6%
저렴한 학비	6 33.3%	3 30.0%	4 23.5%	3 42.9%	7 36.8%	3 14.3%	7 31.8%	5 55.6%	16 39.0%	98 30.5%
석사학위 취득이 쉬워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1 0.3%
직업과 병행가능	11 61.1%	5 50.0%	11 64.7%	4 57.1%	10 52.6%	14 66.7%	11 50.0%	3 33.3%	20 48.8%	166 51.7%
교육과정이 좋아서	0 0.0%	1 10.0%	1 5.9%	0 0.0%	0 0.0%	2 9.5%	2 9.1%	0 0.0%	0 0.0%	23 7.2%
새로운 시대에 적합	1 5.6%	1 10.0%	1 5.9%	0 0.0%	2 10.5%	2 9.5%	2 9.1%	1 11.1%	4 9.8%	31 9.7%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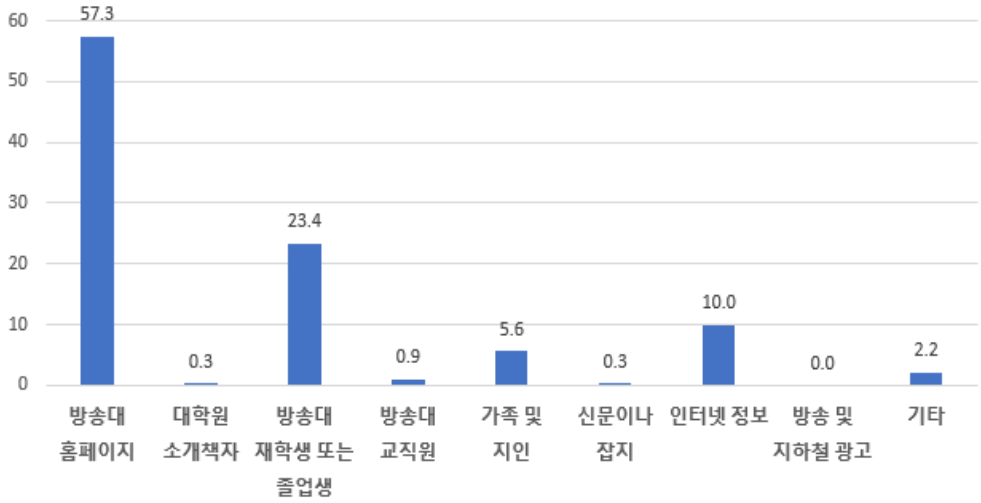
연령별로 방송대 선택이유를 살펴보았다. 모든 연령 집단에서 절반 정도가 직업과 병행가능하다는 점을 방송대 선택이유로 꼽았는데, 특히 30대에서 61.0%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렴한 학비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표 III-13> 연령별 방송대 대학원 선택 이유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입학이 쉬워서	0 0.0%	0 0.0%	1 0.7%	1 1.2%	0 0.0%	2 0.6%
저렴한 학비	3 21.4%	13 22.0%	40 29.2%	31 38.3%	11 36.7%	98 30.5%
석사학위 취득이 쉬워서	0 0.0%	0 0.0%	1 0.7%	0 0.0%	0 0.0%	1 0.3%
직업과 병행가능	7 50.0%	36 61.0%	72 52.6%	36 44.4%	15 50.0%	166 51.7%
교육과정이 좋아서	3 21.4%	4 6.8%	9 6.6%	5 6.2%	2 6.7%	23 7.2%
새로운 시대에 적합	1 7.1%	6 10.2%	14 10.2%	8 9.9%	2 6.7%	31 9.7%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3) 방송대 대학원 관련 정보 취득 방법

방송대 대학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분석한 결과, 방송대 홈페이지가 57.3%로 가장 중요한 정보 획득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송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23.4%를 차지했고 인터넷 정보 10.0%, 가족 및 지인 5.6%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Ⅲ-8] 방송대 대학원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

학과별 정보 취득 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정보 취득 방법은 방송대 홈페이지로 유사하였으나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정보 취득 방법은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농업생명과학과와 유아교육학과에서는 방송대 재학생·졸업생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다른 모든 학과에서는 방송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 비율이 높았다. 방송대 홈페이지 다음으로 정보를 많이 얻은 방법은 방송대 재학생·졸업생인 학과(문화창작콘텐츠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청소년교육학과)가 많은데, 정보과학과와 경영대학원은 이보다는 인터넷 정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학과별 방송대 대학원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방송대 홈페이지	8 47.1%	17 70.8%	6 54.5%	2 40.0%	7 87.5%	9 64.3%	5 50.0%	11 73.3%	6 46.2%	6 42.9%	21 80.77%
대학원 소개책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0%
방송대 재학생·졸업생	5 29.4%	2 8.3%	4 36.4%	1 20.0%	1 12.5%	4 28.6%	3 30.0%	2 13.3%	4 30.8%	7 50.0%	3 11.54%
방송대 교직원	1 5.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7.7%	0 0.0%	0 0.00%
가족 및 지인	1 5.9%	0 0.0%	1 9.1%	0 0.0%	0 0.0%	0 0.0%	0 0.0%	0 0.0%	1 7.7%	0 0.0%	1 3.85%
신문이나 잡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인터넷 정보	1 5.9%	3 12.5%	0 0.0%	1 20.0%	0 0.0%	1 7.1%	2 20.0%	2 13.3%	1 7.7%	1 7.1%	1 3.85%
방송 및 지하철 광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0%
기타	1 5.9%	2 8.3%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0%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방송대 홈페이지	11 61.1%	4 40.0%	7 41.2%	3 42.9%	8 42.1%	14 66.7%	11 50.0%	2 22.2%	26 63.4%	184 57.3%
대학원 소개책자	0 0.0%	0 0.0%	1 5.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방송대재학생·졸업생	1 5.6%	4 40.0%	6 35.3%	3 42.9%	6 31.6%	3 14.3%	8 36.4%	4 44.4%	4 9.8%	75 23.4%
방송대 교직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4.5%	0 0.0%	0 0.0%	3 0.9%
가족 및 지인	1 5.6%	1 10.0%	2 11.8%	0 0.0%	4 21.1%	2 9.5%	2 9.1%	1 11.1%	1 2.4%	18 5.6%
신문이나 잡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1 0.3%
인터넷 정보	4 22.2%	0 0.0%	1 5.9%	1 14.3%	1 5.3%	2 9.5%	0 0.0%	1 11.1%	9 22.0%	32 10.0%
방송 및 지하철 광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1 5.6%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7 2.2%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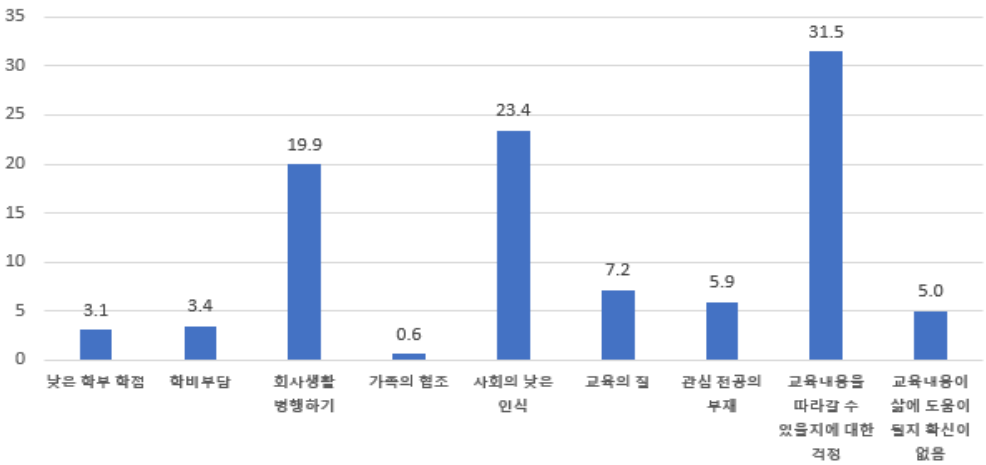
연령별로 대학원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방송대 홈페이지가 전체 응답의 71.4%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방송대 홈페이지, 방송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정보의 순으로 그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뿐만 아니라 40대와 50대에서도 인터넷 정보의 비율이 10% 이상 나타나, 대학원을 희망하는 성인들이 방송대 홈페이지와 방송대 관련 지인 추천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도 대학원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5> 연령별 방송대 대학원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방송대 홈페이지	10 71.4%	29 49.2%	80 58.4%	49 60.5%	16 53.3%	184 57.3%
대학원 소개책자	0 0.0%	0 0.0%	0 0.0%	1 1.2%	0 0.0%	1 0.3%
방송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	1 7.1%	18 30.5%	28 20.4%	19 23.5%	9 30.0%	75 23.4%
방송대 교직원	0 0.0%	2 3.4%	1 0.7%	0 0.0%	0 0.0%	3 0.9%
가족 및 지인	2 14.3%	4 6.8%	11 8.0%	1 1.2%	0 0.0%	18 5.6%
신문이나 잡지	0 0.0%	0 0.0%	0 0.0%	0 0.0%	1 3.3%	1 0.3%
인터넷 정보	1 7.1%	4 6.8%	14 10.2%	9 11.1%	4 13.3%	32 10.0%
방송 및 지하철 광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0 0.0%	2 3.4%	3 2.2%	2 2.5%	0 0.0%	7 2.2%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4) 대학원 진학의 장애 요인

방송대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31.5%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회의 낮은 인식이 23.4%로 나타났다. 회사생활 병행하기는 19.9, 교육의 질은 8.3%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사회의 낮은 인식와 회사생활 병행하기의 순위가 바뀌었다. 2021년 조사 결과에서는 회사생활 병행하기(23.9%)와 사회의 낮은 인식(18.8%) 순이었는데, 2023년 조사결과에서는 반대로 사회의 낮은 인식(23.4%)과 회사생활 병행하기(19.9%) 순이었다.



[그림 III-9] 진학 장애 요인

대학원 진학 장애요인을 학과에 따라 살펴보면, 학과에 따라 장애요인에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 직장인들이 많은 통계·데이터과학과에서는 대학원 진학의 장애요인으로 회사생활 병행하기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실용영어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사회의 낮은 인식이 가장 큰 대학원 진학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실용중국어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평생교육학과에서는

교육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대학원 진학 장애요인이었다.

<표 Ⅲ-16> 학과별 진학 장애 요인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아랍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낮은 학부 학점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2 20.0%	0 0.0%	0 0.0%	1 7.14%	2 7.7%
학비부담	1 5.9%	0 0.0%	1 9.1%	0 0.0%	0 0.0%	1 7.1%	0 0.0%	1 6.7%	0 0.0%	0 0.00%	1 3.8%
회사생활 병행하기	0 0.0%	6 25.0%	0 0.0%	0 0.0%	2 25.0%	2 14.3%	3 30.0%	3 20.0%	5 38.5%	4 28.57%	3 11.5%
가족의 협조	0 0.0%	0 0.0%	0 0.0%	0 0.0%	1 12.5%	0 0.0%	0 0.0%	0 0.0%	0 0.0%	1 7.14%	0 0.0%
사회의 낮은 인식	4 23.5%	9 37.5%	0 0.0%	1 20.0%	0 0.0%	4 28.6%	2 20.0%	6 40.0%	0 0.0%	2 14.29%	4 15.4%
교육의 질	4 23.5%	1 4.2%	1 9.1%	1 20.0%	1 12.5%	1 7.1%	0 0.0%	2 13.3%	0 0.0%	0 0.00%	1 3.8%
관심 전공의 부재	4 23.5%	1 4.2%	0 0.0%	1 20.0%	1 12.5%	1 7.1%	1 10.0%	0 0.0%	0 0.0%	0 0.00%	5 19.2%
교육내용에 대한 걱정	4 23.5%	6 25.0%	9 81.8%	1 20.0%	2 25.0%	4 28.6%	1 10.0%	3 20.0%	8 61.5%	5 35.71%	9 34.6%
삶에 도움될지 확신 부재	0 0.0%	1 4.2%	0 0.0%	0 0.0%	1 12.5%	1 7.1%	1 10.0%	0 0.0%	0 0.0%	1 7.14%	1 3.8%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낮은 학부 학점	0 0.0%	0 0.0%	1 5.9%	0 0.0%	2 10.5%	1 4.8%	0 0.0%	0 0.0%	0 0.0%	10 3.1%
학비부담	2 11.1%	0 0.0%	0 0.0%	0 0.0%	1 5.3%	0 0.0%	0 0.0%	0 0.0%	3 7.3%	11 3.4%
회사생활 병행하기	5 27.8%	4 40.0%	7 41.2%	1 14.3%	1 5.3%	5 23.8%	4 18.2%	2 22.2%	7 17.1%	64 19.9%
가족의 협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6%
사회의 낮은 인식	2 11.1%	1 10.0%	3 17.6%	4 57.1%	8 42.1%	3 14.3%	9 40.9%	5 55.6%	8 19.5%	75 23.4%
교육의 질	0 0.0%	0 0.0%	1 5.9%	0 0.0%	0 0.0%	2 9.5%	1 4.5%	0 0.0%	7 17.1%	23 7.2%
관심 전공의 부재	1 5.6%	0 0.0%	0 0.0%	0 0.0%	0 0.0%	2 9.5%	0 0.0%	0 0.0%	2 4.9%	19 5.9%

교육내용에 대한 걱정	6 33.3%	5 50.0%	3 17.6%	1 14.3%	7 36.8%	7 33.3%	8 36.4%	1 11.1%	11 26.8%	101 31.5%
삶에 도움될지 확신 부재	2 11.1%	0 0.0%	2 11.8%	1 14.3%	0 0.0%	1 4.8%	0 0.0%	1 11.1%	3 7.3%	16 5.0%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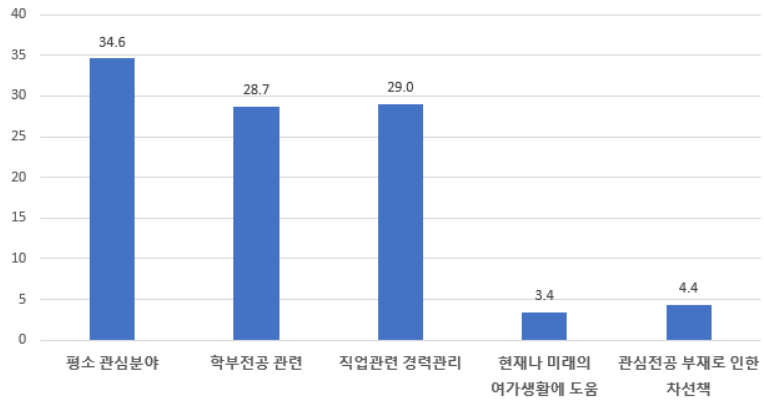
대학원 진학 장애 요인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회사생활 병행하기가 큰 장애 요인이었다. 사회의 낮은 인식에 대하여, 다른 연령대에서는 장애 요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60대에서는 그 비율이 낮았다.

<표 III-17> 연령별 진학 장애 요인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낮은 학부 학점	0 0.0%	1 1.7%	5 3.6%	3 3.7%	1 3.3%	10 3.1%
학비부담	0 0.0%	2 3.4%	6 4.4%	1 1.2%	2 6.7%	11 3.4%
회사생활 병행하기	3 21.4%	8 13.6%	30 21.9%	16 19.8%	7 23.3%	64 19.9%
가족의 협조	0 0.0%	1 1.7%	0 0.0%	1 1.2%	0 0.0%	2 0.6%
사회의 낮은 인식	3 21.4%	17 28.8%	37 27.0%	17 21.0%	1 3.3%	75 23.4%
교육의 질	1 7.1%	3 5.1%	10 7.3%	5 6.2%	4 13.3%	23 7.2%
관심 전공의 부재	0 0.0%	4 6.8%	10 7.3%	2 2.5%	3 10.0%	19 5.9%
교육내용에 대한 걱정	5 35.7%	18 30.5%	35 25.5%	32 39.5%	11 36.7%	101 31.5%
삶에 도움될지 확신부재	2 14.3%	5 8.5%	4 2.9%	4 4.9%	1 3.3%	16 5.0%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5) 학과 선택 요인

방송대 대학원의 학과를 선택하게 된 요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학과 선택 요인 중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항목은 평소 관심분야였고 전체 응답의 34.6%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직업관련 경력관리(29.0%)와 학부전공 관련(28.7%)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 요인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직업관련 경력관리와 학부전공 관련이 모두 31.8%를 차지하여 가장 큰 선택 요인이었던 반면, 2023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평소 관심분야가 직업관련 경력관리와 학부전공 관련 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Ⅲ-10] 학과 선택 요인

학과별로 학과 선택 요인은 대체로 평소 관심분야, 학부전공 관련, 직업관련 경력관리 중 하나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지만 어느 요인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가는 학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평소 관심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학과는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이러닝학과, 청소년교육학과였다. 학부전공 관련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학과는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언어권문화학과, 농업생명과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였다. 일본언어문화학과와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학과 선택 요인으로 평소 관심분야와 학부전공 관련이 동일한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전공 관련과 직업관련 경력관리가 동일한 비율로 가장

높게 학과 선택 요인인 학과도 있었는데, 환경보건시스템학과였다. 직업관련 경력관리가 학과 선택 요인으로 꼽힌 학과에는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생활과학과, 정보과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대학원이 있었다.

<표 III-18> 학과별 학과 선택 요인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평소 관심분야	8 47.1%	10 41.7%	4 36.4%	1 20.0%	4 50.0%	7 50.0%	5 50.0%	4 26.7%	6 46.2%	4 28.6%	6 23.1%
학부전공 관련	5 29.4%	2 8.3%	6 54.5%	2 40.0%	4 50.0%	5 35.7%	1 10.0%	5 33.3%	6 46.2%	9 64.3%	5 19.2%
직업관련 경력관리	1 5.9%	6 25.0%	1 9.1%	1 20.0%	0 0.0%	1 7.1%	3 30.0%	6 40.0%	1 7.7%	1 7.1%	10 38.5%
현재미래 여가생활 도움	0 0.0%	5 20.8%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7.7%
관심전공 부재 차선책	3 17.6%	1 4.2%	0 0.0%	0 0.0%	0 0.0%	1 7.1%	1 10.0%	0 0.0%	0 0.0%	0 0.0%	3 11.5%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평소 관심분야	2 11.1%	8 80.0%	6 35.3%	1 14.3%	1 5.3%	6 28.6%	10 45.5%	1 11.1%	17 41.5%	111 34.6%
학부전공 관련	5 27.8%	0 0.0%	7 41.2%	3 42.9%	12 63.2%	3 14.3%	3 13.6%	6 66.7%	3 7.3%	92 28.7%
직업관련 경력관리	11 61.1%	1 10.0%	4 23.5%	3 42.9%	6 31.6%	9 42.9%	8 36.4%	2 22.2%	18 43.9%	93 29.0%
현재미래 여가생활 도움	0 0.0%	0 0.0%	0 0.0%	0 0.0%	0 0.0%	1 4.8%	1 4.5%	0 0.0%	1 2.4%	11 3.4%
관심전공 부재 차선책	0 0.0%	1 10.0%	0 0.0%	0 0.0%	0 0.0%	2 9.5%	0 0.0%	0 0.0%	2 4.9%	14 4.4%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연령에 따른 학과 선택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라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평소 관심분야와 학부전공 관련이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한 학과 선택 요인으로 응답되었다. 직업관련 경력관리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원 진학 동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서 학과 선택 동기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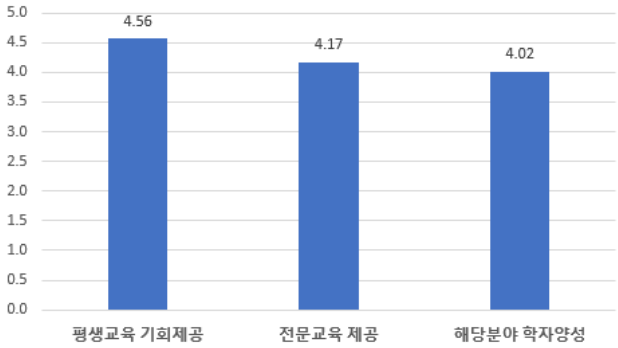
<표 Ⅲ-19> 연령별 학과 선택 요인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평소 관심분야	4 28.6%	14 23.7%	53 38.7%	29 35.8%	11 36.7%	111 34.6%
학부전공 관련	4 28.6%	18 30.5%	34 24.8%	28 34.6%	8 26.7%	92 28.7%
직업관련 경력관리	6 42.9%	24 40.7%	40 29.2%	18 22.2%	5 16.7%	93 29.0%
현재미래 여가생활 도움	0 0.0%	2 3.4%	3 2.2%	2 2.5%	4 13.3%	11 3.4%
관심전공 부재 차선책	0 0.0%	1 1.7%	7 5.1%	4 4.9%	2 6.7%	14 4.4%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6) 방송대 대학원의 목표에 대한 동의

방송대 대학원의 목표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생교육기회 제공, 전문교육 제공, 해당분야 학자양성의 세 가지로 나누어 5점 척도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각 목표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생교육기회 제공(4.56)이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고 다음으로 전문교육 제공(4.17), 해당분야 학자양성(4.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대 대학원 목표로 제시된 세 가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기존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항목이다. 평생교육 기회제공과 전문교육 제공은 지속적으로 4점을 넘는 동의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분야 학자양성에 대한 목표 동의 정도는 앞선 두 가지보다는 낮은 편이나 그 동의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 2011년에 3.39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왔고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4.0을 넘었다.



[그림 III-11] 방송대 대학원 목표 동의 정도

학과별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경영대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과가 대학원 목표로 평생교육 기회제공에 대해 가장 동의하는 정도가 강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평생교육 기회제공, 전문교육 제공, 해당분야 학자 양성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나타났으나, 일부 학과(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에서는 해당분야 학자양성이 전문교육 제공보다 대학원 목표로서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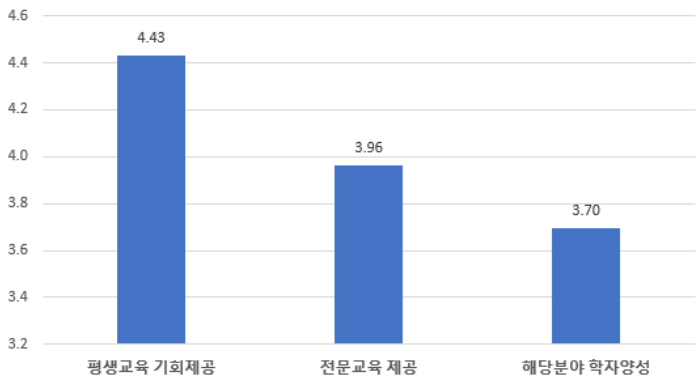
<표 III-20> 학과별 방송대 대학원 목표 동의 정도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평생교육 기회제공	4.65	4.58	4.55	4.80	4.75	4.71	4.60	4.67	4.54	4.64	4.62
전문교육 제공	3.94	4.00	4.27	4.40	3.38	4.00	4.30	4.07	4.23	4.29	4.27
해당분야 학자양성	3.71	3.71	4.36	4.60	3.50	3.93	4.00	3.73	4.00	3.79	4.08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평생교육 기회제공	4.61	4.70	4.71	4.43	4.37	4.86	4.68	4.56	4.07	4.56
전문교육 제공	4.11	4.30	4.29	4.14	4.21	4.38	4.59	4.56	3.88	4.17
해당분야 학자양성	3.78	3.90	4.00	3.71	4.05	4.24	4.32	4.56	4.22	4.02

7) 방송대 대학원의 목표에 대한 구현 정도

앞서 살펴본 내용은 방송대 대학원의 세 가지 목표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세 가지 목표가 얼마나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은 응답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동의하는 정도와 구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목표 구현 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도 목표 동의 정도와 마찬가지로 5점 척도 문항으로 하여 양자 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표 구현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평생교육 기회제공(4.43), 전문교육 제공(3.96), 해당분야 학자양성(3.70)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설문조사 결과는 평생교육 기회제공(4.53), 전문교육 제공(4.01), 해당분야 학자양성(3.68)이었는데, 2021년 대비 2023년에 모든 목표 영역에서 구현 정도의 값이 감소하였다.



[그림 Ⅲ-12] 방송대 대학원 목표 구현 정도

또한 앞서 살펴본 방송대 대학원 목표 동의 정도와 비교해보면, 평생교육기회 제공에 대해서는 구현 정도는 4.43으로 동의 정도가 4.56였던 것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났다. 전문교육 제공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의 응답 평균이 4.17였으나, 구현 정도는 3.96으로 나타나 동의 정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해당분야 학자양성과 관련된 응답 역시 동의 정도의 응답 평균이 4.02였으나, 구현 정도에서는 3.70로 낮아졌다. 목표 동의

정도와 구현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해당분야 학자양성이었는데, 그 차이가 -0.28점이었다. 이는 평생교육 기회와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의 학자를 양성하는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정도에 비하여 실제 구현에 대한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과별로 대학원 목표 구현 정도를 살펴보면, 일부 학과 어문계열 학과들과 경영대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평생교육기회 제공, 전문교육 제공, 해당분야 학자양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목표구현 정도에 대하여, 실용중국어학과에서는 평생교육 기회제공, 해당분야 학자양성, 전문교육 제공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경영대학원에서는 해당분야 학자양성, 평생교육 기회제공, 전문교육 제공의 순으로 나타나 타 학과와 차이를 보였다.

<표 III-21> 학과별 방송대 대학원 목표 구현 정도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평생교육 기회제공	4.71	4.46	4.36	4.60	4.50	4.64	4.40	4.67	4.62	4.36	4.58
전문교육 제공	3.94	3.71	3.82	4.20	3.63	3.86	4.30	4.00	4.31	4.07	4.04
해당분야 학자양성	3.41	3.33	4.00	4.20	3.25	3.36	4.00	3.40	3.92	3.71	3.73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평생교육 기회제공	4.50	4.70	4.53	4.29	4.32	4.76	4.73	4.22	3.68	4.43
전문교육 제공	3.89	4.20	4.12	3.57	4.05	4.24	4.27	4.22	3.51	3.96
해당분야 학자양성	3.44	3.70	3.76	3.29	3.84	4.05	4.00	4.00	3.71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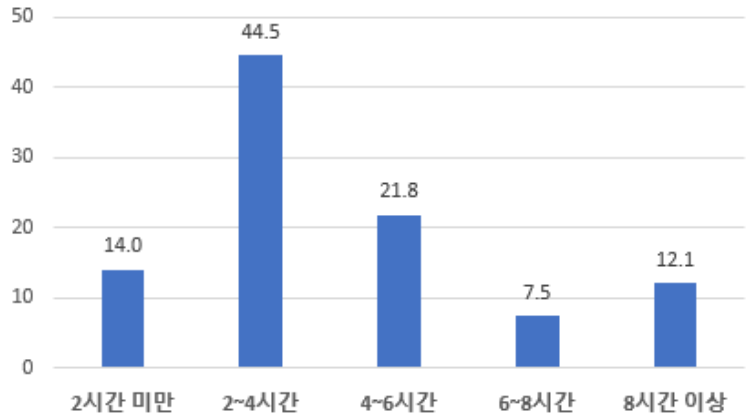
IV. 학업 수행 과정

제 Ⅳ장에서는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의 학업수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학습태도 및 요구와 관련하여 주당 학습시간, 강의 수강 시간대, 수강 장소, 선호 학습유형, 선호 학습 방법, 선호 매체 등을 다루었고 이후 소모임/스터디와 관련하여 참여 유무, 참여 목적 등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졸업논문과 관련하여 논문 작성 의사, 논문 작성 이유, 대체 수업 의사, 논문 작성의 어려움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1. 학습태도 및 요구

1) 주당 학습 시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의 주당 학습 시간을 분석한 결과, 2~4시간이라고 답한 경우가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6시간 21.8%, 2시간 미만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서도 2~4시간이라고 답한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6시간으로 21.0%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림 Ⅳ-1] 주당 평균 학습 시간(웹 강의 시청 시간 제외)

학과별 주당 학습 시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2~4시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지만 실용영어학과(37.5%)에서는 6~8시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실용중국어학과에서는 4~6시간, 6~8시간, 8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비율이 27.3%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Ⅳ-1> 학과별 주당 평균 학습 시간(웹 강의 시청 시간 제외)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2시간 미만	2 11.8%	2 8.3%	0 0.0%	2 40.0%	0 0.0%	1 7.1%	0 0.0%	4 26.7%	2 15.4%	4 28.6%	3 11.54%
2~4시간	12 70.6%	2 8.3%	2 18.2%	2 40.0%	5 62.5%	6 42.9%	6 60.0%	6 40.0%	5 38.5%	6 42.9%	11 42.31%
4~6시간	2 11.8%	9 37.5%	3 27.3%	1 20.0%	1 12.5%	1 7.1%	0 0.0%	4 26.7%	4 30.8%	3 21.4%	5 19.23%
6~8시간	1 5.9%	3 12.5%	3 27.3%	0 0.0%	0 0.0%	2 14.3%	2 20.0%	1 6.7%	0 0.0%	0 0.0%	3 11.54%
8시간 이상	0 0.0%	8 33.3%	3 27.3%	0 0.0%	2 25.0%	4 28.6%	2 20.0%	0 0.0%	2 15.4%	1 7.1%	4 15.38%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2시간 미만	3 16.7%	2 20.0%	1 5.9%	3 42.9%	2 10.5%	3 14.3%	0 0.0%	1 11.1%	10 24.4%	45 14.0%
2~4시간	9 50.0%	5 50.0%	10 58.8%	2 28.6%	11 57.9%	8 38.1%	9 40.9%	6 66.7%	20 48.8%	143 44.5%
4~6시간	2 11.1%	2 20.0%	4 23.5%	2 28.6%	5 26.3%	7 33.3%	8 36.4%	2 22.2%	5 12.2%	70 21.8%
6~8시간	0 0.0%	0 0.0%	1 5.9%	0 0.0%	1 5.3%	2 9.5%	2 9.1%	0 0.0%	3 7.3%	24 7.5%
8시간 이상	4 22.2%	1 10.0%	1 5.9%	0 0.0%	0 0.0%	1 4.8%	3 13.6%	0 0.0%	3 7.3%	39 12.1%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성별로 학습 시간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는데, 2~4시간과 4~6시간에서는 여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2시간 미만과 6~8시간와 8시간 이상에서는 남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표 Ⅳ-2> 성별 주당 평균 학습 시간(웹 강의 시청 시간 제외)

구분	남	여	계
2시간 미만	27 18.8%	18 10.2%	45 14.0%
2~4시간	58 40.3%	85 48.0%	143 44.5%
4~6시간	24 16.7%	46 26.0%	70 21.8%
6~8시간	14 9.7%	10 5.6%	24 7.5%
8시간 이상	21 14.6%	18 10.2%	39 12.1%
계	144 100.0%	177 100.0%	3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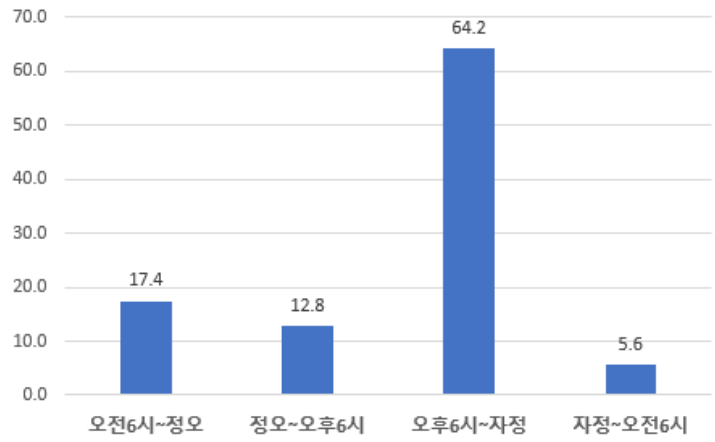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2~4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가 2~4시간 공부한다는 비율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와 50대에서는 4~6시간 공부하는 비율이 28.6%와 27.2%로 다른 연령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Ⅳ-3> 연령별 주당 평균 학습 시간(웹 강의 시청 시간 제외)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2시간 미만	2 14.3%	9 15.3%	19 13.9%	10 12.3%	5 16.7%	45 14.0%
2~4시간	5 35.7%	25 42.4%	71 51.8%	34 42.0%	8 26.7%	143 44.5%
4~6시간	4 28.6%	13 22.0%	25 18.2%	22 27.2%	6 20.0%	70 21.8%
6~8시간	0 0.0%	5 8.5%	5 3.6%	11 13.6%	3 10.0%	24 7.5%
8시간 이상	3 21.4%	7 11.9%	17 12.4%	4 4.9%	8 26.7%	39 12.1%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2) 강의 수강 시간대

강의를 주로 수강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오후6시~자정으로 답한 응답자들이 64.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오전6시~정오가 17.4%, 정오~오후6시가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 강의 수강 시간대

학과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과에서 오후6시-자정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오후6시~자정 이외의 시간대에 대하여는, 오전6시~정오 시간대에는 일본어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생활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에서 수강하는 비율이 높았다. 영상문화콘텐츠학과, 간호학과에서는 정오~오후6시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이 강의 수강 시간대에 있어 학과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Ⅳ-4> 학과별 강의 수강 시간대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오전6시~정오	3 17.6%	3 12.5%	1 9.1%	0 0.0%	2 25.0%	2 14.3%	1 10.0%	1 6.7%	4 30.8%	2 14.3%	6 23.1%
정오~오후6시	2 11.8%	6 25.0%	1 9.1%	2 40.0%	1 12.5%	0 0.0%	0 0.0%	5 33.3%	1 7.7%	2 14.3%	3 11.5%
오후6시~자정	11 64.7%	12 50.0%	8 72.7%	2 40.0%	5 62.5%	12 85.7%	9 90.0%	9 60.0%	8 61.5%	10 71.4%	15 57.7%
자정~오전6시	1 5.9%	3 12.5%	1 9.1%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7.7%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오전6시~정오	3 16.7%	2 20.0%	4 23.5%	3 42.9%	2 10.5%	5 23.8%	4 18.2%	1 11.1%	7 17.1%	56 17.4%
정오~오후6시	0 0.0%	1 10.0%	1 5.9%	0 0.0%	5 26.3%	1 4.8%	3 13.6%	0 0.0%	7 17.1%	41 12.8%
오후6시~자정	14 77.8%	7 70.0%	12 70.6%	4 57.1%	12 63.2%	12 57.1%	15 68.2%	7 77.8%	22 53.7%	206 64.2%
자정~오전6시	1 5.6%	0 0.0%	0 0.0%	0 0.0%	0 0.0%	3 14.3%	0 0.0%	1 11.1%	5 12.2%	18 5.6%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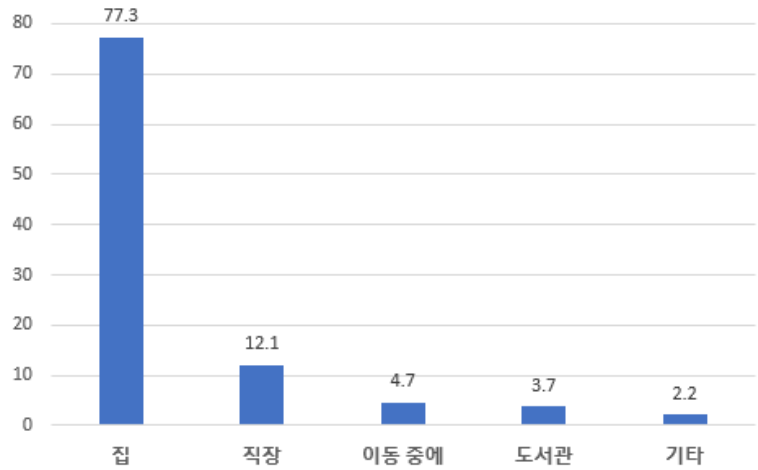
연령집단별로 강의 수강 시간대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오후6시~자정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강의를 많이 수강하는 시간 대는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른 면이 있었다. 20대와 30대는 정도~오후6시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지만, 40대, 50대, 60대 집단에서는 오전6시~정오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고 그 비율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졌다.

<표 Ⅳ-5> 연령별 강의 수강 시간대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오전6시~정오	1 7.1%	5 8.5%	23 16.8%	19 23.5%	8 26.7%	56 17.4%
정오~오후6시	3 21.4%	6 10.2%	17 12.4%	12 14.8%	3 10.0%	41 12.8%
오후6시~자정	10 71.4%	43 72.9%	87 63.5%	49 60.5%	17 56.7%	206 64.2%
자정~오전6시	0 0.0%	5 8.5%	10 7.3%	1 1.2%	2 6.7%	18 5.6%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3) 웹강의 수강 장소

웹강의를 듣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7.3%가 웹 강의를 주로 집에서 수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직장 12.4%, 이동 중에가 4.7%로 나타났다.



[그림 Ⅳ-3] 웹강의 학습 장소

학과별로 웹강의 수강장소를 살펴보면, 모든 학과에서 집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이 직장, 이동 중에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웹강의를 수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행정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가 해당하였다.

<표 Ⅳ-6> 학과별 웹강의 학습 장소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집	13 76.5%	20 83.3%	9 81.8%	5 100.0%	8 100.0%	12 85.7%	6 60.0%	14 93.3%	9 69.2%	9 64.3%	21 80.8%
직장	1 5.9%	2 8.3%	0 0.0%	0 0.0%	0 0.0%	1 7.1%	2 20.0%	1 6.7%	1 7.7%	4 28.6%	2 7.7%
이동 중에	2 11.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7.7%	0 0.0%	1 3.8%
도서관	0 0.0%	2 8.3%	1 9.1%	0 0.0%	0 0.0%	1 7.1%	1 10.0%	0 0.0%	2 15.4%	0 0.0%	1 3.8%
기타	1 5.9%	0 0.0%	1 9.1%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1 7.1%	1 3.8%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집	12 66.7%	5 50.0%	13 76.5%	4 57.1%	13 68.4%	18 85.7%	18 81.8%	7 77.8%	32 78.0%	248 77.3%
직장	4 22.2%	4 40.0%	2 11.8%	2 28.6%	3 15.8%	1 4.8%	2 9.1%	1 11.1%	6 14.6%	39 12.1%
이동 중에	2 11.1%	1 10.0%	0 0.0%	0 0.0%	2 10.5%	1 4.8%	2 9.1%	0 0.0%	3 7.3%	15 4.7%
도서관	0 0.0%	0 0.0%	1 5.9%	0 0.0%	1 5.3%	1 4.8%	0 0.0%	1 11.1%	0 0.0%	12 3.7%
기타	0 0.0%	0 0.0%	1 5.9%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7 2.2%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성별에 따른 강의 학습 장소의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장에서 수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더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장소 중에서는 집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성이 상대적으로 집에서 수강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Ⅳ-7> 성별 웹강의 학습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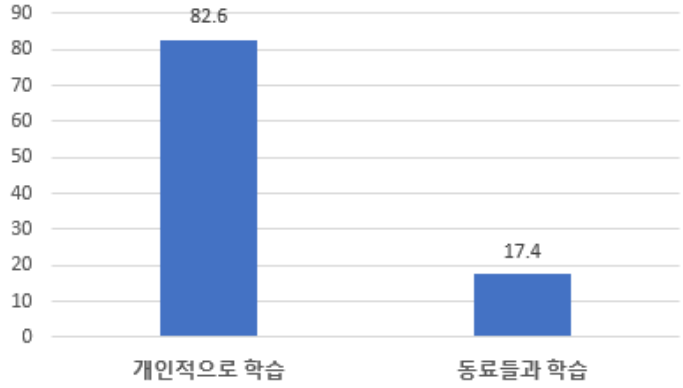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계
집	102 70.8%	146 82.5%	248 77.3%
직장	23 16.0%	16 9.0%	39 12.1%
이동 중에	9 6.3%	6 3.4%	15 4.7%
방송대 도서관	6 4.2%	6 3.4%	12 3.7%
기타	4 2.8%	3 1.7%	7 2.2%
계	144 100.0%	177 100.0%	321 100.0%

4) 선호하는 학습 유형

선호하는 학습 유형은 개인적으로 학습하기와 동료들과 함께 학습하기,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디지털 학습자료를 모니터로 읽기와 인쇄 출력해서 읽기,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① 개인적으로 학습하기와 동료들과 함께 학습하기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동료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 사이에서 선호하는 수업방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개인적으로 학습에 대한 선호가 82.6%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문항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2017년 조사에서는 81.3%, 2019년 조사에서는 81.4%, 2021년 조사에서는 84.1%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원격대학으로서 방송대 대학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4] 선호 학습방법

학과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사회복지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에서 개인적으로 학습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동료들과 학습에 대한 선호하여 그 비율이 53.8%를 차지하였다.

<표 Ⅳ-8> 학과별 선호 학습방법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일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개인적으로 학습	17 100.0%	19 79.2%	8 72.7%	4 80.0%	6 75.0%	11 78.6%	9 90.0%	13 86.7%	6 46.2%	11 78.6%	22 84.6%
동료들과 학습	0 0.0%	5 20.8%	3 27.3%	1 20.0%	2 25.0%	3 21.4%	1 10.0%	2 13.3%	7 53.8%	3 21.4%	4 15.4%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개인적으로 학습	17 94.4%	8 80.0%	14 82.4%	6 85.7%	18 94.7%	17 81.0%	17 77.3%	9 100.0%	33 80.5%	265 82.6%
동료들과 학습	1 5.6%	2 20.0%	3 17.6%	1 14.3%	1 5.3%	4 19.0%	5 22.7%	0 0.0%	8 19.5%	56 17.4%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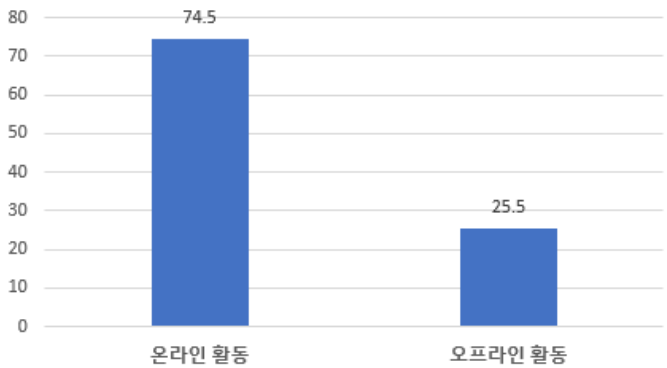
연령별로 선호 학습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개인적으로 학습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지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났다. 30대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료들과 학습에 대한 선호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에 따른 선호 학습방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9> 연령별 선호 학습방법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개인적으로 학습	11 78.6%	52 88.1%	112 81.8%	68 84.0%	22 73.3%	265 82.6%
동료들과 학습	3 21.4%	7 11.9%	25 18.2%	13 16.0%	8 26.7%	56 17.4%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②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중 더 선호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74.5%의 학생들이 온라인 활동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2017년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 활동에 대한 선호가 68.2%, 2019년 조사에서는 71.0%, 2021년 조사에서는 70.4%였으며, 이를 통해 오프라인 활동보다 온라인 활동에 대한 선호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5] 선호 학습활동

학과별로 살펴보아도 모든 학과에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선호가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다만 학과별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청소년교육학과, 경영대학원에서는 오프라인 선호도 30% 이상이었다. 이는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활동 선호가 많지만, 학과별에 따라서는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0> 학과별 선호 학습활동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온라인 활동	14 82.4%	23 95.8%	9 81.8%	3 60.0%	5 62.5%	11 78.6%	8 80.0%	11 73.3%	8 61.5%	9 64.3%	16 61.5%
오프라인 활동	3 17.6%	1 4.2%	2 18.2%	2 40.0%	3 37.5%	3 21.4%	2 20.0%	4 26.7%	5 38.5%	5 35.7%	10 38.5%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온라인 활동	14 77.8%	10 100.0%	13 76.5%	4 57.1%	16 84.2%	17 81.0%	13 59.1%	7 77.8%	28 68.3%	239 74.5%
오프라인 활동	4 22.2%	0 0.0%	4 23.5%	3 42.9%	3 15.8%	4 19.0%	9 40.9%	2 22.2%	13 31.7%	82 25.5%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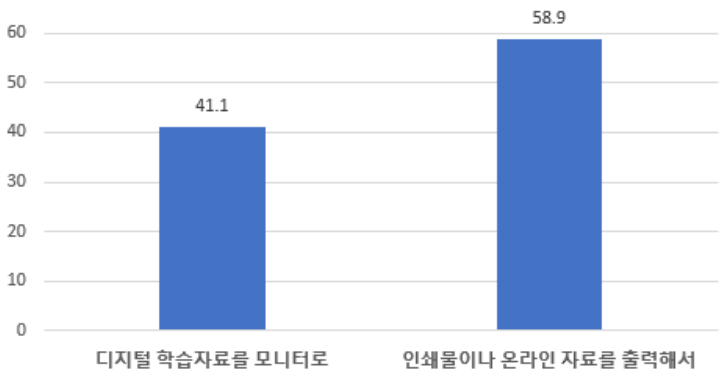
연령에 따른 선호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았지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오프라인 활동에 대해 선호하는 학생들의 분포가 증가하였고, 60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선호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령에 따른 선호 학습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1> 연령별 선호 학습활동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온라인 활동	11 78.6%	49 83.1%	99 72.3%	65 80.2%	15 50.0%	239 74.5%
오프라인 활동	3 21.4%	10 16.9%	38 27.7%	16 19.8%	15 50.0%	82 25.5%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③ 디지털 학습자료를 모니터로 읽기와 인쇄, 출력해서 읽기

디지털 학습자료를 모니터로 읽는 학습방법과 인쇄, 출력해서 읽는 학습방법 중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58.7%의 학생들이 인쇄 및 출력물을 읽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인쇄 및 출력물에 대한 선호가 2017년 실태조사에서는 64.1%, 2019년 실태조사에서는 69.5%, 2021년 실태조사에서는 70.7%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방송대 대학원 학습자의 인쇄 및 출력물에 선호 정도는 낮아졌다.



[그림 Ⅳ-6] 선호 학습자료 읽기 방법

학과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정보과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간

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인쇄 및 출력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부 학과에서는 전공 특성이 학습자료에 대한 선호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선호 학습자료 읽기 방법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인쇄물이나 온라인 자료 출력물에 대한 선호가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그 반대 경향이 나타났다.

.

<표 Ⅳ-12> 학과별 선호 학습자료 읽기 방법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디지털 학습자료를 모니터로	6 35.3%	12 50.0%	5 45.5%	3 60.0%	5 62.5%	5 35.7%	3 30.0%	7 46.7%	2 15.4%	6 42.9%	2 7.7%
인쇄물이나 온라인 자료를 출력해서	11 64.7%	12 50.0%	6 54.5%	2 40.0%	3 37.5%	9 64.3%	7 70.0%	8 53.3%	11 84.6%	8 57.1%	24 92.3%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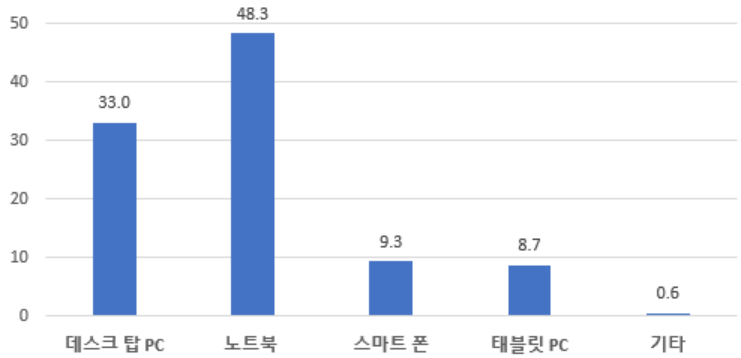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디지털 학습자료를 모니터로	10 55.6%	3 30.0%	10 58.8%	2 28.6%	10 52.6%	11 52.4%	8 36.4%	3 33.3%	19 46.3%	132 41.1%
인쇄물이나 온라인 자료를 출력해서	8 44.4%	7 70.0%	7 41.2%	5 71.4%	9 47.4%	10 47.6%	14 63.6%	6 66.7%	22 53.7%	189 58.9%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표 Ⅳ-13> 연령별 선호 학습자료 읽기 방법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디지털 학습자료를 모니터로	7 50.0%	30 50.8%	54 39.4%	30 37.0%	11 36.7%	132 41.1%
인쇄물이나 온라인 자료를 출력서	7 50.0%	29 49.2%	83 60.6%	51 63.0%	19 63.3%	189 58.9%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5) 웹강의 수강 시 주요 활용매체

웹강의 수강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노트북이 48.3%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데스크탑 PC 33.0%, 스마트폰 9.3%, 태블릿 PC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7] 웹강의시 주요 활용 매체

학과별 주요 활용 매체를 살펴보면 모든 학과에서 데스크탑 PC와 노트북이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농업생명과학과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일본어문화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정보과학과, 경영대학원에서는 데스크탑 PC이 주요 활용 매체였다. 이 외에 다른 모든 학과에서는 노트북이 웹강의 수강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매체였다.

<표 Ⅳ-14> 학과별 웹강의시 주요 활용 매체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데스크탑 PC	6 35.3%	7 29.2%	3 27.3%	1 20.0%	5 62.5%	5 35.7%	5 50.0%	8 53.3%	1 7.7%	4 28.6%	8 30.8%
노트북	9 52.9%	15 62.5%	6 54.5%	2 40.0%	3 37.5%	6 42.9%	5 50.0%	5 33.3%	9 69.2%	4 28.6%	14 53.8%
스마트폰	1 5.9%	1 4.2%	2 18.2%	1 20.0%	0 0.0%	1 7.1%	0 0.0%	0 0.0%	3 23.1%	5 35.7%	2 7.7%

태블릿 PC	1 5.9%	1 4.2%	0 0.0%	1 20.0%	0 0.0%	2 14.3%	0 0.0%	1 6.7%	0 0.0%	1 7.1%	2 7.7%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6.7%	0 0.0%	0 0.0%	0 0.0%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데스크 탑 PC	7 38.9%	2 20.0%	5 29.4%	1 14.3%	5 26.3%	6 28.6%	6 27.3%	4 44.4%	17 41.5%	106 33.0%
노트북	6 33.3%	6 60.0%	8 47.1%	5 71.4%	10 52.6%	12 57.1%	12 54.5%	5 55.6%	13 31.7%	155 48.3%
스마트 폰	2 11.1%	0 0.0%	1 5.9%	1 14.3%	3 15.8%	1 4.8%	1 4.5%	0 0.0%	5 12.2%	30 9.3%
태블릿 PC	3 16.7%	2 20.0%	3 17.6%	0 0.0%	1 5.3%	1 4.8%	3 13.6%	0 0.0%	6 14.6%	28 8.7%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2 0.6%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2. 소모임 및 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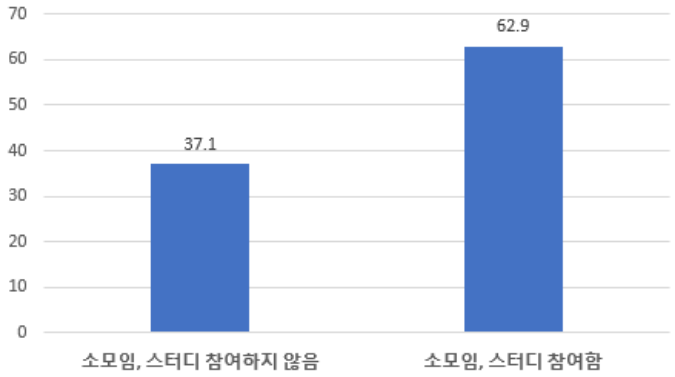
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소모임과 스터디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소모임이나 스터디 참여 여부와 참여 목적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여부

방송대 대학원생이 소모임/스터디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소모임이나 스터디에 참여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2.9%로 나타났다. 2019년 설문조사에서 70.1%, 2021년 설문조사에서 68.8%가 소모임/스터디에 참여한다고 했던 것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그래도 여전히 학생들의 2/3 정도는 소모임이나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모임이나 스터디 참여에 학과별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복지학과는 모든 설문 응답자들이 소모임/스터디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에서는 소모임/스터디에 경험한 비율이 절반 이하였다. 학과별 소모임이나 스터디 참여가 가장 적은 학과는 문예창작콘텐츠학과였고, 가장 많은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였다. 사회복지학과 외에 평생교육학과에서도 소모임이나 스터디 참여 경험을 가진 응답자가 90.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Ⅳ-8]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유무

<표 Ⅳ-15> 학과별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경험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없다	11 64.7%	13 54.2%	3 27.3%	3 60.0%	2 25.0%	8 57.1%	3 30.0%	8 53.3%	0 0.0%	4 28.6%	9 34.6%
있다	6 35.3%	11 45.8%	8 72.7%	2 40.0%	6 75.0%	6 42.9%	7 70.0%	7 46.7%	13 100.0%	10 71.4%	17 65.4%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없다	8 44.4%	2 20.0%	9 52.9%	4 57.1%	4 21.1%	2 9.5%	5 22.7%	2 22.2%	19 46.3%	119 37.1%
있다	10 55.6%	8 80.0%	8 47.1%	3 42.9%	15 78.9%	19 90.5%	17 77.3%	7 77.8%	22 53.7%	202 62.9%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소모임이나 스터디 참여 경험이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의 소모임/스터디 참여율이 참여하지 않는 비율보다 낮았으며, 30대부터는 참여율이 참여하지 않는 비율보다 높아졌다.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 소모임/스터디 참여 비율도 상승하여 60대에서는 소모임/스터디 참여율이 73.3%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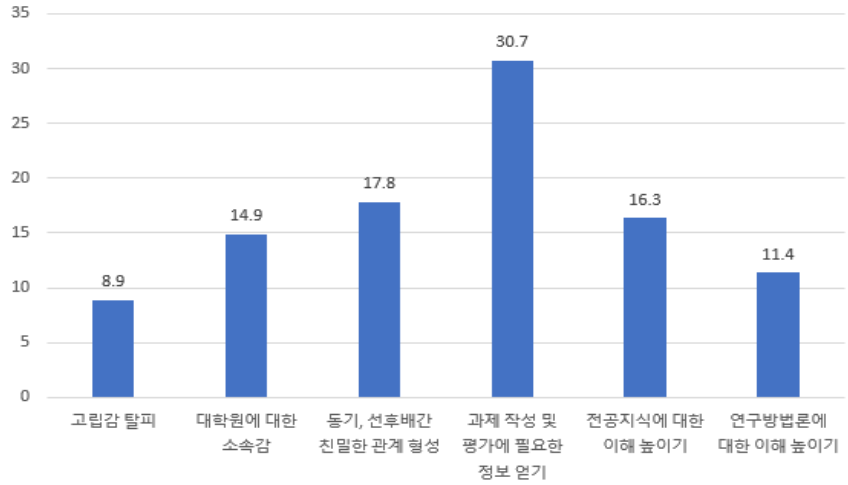
<표 Ⅳ-16> 연령별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경험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없다	8 57.1%	24 40.7%	52 38.0%	27 33.3%	8 26.7%	119 37.1%
있다	6 42.9%	35 59.3%	85 62.0%	54 66.7%	22 73.3%	202 62.9%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2) 소모임 및 스터디의 참여 목적

소모임이나 스터디에 참여한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생들마다 참여 목적이 비교적 다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참여목적은 과제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얻기로 30.7%였고 다음으로 동기·선후배 간 친밀한 관계형성이 17.8%,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 높이기가 16.3%, 대학원에 대한 소속감이 14.9%,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 높이기 11.4%, 고립감 탈피 8.9%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교하여 보면, 대학원에 대한 소속감과 고립감 탈피가 소모임/스터디 참여 목적에서 순위가 아래로 떨어졌다.

학과별로도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목적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제 작성 및 평가에 도움 항목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학과는 실용영어학과, 법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경영대학원이었다. 문예창작콘텐츠학과에서는 전공지식 이해 도움을 위한 소모임/스터디 참여가 가장 많았고, 영상문화콘텐츠학과에서는 연구방법론 이해 도움을 위한 소모임/스터디 참여가 가장 많았다. 반면 통계·데이터과학과에서는 고립감 탈피의 비중이 높았으며, 간호학과에서는 대학원에 대한 소속감의 비중이 높았다.



[그림 Ⅳ-9]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목적

<표 Ⅳ-17> 학과별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목적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고립감 탈피	1 16.7%	3 27.3%	1 12.5%	0 0.0%	0 0.0%	1 16.7%	0 0.0%	0 0.0%	1 7.7%	0 0.0%	0 0.0%
대학원에 대한 소속감	1 16.7%	2 18.2%	1 12.5%	0 0.0%	1 16.7%	1 16.7%	2 28.6%	0 0.0%	1 7.7%	2 20.0%	1 5.9%
친밀한 관계 형성	0 0.0%	1 9.1%	2 25.0%	1 50.0%	2 33.3%	0 0.0%	2 28.6%	1 14.3%	1 7.7%	1 10.0%	4 23.5%
과제작성 및 평가에 도움	1 16.7%	4 36.4%	1 12.5%	0 0.0%	0 0.0%	2 33.3%	0 0.0%	2 28.6%	3 23.1%	4 40.0%	8 47.1%
전공지식 이해 도움	3 50.0%	1 9.1%	1 12.5%	1 50.0%	2 33.3%	0 0.0%	1 14.3%	1 14.3%	5 38.5%	1 10.0%	3 17.6%
연구방법론 이해 도움	0 0.0%	0 0.0%	2 25.0%	0 0.0%	1 16.7%	2 33.3%	2 28.6%	3 42.9%	2 15.4%	2 20.0%	1 5.9%
계	6 100.0%	11 100.0%	8 100.0%	2 100.0%	6 100.0%	6 100.0%	7 100.0%	7 100.0%	13 100.0%	10 100.0%	17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고립감 탈피	2 20.0%	0 0.0%	4 50.0%	0 0.0%	1 6.7%	2 10.5%	1 5.9%	0 0.0%	1 4.5%	18 8.9%

대학원에 대한 소속감	1 10.0%	1 12.5%	0 0.0%	0 0.0%	6 40.0%	3 15.8%	3 17.6%	2 28.6%	2 9.1%	30 14.9%
친밀한 관계 형성	1 10.0%	2 25.0%	0 0.0%	0 0.0%	2 13.3%	6 31.6%	3 17.6%	2 28.6%	5 22.7%	36 17.8%
과제작성 및 평가에 도움	6 60.0%	3 37.5%	2 25.0%	2 66.7%	5 33.3%	4 21.1%	4 23.5%	2 28.6%	9 40.9%	62 30.7%
전공지식 이해 도움	0 0.0%	0 0.0%	2 25.0%	0 0.0%	1 6.7%	3 15.8%	4 23.5%	1 14.3%	3 13.6%	33 16.3%
연구방법론 이해 도움	0 0.0%	2 25.0%	0 0.0%	1 33.3%	0 0.0%	1 5.3%	2 11.8%	0 0.0%	2 9.1%	23 11.4%
계	10 100.0%	8 100.0%	8 100.0%	3 100.0%	15 100.0%	19 100.0%	17 100.0%	7 100.0%	22 100.0%	202 100.0%

연령대에 따른 참여목적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과제작성 및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다른 이유에 대한 분포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친밀한 관계 형성에도 관심을 나타내었고, 30대와 40대에서는 대학원에 대한 소속감과 전공지식 이해 도움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0대와 60대에서는 친밀한 관계 형성의 비율이 높아져서 과제작성 도움과의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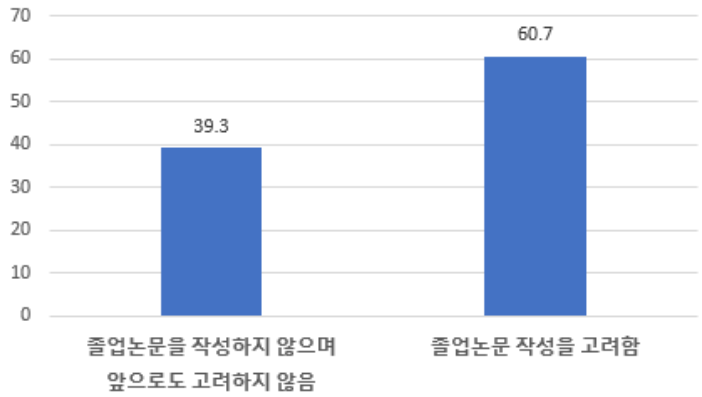
<표 III-18> 연령별 소모임 및 스터디 참여 목적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고립감 탈피	0 0.0%	3 8.6%	8 9.4%	6 11.1%	1 4.5%	18 8.9%
대학원에 대한 소속감	0 0.0%	7 20.0%	16 18.8%	6 11.1%	1 4.5%	30 14.9%
친밀한 관계 형성	1 16.7%	2 5.7%	13 15.3%	13 24.1%	7 31.8%	36 17.8%
과제작성 및 평가에 도움	5 83.3%	12 34.3%	22 25.9%	15 27.8%	8 36.4%	62 30.7%
전공지식 이해 도움	0 0.0%	7 20.0%	17 20.0%	7 13.0%	2 9.1%	33 16.3%
연구방법론이해 도움	0 0.0%	4 11.4%	9 10.6%	7 13.0%	3 13.6%	23 11.4%
계	6 100.0%	35 100.0%	85 100.0%	54 100.0%	22 100.0%	202 100.0%

3. 졸업논문

1) 논문작성 의사

졸업논문을 작성의사에 대해 질문한 결과, 60.7%의 응답자들이 작성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여 작성의사가 없는 학생들보다 20% 이상 더 많았다.



[그림 Ⅳ-10] 졸업논문 작성 의사

졸업논문 작성 의사는 학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다. 학과별로 논문작성의사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로 졸업논문 작성 의사를 나타난 학과는 청소년교육학과(90.9%), 일본언어문화학과(87.5%),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80.0%), 이러닝학과(80.0%)였으며, 그 뒤로 법학과(78.6%), 농업생명과학과(78.6%), 정보과학과(77.8%), 유아교육과(66.7%), 간호학과(63.2%)의 순이었다. 논문 작성을 안 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학과에는 경영대학원, 실용중국어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가 있었다.

<표 Ⅳ-19> 학과별 졸업논문 작성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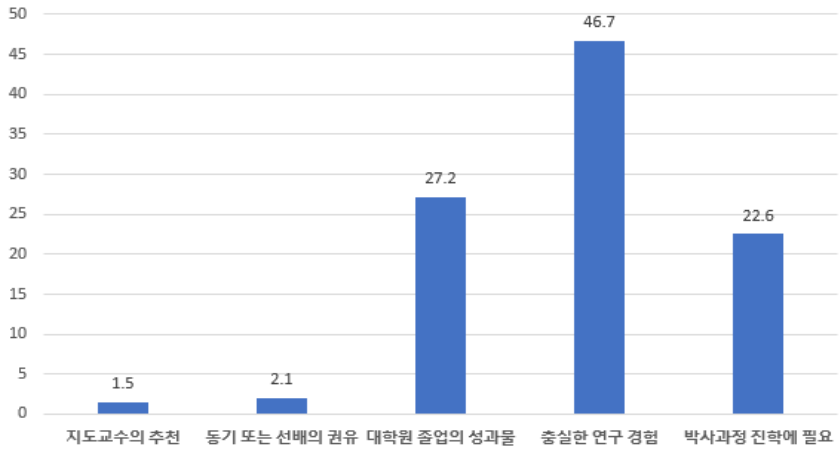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작성안하며 고려안함	7 41.2%	11 45.8%	6 54.5%	1 20.0%	1 12.5%	3 21.4%	4 40.0%	6 40.0%	6 46.2%	3 21.4%	13 50.0%
작성하거나 고려함	10 58.8%	13 54.2%	5 45.5%	4 80.0%	7 87.5%	11 78.6%	6 60.0%	9 60.0%	7 53.8%	11 78.6%	13 50.0%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작성안하며 고려안함	4 22.2%	2 20.0%	9 52.9%	4 57.1%	7 36.8%	9 42.9%	2 9.1%	3 33.3%	25 61.0%	126 39.3%
작성하거나 고려함	14 77.8%	8 80.0%	8 47.1%	3 42.9%	12 63.2%	12 57.1%	20 90.9%	6 66.7%	16 39.0%	195 60.7%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2) 논문작성 이유

논문작성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작성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충실한 연구경험이 46.7%%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서, 대학원 졸업의 성과물을 남기기 위해서가 27.2%,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해서가 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별 논문 작성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수의 학교에서 충실한 연구 경험이 그 이유로 많이 선택된 반면 다른 이유들이 더 많이 선택된 학과들도 있었다.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행정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에서는 대학원 졸업의 성과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실용영어학과에서는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하다는 이유가 61.5%로 가장 많아, 다른 학과들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Ⅳ-11] 졸업논문 작성 이유

<표 Ⅳ-20> 학과별 졸업논문 작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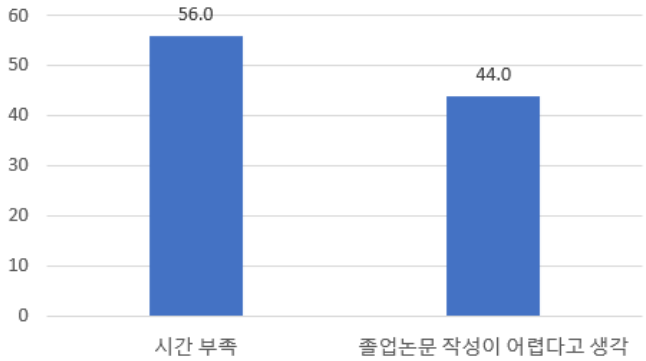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지도교수의 추천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7.7%
동기 또는 선배의 권유	0 0.0%	1 7.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8.2%	0 0.0%
대학원 졸업의 성과물	2 20.0%	3 23.1%	0 0.0%	2 50.0%	0 0.0%	2 18.2%	4 66.7%	2 22.2%	1 14.3%	1 9.1%	4 30.8%
충실한 연구 경험	4 40.0%	1 7.7%	3 60.0%	2 50.0%	6 85.7%	6 54.5%	2 33.3%	7 77.8%	5 71.4%	7 63.6%	5 38.5%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	3 30.0%	8 61.5%	2 40.0%	0 0.0%	1 14.3%	3 27.3%	0 0.0%	0 0.0%	1 14.3%	1 9.1%	3 23.1%
계	10 100.0%	13 100.0%	5 100.0%	4 100.0%	7 100.0%	11 100.0%	6 100.0%	9 100.0%	7 100.0%	11 100.0%	13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지도교수의 추천	1 7.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5%
동기 또는 선배의 권유	0 0.0%	0 0.0%	0 0.0%	0 0.0%	1 8.3%	0 0.0%	0 0.0%	0 0.0%	0 0.0%	4 2.1%
대학원 졸업의 성과물	3 21.4%	1 12.5%	5 62.5%	2 66.7%	6 50.0%	3 25.0%	2 10.0%	4 66.7%	6 37.5%	53 27.2%

충실한 연구 경험	8 57.1%	5 62.5%	1 12.5%	1 33.3%	2 16.7%	5 41.7%	12 60.0%	2 33.3%	7 43.8%	91 46.7%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	2 14.3%	2 25.0%	2 25.0%	0 0.0%	3 25.0%	4 33.3%	6 30.0%	0 0.0%	3 18.8%	44 22.6%
계	14 100.0%	8 100.0%	8 100.0%	3 100.0%	12 100.0%	12 100.0%	20 100.0%	6 100.0%	16 100.0%	195 100.0%

3) 대체수업 수강 이유

앞서 대학원 재학생들의 논문작성 이유를 검토하였는데 이와는 반대로 졸업을 위해 논문대체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졸업논문을 작성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논문 대신 대체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시간부족이 56.0%, 졸업논문 작성이 어렵다고 생각이 44.0%로 나타났다. 논문대체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학과별 분석은 학과별에 따른 사례수가 적어서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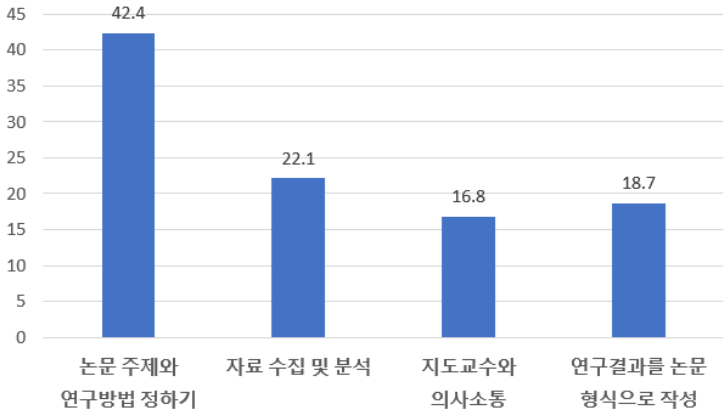


[그림 Ⅳ-12] 졸업논문 대체수업 수강 이유

4) 논문작성의 어려움

졸업 논문을 작성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논문주제와 연구방법 정하기가 42.4%로 가장 많은 분

포를 차지했고 이어서 자료 수집 및 분석 22.1%, 연구결과를 논문 형식으로 작성 18.7%, 지도교수와 의사소통 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3] 졸업논문 작성 시 인식하는 어려움

논문 작성시 인식하는 어려움에 대해 학과별로 살펴보면, 다수의 학과에서는 논문주제와 연구방법 정하기를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행정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어렵게 인식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표 Ⅳ-21> 학과별 졸업논문 작성 시 인식하는 어려움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논문주제·방법선정	5 29.4%	14 58.3%	3 27.3%	2 40.0%	4 50.0%	6 42.9%	3 30.0%	5 33.3%	9 69.2%	5 35.7%	11 42.3%
자료 수집 및 분석	4 23.5%	1 4.2%	2 18.2%	0 0.0%	0 0.0%	3 21.4%	5 50.0%	2 13.3%	2 15.4%	5 35.7%	3 11.5%
지도교수와 의사소통	5 29.4%	7 29.2%	3 27.3%	2 40.0%	2 25.0%	1 7.1%	0 0.0%	4 26.7%	1 7.7%	1 7.1%	5 19.2%
논문형식으로 작성	3 17.6%	2 8.3%	3 27.3%	1 20.0%	2 25.0%	4 28.6%	2 20.0%	4 26.7%	1 7.7%	3 21.4%	7 26.9%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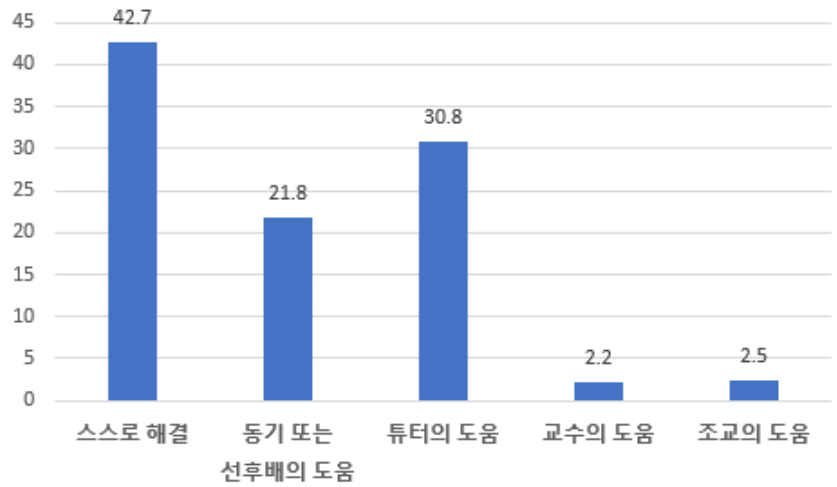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논문주제·방법선정	10 55.6%	4 40.0%	9 52.9%	3 42.9%	7 36.8%	11 52.4%	8 36.4%	3 33.3%	14 34.1%	136 42.4%
자료 수집 및 분석	2 11.1%	4 40.0%	0 0.0%	1 14.3%	5 26.3%	5 23.8%	9 40.9%	5 55.6%	13 31.7%	71 22.1%
지도교수와 의사소통	4 22.2%	1 10.0%	2 11.8%	1 14.3%	2 10.5%	2 9.5%	1 4.5%	1 11.1%	9 22.0%	54 16.8%
논문형식으로 작성	2 11.1%	1 10.0%	6 35.3%	2 28.6%	5 26.3%	3 14.3%	4 18.2%	0 0.0%	5 12.2%	60 18.7%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V. 학교생활 및 만족도

제 V장에서는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의 학업과정에서의 겪는 어려움과 영역별 만족도, 박사과정 신설 관련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해결방법과 미등록 경험 여부 및 이유를 다루고, 이어서 영역별 만족도와 진학권유의사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송대 대학원의 주요 정책 고려 사안인 박사과정 신설과 관련한 진학의사, 예상 진학 동기, 예상 진학 전공, 진학 고려시 장애 요인, 박사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 박사과정의 가치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학업과정에서의 어려움 해결 방법

대학원 학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2.7%가 스스로 해결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어서 튜터의 도움이 30.8%, 동기 또는 선후배의 도움을 요청한다가 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 학업과정의 어려움 해결 방법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스스로 해결 34.1%, 동기 또는 선후배의 도움 31.8%, 튜터의 도움 29.3의 순이었다. 2021년에 비교하여 2023년에 스스로 해결하는 정도가 상승하고, 선후배의 도움은 요청하는 정도가 10%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소모임이나 스터디 참여가 감소한 결과와도 연관될 수 있다. 2019년 실태조사에서는 학업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동기 또는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가 36.2%로 가장 높게 나왔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이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도움을 주고 받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학과에 따른 어려움 해결방법을 살펴보면, 학업과정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학과들이 다수였으나 학과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다. 사회복지학과는 동기나 선후배의 도움이 69.2%로 높았고, 평생교육학과(38.1%)에서도 동기나 선후배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교육학과에서는 동기·선후배의 도움과 튜터의 도움이 동일하게 36.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튜터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들(실용중국어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생활과학과, 간호학과)도 있었다.

<표 Ⅴ-1> 학과별 학업과정의 어려움 해결 방법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스스로 해결	8 47.1%	11 45.8%	0 0.0%	3 60.0%	2 25.0%	10 71.4%	6 60.0%	11 73.3%	1 7.7%	7 50.0%	8 30.8%
동기·선후배의 도움	1 5.9%	5 20.8%	3 27.3%	0 0.0%	1 12.5%	1 7.1%	0 0.0%	1 6.7%	9 69.2%	4 28.6%	3 11.5%
튜터의 도움	5 29.4%	7 29.2%	7 63.6%	1 20.0%	3 37.5%	2 14.3%	4 40.0%	2 13.3%	3 23.1%	3 21.4%	12 46.2%
교수의 도움	2 11.8%	0 0.0%	0 0.0%	1 20.0%	1 12.5%	0 0.0%	0 0.0%	1 6.7%	0 0.0%	0 0.0%	1 3.8%
조교의 도움	1 5.9%	1 4.2%	1 9.1%	0 0.0%	1 12.5%	1 7.1%	0 0.0%	0 0.0%	0 0.0%	0 0.0%	2 7.7%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스스로 해결	10 55.6%	5 50.0%	12 70.6%	4 57.1%	5 26.3%	7 33.3%	6 27.3%	1 11.1%	20 48.8%	137 42.7%
동기· 선후배의 도움	2 11.1%	2 20.0%	4 23.5%	1 14.3%	4 21.1%	8 38.1%	8 36.4%	4 44.4%	9 22.0%	70 21.8%
튜터의 도움	6 33.3%	3 30.0%	1 5.9%	2 28.6%	10 52.6%	6 28.6%	8 36.4%	4 44.4%	10 24.4%	99 30.8%
교수의 도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7 2.2%
조교의 도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8 2.5%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성별에 따라 어려움 해결 방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은 스스로 해결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튜터의 도움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서, 성별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Ⅴ-2> 성별 학업과정의 어려움 해결 방법

구분	남성	여성	계
스스로 해결	75 52.1%	62 35.0%	137 42.7%
동기 또는 선후배의 도움	28 19.4%	42 23.7%	70 21.8%
튜터의 도움	35 24.3%	64 36.2%	99 30.8%
교수의 도움	3 2.1%	4 2.3%	7 2.2%
조교의 도움	3 2.1%	5 2.8%	8 2.5%
계	144 100.0%	177 100.0%	321 100.0%

어려움 해결 방법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잇었다. 20대는 어려움 해결을 스스로 한다는 비율이 71.4%였는데, 그 정도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여 60대에서는 그 비율이 36.7%이었다. 동기 또는 선후배의 도움을 받는 비율도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연령대 별로 어려움 해결 방법에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표 Ⅴ-3> 연령별 학업과정의 어려움 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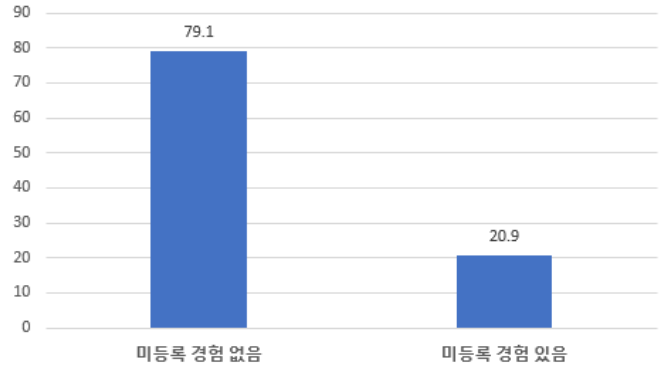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스스로 해결	10 71.4%	24 40.7%	64 46.7%	28 34.6%	11 36.7%	137 42.7%
동기 또는 선후배의 도움	1 7.1%	12 20.3%	26 19.0%	24 29.6%	7 23.3%	70 21.8%
튜터의 도움	3 21.4%	22 37.3%	40 29.2%	25 30.9%	9 30.0%	99 30.8%
교수의 도움	0 0.0%	0 0.0%	1 0.7%	3 3.7%	3 10.0%	7 2.2%
조교의 도움	0 0.0%	1 1.7%	6 4.4%	1 1.2%	0 0.0%	8 2.5%
계	14 100.0%	59 100.0%	137 100.0%	81 100.0%	30 100.0%	321 100.0%

2. 미등록 경험

이 절에서는 대학원 재학 중 미등록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미등록 경험이 있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미등록 경험 여부

미등록 경험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응답자의 79.1%는 미등록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실태조사에서의 수치와 비교해보면, 2011년 77.6%, 2014년 85.2%, 2015년 85.8%, 2016년 88%, 2017년 85.9%, 2019년 81.4%, 2021 86.4%가 미등록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올해에는 미등록 경험자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Ⅴ-2] 미등록 경험 여부

학과에 따른 미등록 경험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학과에서 미등록 경험 없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60.0%), 행정학과(40.%), 이러닝학과(40.0%)에서 미등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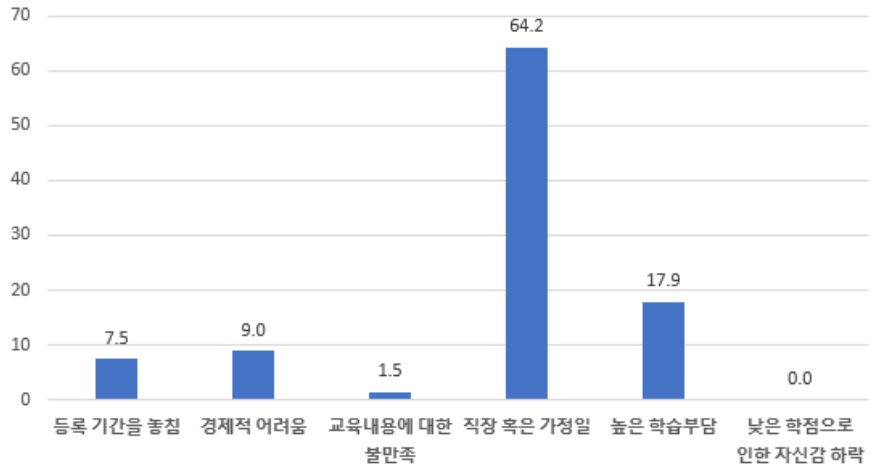
<표 Ⅴ-4> 학과별 미등록 경험 여부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미등록 경험 없음	13 76.5%	18 75.0%	9 81.8%	2 40.0%	5 62.5%	11 78.6%	6 60.0%	13 86.7%	11 84.6%	11 78.6%	22 84.6%
미등록 경험 있음	4 23.5%	6 25.0%	2 18.2%	3 60.0%	3 37.5%	3 21.4%	4 40.0%	2 13.3%	2 15.4%	3 21.4%	4 15.4%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미등록 경험 없음	11 61.1%	6 60.0%	15 88.2%	6 85.7%	15 78.9%	18 85.7%	18 81.8%	8 88.9%	36 87.8%	254 79.1%
미등록 경험 있음	7 38.9%	4 40.0%	2 11.8%	1 14.3%	4 21.1%	3 14.3%	4 18.2%	1 11.1%	5 12.2%	67 20.9%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2) 미등록 이유

미등록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이유에 대한 질문한 결과 직장 혹은 가정일이 64.2%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높은 학습 부담 17.9%, 경제적 어려움 9.0%, 등록기간을 놓침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별 미등록 이유에 대한 분석은 학과별 사례 수가 적어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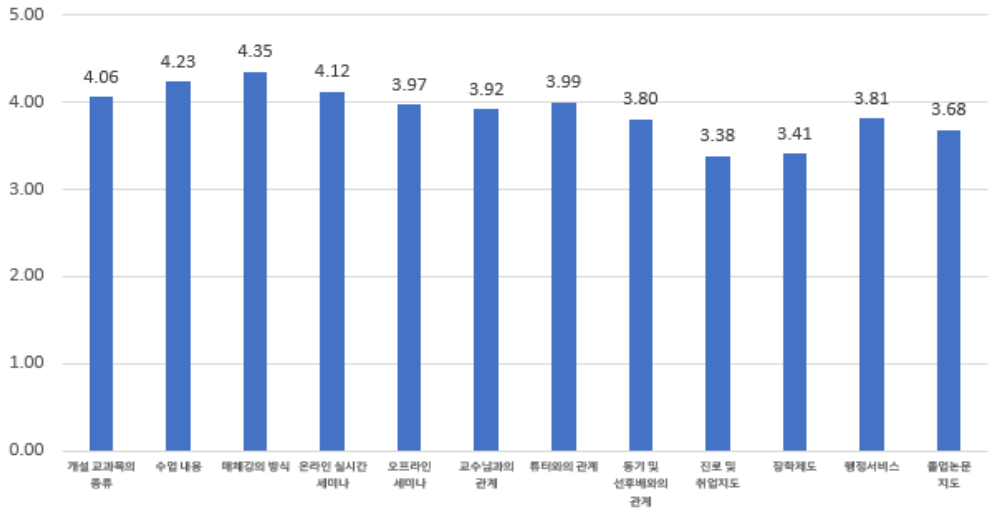


[그림 Ⅴ-3] 미등록 경험 이유

3. 영역별 학교생활 만족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경험없음으로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고 만족도의 평균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매체강의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4.35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수업내용(4.23),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4.12), 개설 교과목의 종류(4.21)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진로 및 취업지도로 3.38점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장학제도로(3.41), 졸업논문지도(3.68), 동기 및 선후배와의 관계(3.80)의 순으로 낮은 만

족도를 보였다.



[그림 Ⅴ-4] 학교생활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

학과별로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체강의 방식이나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다수의 학과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상위에 오른 학과들도 있다.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에서는 매체강의 방식이나 수업내용과 함께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실용중국어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이러닝학과에서는 졸업논문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학과에 비교하여 월등히 높았다. 수업내용과 함께 개설교과목의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과에는 실용중국어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가 해당된다.

<표 Ⅴ-5> 학과별 학교생활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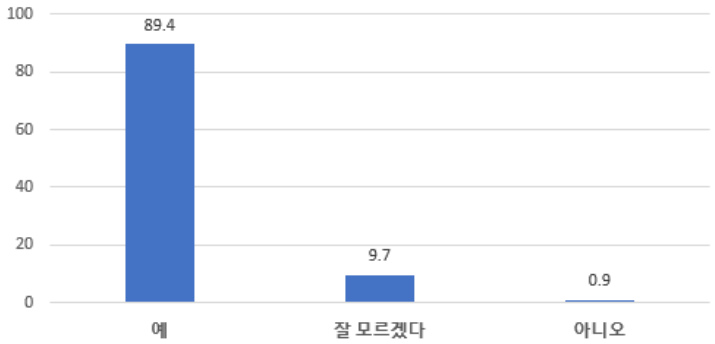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개설 교과목 종류	4.00	3.96	4.27	3.80	3.63	3.79	4.20	4.07	4.62	4.00	3.92

수업 내용	4.56	4.17	4.36	3.80	4.00	4.00	4.60	4.27	4.77	4.29	4.27
매체강의 방식	4.56	4.38	4.64	4.20	4.13	4.43	4.50	4.27	4.54	4.21	4.31
온라인 실시간세미나	4.33	4.17	4.55	3.40	4.25	4.21	4.10	3.82	4.38	3.82	4.31
오프라인 세미나	3.71	4.00	4.50	3.60	4.14	3.85	4.10	4.36	4.38	4.23	3.69
교수님과의 관계	3.88	3.81	4.30	3.40	3.86	3.62	3.90	4.07	4.69	3.92	3.96
튜터와의 관계	4.06	3.95	4.36	3.60	4.25	3.57	3.90	3.86	4.23	4.14	4.16
동기선후배와의 관계	3.60	3.76	4.30	3.20	3.33	3.50	3.60	3.54	4.23	4.21	3.96
진로 및 취업지도	3.64	3.42	4.11	3.40	2.80	3.45	3.40	3.60	3.80	3.38	3.53
장학제도	3.50	3.21	3.44	2.80	3.00	3.75	3.50	3.55	3.20	3.58	3.53
행정서비스	4.00	3.57	4.44	3.60	4.00	3.92	4.00	3.42	3.73	3.85	4.00
졸업논문 지도	3.50	3.50	4.13	3.40	4.20	3.88	3.67	3.75	3.80	3.14	3.91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개설 교과목 종류	3.89	4.00	4.24	4.57	4.21	4.29	4.18	4.22	3.83	4.06
수업 내용	3.83	4.40	3.94	4.71	4.32	4.43	4.50	4.44	3.80	4.23
매체강의 방식	4.28	4.40	4.53	4.57	4.42	4.43	4.41	4.33	4.00	4.35
온라인 실시간세미나	3.88	4.30	4.21	4.29	4.22	4.24	4.18	4.33	3.66	4.12
오프라인 세미나	3.21	4.00	3.55	4.17	4.17	4.20	4.39	4.33	3.40	3.97
교수님과의 관계	3.86	4.00	3.79	4.17	4.05	4.10	4.05	4.22	3.36	3.92
튜터와의 관계	3.94	4.20	3.63	4.00	4.05	4.10	4.00	4.56	3.72	3.99
동기선후배와의 관계	3.36	3.88	3.79	4.00	3.71	4.14	3.90	4.22	3.61	3.80
진로 및 취업지도	3.10	3.25	3.23	3.20	3.47	3.56	2.94	3.50	3.07	3.38
장학제도	3.46	3.25	3.08	3.14	3.75	3.37	3.42	3.50	3.39	3.41
행정서비스	3.63	4.00	3.88	3.71	3.76	3.85	3.53	4.00	3.78	3.81
졸업논문 지도	3.64	4.33	3.43	3.75	3.62	3.71	3.87	3.86	3.36	3.68

4. 진학 권유 의사

주변 사람들에게 방송대 대학원 진학을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7년도 실태조사 응답결과에서도 85.4%, 2019년 조사에서도 85.5%, 2021년 조사에서는 89.2%가 진학을 권유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을 볼 때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Ⅴ-5] 방송대 대학원 진학 권유 의사

학과별로 진학 권유 의사를 살펴보면, 다수의 학과(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간호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에서 90% 이상이 진학 권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방송대 대학원 진학을 권유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80% 미만인 학과는 없었다.

<표 Ⅴ-6> 학과별 방송대 대학원 진학 권유 의사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예	16 94.1%	20 83.3%	11 100.0%	4 80.0%	7 87.5%	12 85.7%	8 80.0%	15 100.0%	13 100.0%	13 92.9%	21 80.8%
잘 모르겠다	1 5.9%	4 16.7%	0 0.0%	1 20.0%	0 0.0%	2 14.3%	2 20.0%	0 0.0%	0 0.0%	1 7.1%	5 19.2%
아니오	0 0.0%	0 0.0%	0 0.0%	0 0.0%	1 12.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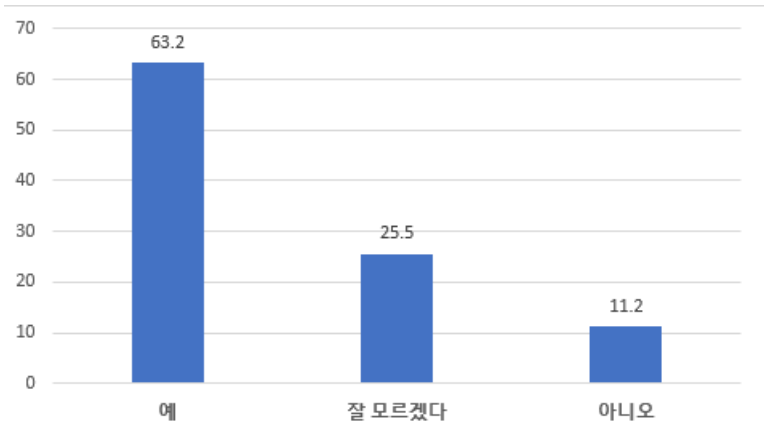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예	15 83.3%	10 100.0%	16 94.1%	6 85.7%	18 94.7%	18 85.7%	21 95.5%	9 100.0%	34 82.9%	287 89.4%
잘 모르겠다	3 16.7%	0 0.0%	1 5.9%	1 14.3%	1 5.3%	2 9.5%	1 4.5%	0 0.0%	6 14.6%	31 9.7%
아니오	0 0.0%	0 0.0%	0 0.0%	0 0.0%	0 0.0%	1 4.8%	0 0.0%	0 0.0%	1 2.4%	3 0.9%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5. 박사과정 신설에 대한 요구

박사과정 신설에 대한 요구는 신설 시 진학 의사, 예상 진학 동기, 예상 진학 전공, 진학 고려시 장애요인, 박사과정 항목별 중요도, 박사학위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의사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3.2%가 예로 답했고, 잘 모르겠다가 25.5%, 아니오가 11.2%로 나타났다. 2019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67.0%,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61.8%가 박사과정 진학의사가 있다고 답하여, 석사과정 대학원생 중 박사과정 진학의사를 가진 대학원생의 비율이 일정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Ⅴ-6]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의사

<표 Ⅴ-7> 학과별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의사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예	11 64.7%	18 75.0%	7 63.6%	3 60.0%	7 87.5%	13 92.9%	5 50.0%	9 60.0%	8 61.5%	7 50.0%	14 53.8%
잘 모르겠다	2 11.8%	4 16.7%	4 36.4%	2 40.0%	1 12.5%	0 0.0%	4 40.0%	5 33.3%	5 38.5%	4 28.6%	8 30.8%
아니오	4 23.5%	2 8.3%	0 0.0%	0 0.0%	0 0.0%	1 7.1%	1 10.0%	1 6.7%	0 0.0%	3 21.4%	4 15.4%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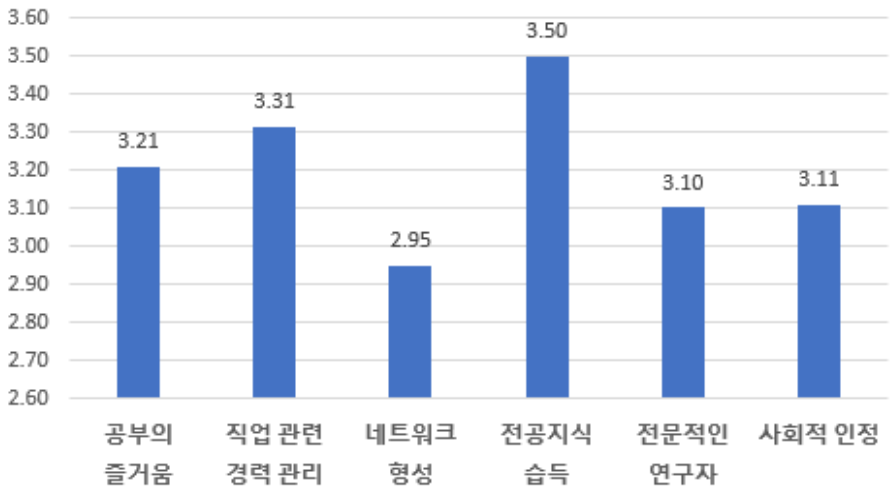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예	14 77.8%	9 90.0%	11 64.7%	4 57.1%	10 52.6%	16 76.2%	13 59.1%	3 33.3%	21 51.2%	203 63.2%
잘 모르겠다	4 22.2%	1 10.0%	2 11.8%	3 42.9%	7 36.8%	2 9.5%	5 22.7%	6 66.7%	13 31.7%	82 25.5%
아니오	0 0.0%	0 0.0%	4 23.5%	0 0.0%	2 10.5%	3 14.3%	4 18.2%	0 0.0%	7 17.1%	36 11.2%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학과별로 진학 의사를 살펴보면, 유아교육학과(33.3%)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에서 50% 이상이 박사과정 진학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일본어문화학과(87.5%), 법학과(92.9%), 이러닝학과(90.0%)에서는 80% 이상이 박사과정 진학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실용영어학과(75.0%), 정보과학과(77.8%), 평생교육학과(76.2%)에서는 70% 이상이 진학의사를 나타내었다.

2) 박사과정 신설 시 예상 진학동기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박사과정 예상 진학동기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박사과정 예상 진학동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전공지식 습득(3.50)이었고, 그 뒤를 직업관련 경력관리(3.31)과 공부의 즐거움(3.21)이 따랐다.

앞서 Ⅲ장 4절에서 대학원(석사과정) 진학동기에 대한 결과에서도 전공지식 습득과 직업관련 경력관리가 가장 강한 진학동기로 나타났었다. 박사과정에서도 다른 동기요인들보다 전공지식 습득과 직업관련 경력 관리가 진학동기로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7] 박사과정 신설 시 예상 진학 동기

학과별로 박사과정 예상 진학동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전공지식 습득이 가장 강한 진학동기인 반면 몇몇 학과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더 강한 동기로 나타났다. 실용영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에서는 공부의 즐거움이 두드러진 진학동기로 나타났고, 이러닝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에서는 진학 동기 중 직업관련 경력관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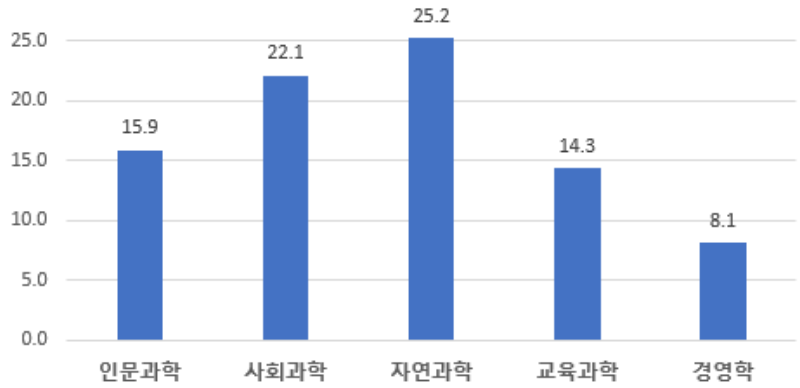
<표 Ⅴ-8> 학과별 박사과정 신설 시 예상 진학 동기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공부의 즐거움	3.12	3.58	3.09	4.40	4.50	4.14	2.60	3.07	3.85	2.93	2.77
직업 관련 경력 관리	2.88	3.29	3.00	4.00	3.75	3.71	2.70	3.60	3.92	3.14	2.96
네트워크 형성	2.41	3.13	3.00	3.00	3.75	3.14	2.50	2.80	3.77	2.79	2.73
전공지식 습득	3.24	3.54	3.55	4.40	4.50	4.43	2.80	3.53	4.00	3.36	3.12
전문적인 연구자	2.88	3.33	3.00	3.60	3.88	3.79	2.60	3.33	3.77	3.36	3.00
사회적 인정	2.94	3.25	2.36	3.80	3.38	3.64	2.70	3.27	3.46	3.57	3.12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공부의 즐거움	3.67	4.00	2.94	3.00	2.26	3.90	3.09	2.11	2.88	3.21
직업 관련 경력 관리	3.78	4.50	2.94	4.29	2.79	4.05	3.18	3.00	2.93	3.31
네트워크 형성	3.00	3.90	2.35	3.29	2.32	3.95	2.95	2.67	2.71	2.95
전공지식 습득	4.00	4.60	3.12	4.14	2.74	4.24	3.36	3.00	2.95	3.50
전문적인 연구자	3.22	3.60	2.71	3.43	2.84	3.81	3.05	2.56	2.29	3.10
사회적 인정	3.06	3.60	2.71	3.14	2.63	4.29	3.05	2.44	2.61	3.11

3) 예상 진학 전공

예상 진학 전공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자연과학이 25.2%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고 이어서 사회과학 22.1%, 인문과학 15.9%, 교육과학 14.3%, 경영학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8] 박사과정 신설 시 예상 진학 전공

학과별 예상 진학 전공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재 소속 학과와 동일한 전공을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는 인문과학을,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는 사회과학을, 농업생명과학과와 생활과학과,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는 자연과학을,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는 교육과학을, 경영대학원은 경영학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표 Ⅴ-9> 학과별 박사과정 신설 시 예상 진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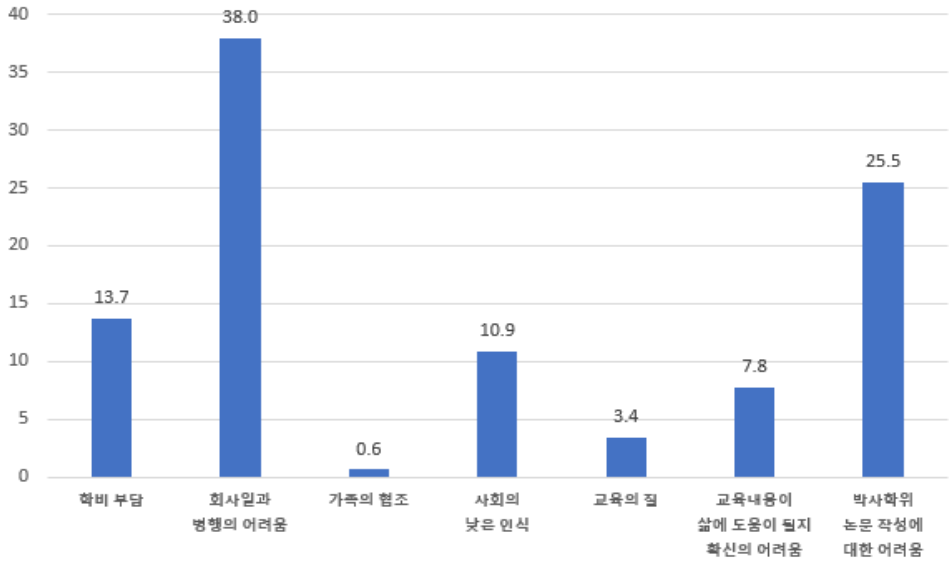
구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인문과학	12 70.6%	18 75.0%	10 90.9%	3 60.0%	5 62.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사회과학	1 5.9%	1 4.2%	0 0.0%	1 20.0%	2 25.0%	14 100.0%	8 80.0%	12 80.0%	13 100.0%	1 7.1%	5 19.2%
자연과학	0 0.0%	1 4.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2 85.7%	8 30.8%
교육과학	0 0.0%	1 4.2%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5.4%
경영학	0 0.0%	1 4.2%	0 0.0%	0 0.0%	1 12.5%	0 0.0%	0 0.0%	1 6.7%	0 0.0%	0 0.0%	1 3.8%
계	17 100.0%	24 100.0%	11 100.0%	5 100.0%	8 100.0%	14 100.0%	10 100.0%	15 100.0%	13 100.0%	14 100.0%	26 100.0%

구분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영대학원	계
인문과학	0 0.0%	0 0.0%	0 0.0%	0 0.0%	0 0.0%	2 9.5%	0 0.0%	0 0.0%	1 2.4%	51 15.9%
사회과학	1 5.6%	1 10.0%	0 0.0%	0 0.0%	0 0.0%	1 4.8%	5 22.7%	1 11.1%	4 9.8%	71 22.1%
자연과학	15 83.3%	5 50.0%	13 76.5%	7 100.0%	16 84.2%	0 0.0%	0 0.0%	0 0.0%	4 9.8%	81 25.2%
교육과학	0 0.0%	4 40.0%	0 0.0%	0 0.0%	0 0.0%	16 76.2%	15 68.2%	4 44.4%	1 2.4%	46 14.3%
경영학	0 0.0%	0 0.0%	0 0.0%	0 0.0%	0 0.0%	1 4.8%	0 0.0%	0 0.0%	21 51.2%	26 8.1%
계	18 100.0%	10 100.0%	17 100.0%	7 100.0%	19 100.0%	21 100.0%	22 100.0%	9 100.0%	41 100.0%	321 100.0%

4) 예상 진학 장애요인

예상 진학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회사일과 병행의 어려움이 38.0%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대한 어려움 25.5%, 학비 부담 13.7%, 사회의 낮은 인식 10.9%, 교육내용이 삶에 도움될지 확신하기 어려움 7.8%, 교육의 질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하는 진학 장애요인의 순서가 2021년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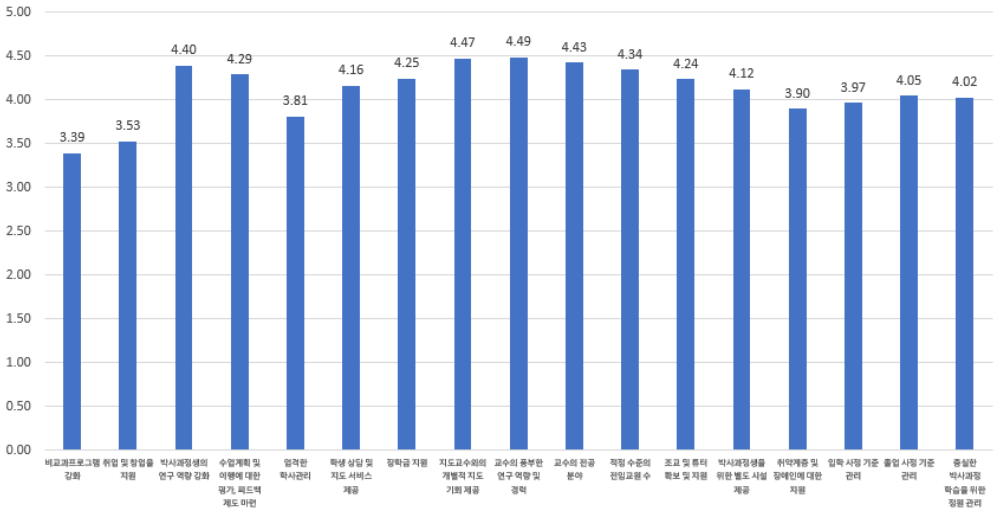
문조사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2021년 결과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대한 어려움이 28.3%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었다. 이어서 회사일과 병행의 어려움이 26.4%, 사회의 낮은 인식이 17.5%, 학비 부담이 13.4%, 교육내용이 삶에 도움될지 확신하기 어려움이 8.0%, 교육의 질이 6.4%의 순이었다. 회사일과 병행의 어려움이나 학비 부담에서 지난 조사 때보다 장애 요인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그림 Ⅴ-9] 박사과정 진학 고려 시 예상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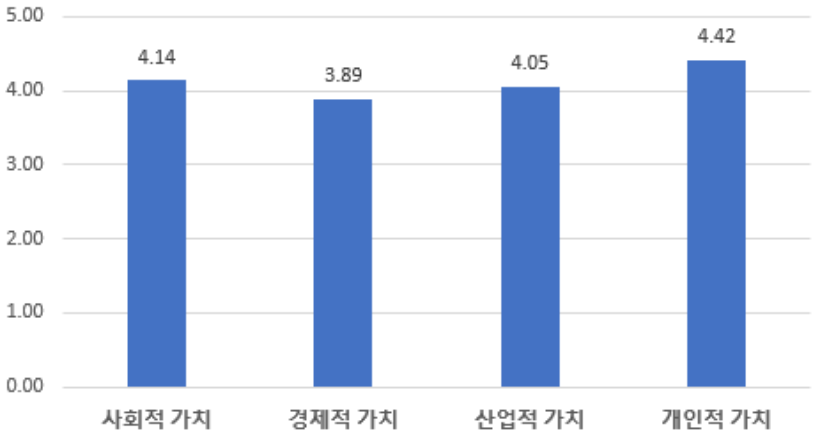
5) 박사과정에 대한 인식

박사과정 운영에 관련된 여러 항목들을 제시하고, 박사과정에 지원하여 학업한다면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대학원생들이 박사과정 학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상위에 오른 항목들은 모두 교수진과 관련된 부분이었다(교수의 풍부한 연구 역량 및 경력, 4.49; 지도교수와의 개별적 지도 기회, 4.47; 교수의 전공분야, 4.43). 그리고 이러한 교수진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2021년 실태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Ⅴ-10] 박사과정 운영 관련 항목들의 중요도 평가

박사학위의 가치를 네 가지 측면(사회적, 경제적, 산업적, 개인적 가치)으로 나누고 각 가치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네 가지 측면의 가치가 대체로 높기는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자아실현, 학습욕구, 자기만족, 삶의 질 개선 등과 관련된 개인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1] 박사학위가 갖는 가치에 대한 평가

VI. 요약 및 제언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2023년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대 대학원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1. 요약

이 연구는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의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2011년부터 매년 혹은 격년 간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먼저 대학원 전체 재학생의 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원율 변화추이와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재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입학 배경 및 준비 과정, 학습 수행 과정, 학교 생활의 어려움 및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다. 대학원 재학생 전체 학적 데이터는 [데이터허브]에서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설문조사는 방송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2023년 1학기 기준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은 2,300명이었고 경영대학원 재학생은 277명이었고, 유효 설문 응답자 수는 321명으로 모집단 대비 12.5%를 차지하였다.

1) 대학원 재학생 현황 분석

○ 2017년부터 조금씩 감소하던 지원율이 2020년(198.1%)과 2021년(223.8%)에는 상승하였고, 2022년에는 201.5%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학과별 지원율을 살펴보면 6개 학과는 2021년보다 지원율이 증가하였고, 13개 학과에서 지원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문예창작콘텐츠학과, 법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생활과학과, 정보과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간호학과는 2019-2020년 대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2022년에 지원율의 증가폭이 컸다.
-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문예창작콘텐츠학과 377.4%이고, 그 뒤를 이어 사회복지학과가 322.0%의 지원율을 기록하였다. 지원율이 가장 낮은 학과는 아프리카·불

어권언어문화학과로 지원율이 48.7%였다.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와 행정학과(94.3%)에서 지원율이 정원보다 낮았다.

○ 2022학년도 대학원 재학생 전체 **2,577명 중 남학생은 1,090명으로 42.3%**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학과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남·여 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11개 학과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10개 학과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다. 남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정보과학과로 85.7%였으며 가장 낮은 학과는 유아교육학과로 0.8%를 나타냈다.

○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여 전체의 38.5%를** 나타냈다.

- 40대 다음으로는 50대가 27.2%, 30대 22.1%, 60대 이상이 7.4%, 20대가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 30대가 많은 학과는 통계·데이터과학과(49.3%), 정보과학과(35.3%), 행정학과(33.5%)로, 이 세 학과는 연령대별 집단 중 30대가 40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분포 현황은 **서울 지역 거주자가 3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환경보건시스템학과나 농업생명공학과에서는 서울·경기 거주자의 비중이 다른 학과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2) 입학 배경 및 준비 과정

○ 방송대 대학원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가 7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 다음으로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가 17.4%, 검정고시 3.4%, 외고와 과학고 출신이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입학 전 최종학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오프라인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다**

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아서 38.0%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방송대가 28.3%, 석사학위 소지자가 13.4%, 학사학위를 2개 이상 가진 응답자가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결과보다 석사학위 소지자가 4.2% 증가하였다.
- 최종학력 학교 종류에서 학과별 편차가 나타나 학과에 따라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졸업한 학교 종류가 달랐다. 실용영어학과,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경영대학원은 일반 오프라인대학교 학사학위의 비율이 50% 이상을 나타내서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아교육과의 경우 방송대 학사학위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타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방송대 대학원생들의 **최종학력 전공계열**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계열이 2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인문계열 21.8%, 자연계열 16.5%, 교육계열 14.3%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공학계열 12..8%, 의학계열 6.9%, 예체능계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학과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최종 학부 계열과 현재 대학원 전공 계열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 방송대 대학원생들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회사원(사무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1%**로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회사원(관리, 전문직)이 11.5%, 상담사·사회복지사가 7.5%, 간호사가 5.9%, 학원강사·학습지교사와 컴퓨터프로그램개발자가 각각 4.4%, 초·중·고 교사가 4.0%, 일반공무원이 3.7%를 차지하였다.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상담사·사회복지사와 컴퓨터프로그램개발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
- 학과별로 살펴보면 직업 분포에 편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직업과 소속학과의 학문영역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서 방송대 대학원 진학이 직업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 내지는 지식 습득을 위해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방송대 대학원생들의 **가계 월평균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600만원 이상이 31.8%**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 그 다음에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18.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5.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4.0%,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5.6%, '100만 미만'은 3.1%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 **대학원 진학 동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공지식 습득을 위해서가 30.5%**를 나타냈고 바로 이어 **직업관련 경력관리를 위해서가 28.7%**를 차지해서 이 양자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 이밖에 미래대비 보람있고 가치있는 시간을 위해서라는 응답도 18.4%를 나타내었고, 공부의 즐거움이 9.3%, 박사과정 진학이 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 학과별로 살펴보면, 학과에 따라 주된 대학원 진학동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 **방송대 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51.7%가 직업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 다음으로 30.5%의 학생들은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11.1%의 학생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법과 과정 때문에, 9.7%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법과 과정 때문에 방송대 대학원을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 학과별로 방송대 대학원 선택이유를 살펴보면,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와 유아교육학과는 저렴한 학비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고 그 외의 학과들은 모두 직업과 병행가능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일본언어문화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30% 이상이 교육과정이 좋아서 방송대 대학원 선택하였다.

○ 방송대 대학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방법**에 대해, **방송대 홈페이지가 57.3%**로 가장 중요한 정보 획득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방송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23.4%를 차지했고 인터넷 정보 10.0%, 가족 및 지인 5.6%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명과학과와 유아교육학과에서는 방송대 재학생·졸업생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다른 모든 학과에서는 방송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 비율이 높았다.

○ 대학원 진학을 결심한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을 따라**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31.5%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 다음으로 사회의 낮은 인식이 23.4%로 나타났다. 회사생활 병행하기는 19.9%, 교육의 질은 8.3%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 2021년 실태조사의 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사회의 낮은 인식과 회사생활 병행하기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2021년 조사 결과에서는 회사생활 병행하기(23.9%)와 사회의 낮은 인식(18.8%) 순이었다.
- 학과별로 진학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과에 따라 장애요인에 편차가 있었다.

○ **학과 선택 요인**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항목은 **평소 관심분야**로 전체 응답의 **34.6%**를 차지하였다.

- 다음으로 29.0%의 응답자가 직업관련 경력관리를 위해 선택했다고 응답하였으며, 28.7%의 응답자는 학부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 평소 관심분야에 직업관련 경력관리와 학부전공 관련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 요인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 방송대 대학원의 목표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 기준에서 **평생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동의가 4.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다음으로 전문교육 제공(4.17), 해당분야 학자양성(4.02)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학과별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경영대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대학원 목표로 평생교육 기회제공에 가장 동의하는 정도가 강했다.
- 해당분야 학자양성에 대한 목표 동의 정도는 앞선 두 가지보다는 낮은 편이나, 2011년에 3.39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상승해왔고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4.0을 넘었다.

○ 방송대 대학원의 목표 구현 인식 정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기회 제공이 4.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다음으로 전문교육 제공(3.96), 해당분야 학자양성(3.70) 순으로 나타났다.
- 2021년 대비 2023년에 모든 목표 영역에서 구현 정도의 값이 감소하였다.

3) 학업 수행 과정

○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의 주당 학습 시간에 대해서는 **2~4시간**이라고 답한 경우가 **44.5%**로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4~6시간 21.8%, 2시간미만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학과별 주당 학습 시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2~4시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지만 실용영어학과(37.5%)에서는 6~8시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 강의를 주로 수강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오후 6시-자정**의 응답이 **64.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 다음으로 오전6시-정오가 16.4%, 정오-오후6시가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학과별로 살펴보면 오전6시-정오의 응답이 모든 학과에서 가장 많았고, 두 번째 수강 시간대는 학과마다 차이가 나타났다.

○ 웹강의 수강 장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3%가 집으로** 응답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 다음으로 직장 12.4%, 이동 중에가 4.7%로 나타났다.
- 학과별로 살펴봐도 모든 학과에서 집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이 직장, 이동 중에의 순서로 나타났다. 행정학과, 농업생명과학과,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는 직장에서 웹강의를 수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였다.

○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동료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 사이에서 선호하는 수업방식에 대해 **82.6%가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학과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사회복지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에서 개인적으로 학습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동료들과 학습에 대한 선호하여 그 비율이 53.8%를 차지하였다.

○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중 더 선호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74.5%의 학생들이 온라인 활동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 학과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과에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선호가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일부 학과에서는 오프라인 선호도 30% 이상 나타나서, 온라인 활동 선호가 많지만 학과별에 따라서는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수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디지털 학습자료를 모니터로 읽는 학습방법과 인쇄, 출력 자료를 읽는 학습방법 중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58.9%의 학생들이 인쇄, 출력물을 읽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 이전 실태조사보다는 대학원생들의 인쇄 및 출력물에 대한 선호 정도가 낮아졌다.
- 학과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정보과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인쇄 및 출력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 웹강의 수강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로는 **노트북이 48.3%**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 다음으로 데스크탑 PC 33.0%, 스마트폰 9.3%, 태블릿 PC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학과별 주요 활용 매체를 살펴보면, 모든 학과에서 데스크탑 PC와 노트북이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농업생명과학과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일본어문화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정보과학과, 경영대학원에서는 데스크탑 PC이 주요 활용 매체였으며, 이 외의 다른 학과에서는 대학원생들이 노트북을 웹강의 수강에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 학습 목적의 **소모임/스터디에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참여함의 응답이 62.9%로** 나타났다.

- 대학원생들의 2/3 정도는 소모임이나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실태조사에서 소모임/스터디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던 것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 소모임이나 스터디 참여에서도 학과별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복지학과는 모든 설문 응답자들이 소모임/스터디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평생교육학과에서

도 소모임/스터디 참여 경험을 가진 응답자가 90.5%였다. 반면,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에서는 소모임/스터디에 경험한 비율이 절반 이하였다.

○ **소모임이나 스터디에 참여한 목적**에 대해서는 **과제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 얻기가 30.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 다음으로 동기·선후배 간 친밀한 관계형성이 17.8%,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 높이기가 16.3%, 대학원에 대한 소속감이 14.9%,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 높이기 11.4%, 고립감 탈피 8.9%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대학원에 대한 소속감과 고립감 탈피가 소모임/스터디 참여 목적에서 순위가 아래로 떨어졌다.
- 전체적으로 다양한 소모임/스터디 참여 목적이 분포하는 가운데, 학과별로도 참여 목적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졸업논문을 작성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60.7%의 학생들이 작성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여 작성의사가 없는 학생들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 학과별로 논문 작성의사를 살펴보면, 학과에 따라 참여 의사 정도가 달라 작성의사가 높은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가 구분되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졸업논문 작성의사를 나타난 학과는 청소년교육학과(90.9%), 일본언어문화학과(87.5%),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80.0%), 이러닝학과(80.0%)였으며, 그 뒤로 법학과(78.6%), 농업생명과학과(78.6%), 정보과학과(77.8%), 유아교육과(66.7%), 간호학과(63.2%)의 순이었다. 논문 작성을 안 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학과에는 경영대학원, 실용중국어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가 있었다.

○ 논문작성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논문작성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충실한 연구경험을 위해서로 응답한 경우가 46.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 졸업의 성과물을 남기기 위해서가 27.2%,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해서가 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대로 **논문대체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시간부족이 56.0%, 졸업논문 작성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가 44.0%**로 나타났다.

○ **졸업 논문을 작성**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지에 대해, **42.4%의 학생들이 논문 주제와 연구방법 정하기**라고 응답하여 이를 가장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다음으로 자료 수집 및 분석 22.1%, 연구결과를 논문 형식으로 작성 18.7%, 지도교수와 의사소통 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학과에 따른 논문 작성시 인식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다수의 학과에서는 논문주제와 연구방법 정하기에 대해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행정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어렵게 인식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4) 학교생활 및 만족도

○ 대학원 학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방법에 대해서는 **42.7%가 스스로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 다음으로 튜터의 도움이 30.8%, 동기 또는 선후배의 도움 요청이 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교하여 2023년에 스스로 해결하는 정도가 상승하고, 선후배의 도움은 요청하는 정도는 10%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소모임이나 스터디 참여가 감소한 결과와도 연관될 수 있다.
- 학과에 따른 어려움 해결방법을 살펴보면, 학업과정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학과들이 다수였으나 학과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다. 사회복지학과는 동기나 선후배의 도움이 69.2%로 높았고, 평생교육학과(38.1%)에서도 동기나 선후배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교육학과에서는 동시·선후배의 도움과 튜터의 도움이 동일하게 36.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튜터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들(실용중국어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생활과학과, 간호학과)도 있었다.

○ 대학원 재학 중 미등록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1%가 미등록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앞선 실태조사에 비교하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미등록 경험자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 학과에 따른 미등록 경험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미등록 경험 없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60.0%), 행정학과(40.%), 이러닝학과(40.0%)에서 미등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미등록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이유**에 대한 질문한 결과 **직장 혹은 가정일이 64.2%**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 다음으로 높은 학습 부담 17.9%, 경제적 어려움 9.0%, 등록기간을 놓침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5점 만점 기준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체강의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4.35점으로** 가장 높았다.

- 이어서 수업내용(4.23),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4.12), 개설 교과목의 종류(4.21)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진로 및 취업지도로 3.38점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장학제도로(3.41), 졸업논문지도(3.68), 동기 및 선후배와의 관계(3.80)의 순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학과별로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볼 때, 매체강의 방식이나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다수의 학과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상위에 오른 학과들도 있다.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에서는 매체강의 방식이나 수업내용과 함께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실용중국어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이러닝학과에서는 졸업논문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학과에 비교하여 월등히 높았다. 수업내용과 함께 개설교과목의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과에는 실용중국어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가 해당된다.

○ 주변 사람들에게 방송대 대학원 **진학을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이전 실태조사에서도 85% 이상이 권유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을 볼 때, 이러한 경향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학과별로 진학 권유 의사를 살펴보면, 다수의 학과(문예창작콘텐츠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러닝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간호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에서 90% 이상이 진학 권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방송대 대학원 진학을 권유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80% 미만인 학과는 없었다.

○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3.2%가 진학의사 있음**으로 답해서 대체로 진학 의사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학과별로 진학 의사를 살펴보면, 유아교육학과(33.3%)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에서 50% 이상이 박사과정 진학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일본어문화학과(87.5%), 법학과(92.9%), 이러닝학과(90.0%)에서는 80% 이상이 박사과정 진학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예상 진학동기**를 조사한 결과, **전공지식 습득(3.50)**이 가장 강한 진학동기로 나타났다.

- 이어서 직업관련 경력관리 3.31, 공부의 즐거움 3.21로 나타났다.
- 학과별 예상 진학동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전공지식 습득이 가장 강한 진학동기인 반면 몇몇 학과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더 강한 동기로 나타났다.

○ 박사과정 신설 시 **예상 진학 전공**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자연과학이 25.2%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 이어서 사회과학 22.1, 인문과학 15.9%, 교육과학 14.3%, 경영학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학과별 예상 진학 전공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재 소속 학과와 동일한 전공을 선

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박사과정 신설 시 **예상 진학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회사일과 병행의 어려움이 38.0%**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 이어서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대한 어려움 25.5%, 학비 부담 13.7%, 사회의 낮은 인식 10.9%, 교육내용이 삶에 도움될지 확신하기 어려움 7.8%, 교육의 질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박사과정에 지원하여 학업한다면, 17개 **박사과정 운영** 관련 항목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교수의 풍부한 연구 역량 및 경력(4.49)**였다.

- 상위에 오른 항목들은 모두 교수진과 관련된 부분이었다(교수의 풍부한 연구 역량 및 경력, 4.49; 지도교수와의 개별적 지도 기회, 4.47; 교수의 전공 분야, 4.43). 그리고 이러한 교수진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2021년 실태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었다.

2. 제언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1) 코로나19 팬데믹의 명암에 따른 대응

2020년에서 2023년 초반까지 맹위를 떨치던 코로나19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여러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2023년 대학원생 실태조사를 통해 팬데믹 기간의 영향으로 유추되는 대학원생 학업활동의 변화를 일부 엿볼 수 있었다. 대학원생들이 스터디/소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선·후배 또는 튜터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비율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 하락하고 있던 방송대 대학원의 지원율은 2020학년도 반등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이 한 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교육의 확대가 방송대 대학원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수업에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도입할 수 있게 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학원생들의 생활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 미친 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팬데믹의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을 좀 더 통합적으로 밝혀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관련 정보 취득에서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이 2/3 이상을 차지하였고, 학업에서는 스터디/소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에서 감소하였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학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선·후배나 튜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원생들이 증가한 것이다. 학업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도움이 대학원생들에게 잘 닿고 있는지,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필요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방송대와 사이버대학에 박사과정 설립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일반대학교에서도 온라인 대학원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에서 대학원생들은 방송대 대학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직업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고 이는 전체의 51.7%에 이른다. 이제 대학원생들이 직업과 병행할 수 있는 다른 온라인 대학원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학원 전체 2022학년도 지원율은 정원의 2배가 조금 넘는 201.4%이다. 대학원 학과 중 지원율이 높은 학과는 문예창작콘텐츠학과(377.4%)와 사회복지학과(322.0%)이고, 지원율이 낮은 학과는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48.7%)와 행정학과(94.3%)이다. 2020년 개설된 사회복지학과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수요가 있는 학과/전공의 개설과 정원 조정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입학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과에 따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입학동기, 학습태도, 선호 학습 방법 및 유

형,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학과별 잠재 수요층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대학원 입학자원의 특성과 요구의 차이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전공 마련 및 대학원 운영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본 실태조사 보고서는 그러한 정책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령대 차이에 따른 학생 지원 정책 다변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학생의 특성과 요구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전 학력과, 사회경제적 배경, 입학동기, 학습태도 및 요구, 선호 학습방법 및 유형, 대학원의 목표에 대한 인식, 학업과정에서의 영역별 만족도 등에서 개인의 배경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별히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연령대에 따른 학생지원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아직 40대가 방송대 대학원의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학과에 따라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30대의 비중이 높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대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지원 정책을 연령대에 따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잠재 수요층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잠재 수요층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대학원 전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입학자원 확보 정책이다. 특히, 연령대에 따라 수요대상의 특성과 요구가 달라진다면 이를 반영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4)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방안 필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생활의 제반 영역 중 매체강의 방식, 수업내용,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 개설 교과목의 종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취업 및 진로지도, 장학제도, 졸업논문지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이 방송대 대학원의 교육과정 영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학생지원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함을 의미한다. 대학원의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적어도 진로 및 취업지도, 장학제도,

졸업논문지도,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근래 실태조사 결과에서 졸업논문 작성의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그 이유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것은 충실한 연구 경험을 얻기 위해서로 나타난 것은 졸업논문지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학생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업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원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것은 “스스로 해결”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학원 구성원(교수, 직원, 튜터, 동기, 선후배 등)과의 상호작용이 예전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원생들이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5) 박사과정 신설 관련 제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의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과별로 진학의사의 정도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공에 따른 수요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사과정을 신설할 경우 개설 전공 선택은 보다 엄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박사과정 신설 시 예상 진학동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공지식 습득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어서 직업관련 경력 관리, 공부의 즐거움, 사회적 인정, 전문적인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 신설 시 진학동기에서는 전공지식 습득이 가장 강한 진학동기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박사과정 신설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교육목표와 과정을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원생들이 박사과정 운영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한 항목들은 교수진 및 교수진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부분이었다(교수의 풍부한 연구 역량 및 경력, 지도교수와의 개별적 지도 기회, 교수의 전공 분야). 박사과정을 신설한다면, 박사과정 운영에서 교수진의 역량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상 진학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사일과 병행의 어려움과 함께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박사과정 신설 시에

는 어떠한 전공에서 박사과정을 열 것인지와 함께 박사과정 학생들의 어려움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순형, 황지원(2014).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김화민(2017). 2016학년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김화민(2018). 2017학년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남나라(2016). 2015학년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서순식, 윤태영, 연경심(2020). 원격대학 박사과정 제도 개선방안 기초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은경(2021). 2021학년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정연희(2019). 2019학년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황지원, 주형선(2012) 방송대 대학원 학생실태조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데이터허브 http://datahub.knou.ac.kr 검색일: 2023년 5월 10일.

[부록] 2023학년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설문지

1. 귀하가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서
② 직업과 관련한 경력관리를 위해(자격증 취득, 승진 등)
③ 사회적 관계 확장에 도움이 될 거 위해서
④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
⑤ 박사과정 진학을 위한 학위가 필요해서
⑥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⑦ 미래에 대비하여 보람있고 가치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2. 귀하가 다른 학업 기관이 아닌 '방송대' 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입학이 쉬워서
② 학비 부담이 적어서
③ 석사학위 취득이 쉬워서
④ 직업과 병행할 수 있어서
⑤ 교육과정이 마음에 들어서
⑥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법과 제도라고 생각해서

3. 방송대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방송대 홈페이지
② 대학원 소개 책자
③ 방송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
④ 방송대 교직원
⑤ 가족 및 지인 (방송대 관계자 제외)
⑥ 신문이나 잡지
⑦ 인터넷 정보
⑧ 방송 및 지하철 광고
⑨ 기타 _____

4. 귀하가 방송대 대학원 진학을 결심할 때 가장 장애가 되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낮은 학부 학점
② 학비 부담
③ 회사 생활과 병행하기 어려움

④ 가족의 협조를 얻기 어려움
⑤ 사회의 낮은 인식(평판)
⑥ 원격교육방식으로 인해 교육의 질 문제
⑦ 내 관심에 딱 맞는 전공이 없음
⑧ 교육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
⑨ 석사학위나 배울 내용이 내 삶에 도움이 될지 확신하기 어려움

5. 귀하가 방송대 대학원 입학 시 학과를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① 평소 관심 분야라서
② 학부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③ 직업관련 경력관리를 위해(자격증 취득, 승진 등)
④ 현재나 미래의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⑤ 내 관심에 딱 맞는 전공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 아래에 제시된 방송대 대학원의 목표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6~8).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한다
6. 평생교육 기회 제공					
7. 직업에 필요한 전문교육 제공					
8. 해당 전공 분야의 학자 양성					

※ 아래에 제시된 방송대 대학원의 목표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9~11).

	전혀 구현되지 않고있다	별로 구현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약간 구현되고 있다	잘 구현되고 있다
9. 평생교육 기회 제공					
10. 직업에 필요한 전문교육 제공					

11. 해당 전공 분야의 학자 양성					

12. 대학원 재학 중 1주일 당 평균 학습 시간(웹 강의 시청 시간 제외)은 얼마나 됩니까?

① 2시간 미만
② 2시간 이상~4시간 이하
③ 4시간 이상~6시간 이하
④ 6시간 이상~8시간 이하
⑤ 8시간 이상

13. 귀하는 주로 어디에서 웹 강의를 학습하십니까?

① 집 ② 직장
③ 이동 중에
④ 도서관
⑤ 기타 _____

14. 귀하가 강의를 수강하시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① 오전 6시 ~ 정오 ② 정오 ~ 오후 6시
③ 오후 6시 ~ 자정 ④ 자정~ 오전 6시

15. 다음의 학습 방법 중 귀하가 더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혼자 학습하기 ② 동료들과 함께 학습하기

16. 다음의 학습 방법 중 귀하가 더 선호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온라인 활동 ② 오프라인 활동

17. 다음의 학습자료 읽기 방법 중 귀하가 더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디지털 학습자료를 출력하지 않고 모니터로 바로 읽기
② 교재 등의 인쇄물이나 온라인 자료의 경우 출력해서 읽기

18. 웹 강좌 수강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데스크 탑 PC

② 노트북
③ 스마트 폰
④ 태블릿 PC(아이패드, 갤럭시 패드)
⑤ 기타 _____

19. 소모임이나 스터디에 참여한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소모임이나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음
② 혼자 공부하는 고립감 탈피
③ 대학원에 대한 소속감
④ 동기, 선후배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⑤ 과제 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 얻기
⑥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 높이기
⑦ 연구방법론(양적,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 높이기

20. 귀하는 대학원 학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스스로 해결
② 동기 또는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
③ 튜터의 도움을 요청
④ 교수의 도움을 요청
⑤ 조교의 도움을 요청

21. 대학원 재학 중 미등록 경험이 있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미등록 경험 없음
② 등록 기간을 놓쳐서
③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④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⑤ 직장일이나 가정일 때문에
⑥ 학습부담이 커서
⑦ 낮은 학점으로 자신감을 잃어서

22. 귀하가 학위 취득을 위해 졸업논문을 작성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려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졸업논문을 현재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음
② 지도교수의 추천
③ 동기 또는 선배의 권유
④ 대학원 졸업의 성과물을 남기기 위해서
⑤ 스스로의 힘으로 진지하고 충실한 연구를 경험하고 싶어서
⑥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해서

23. 귀하가 학위 취득을 위해 졸업논문 대신 대체수업을 수강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강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체수업을 듣지 않고 현재 졸업논문을 작성하고 있거나 앞으로 작성하려고 함
② 졸업논문 작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서
③ 졸업논문 작성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24. 귀하가 졸업논문을 작성하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① 논문 주제와 연구방법 정하기
② 자료 수집 및 분석하기
③ 지도교수와 의사소통하기
④ 연구결과를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기

25. 귀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방송대 대학원 진학을 권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잘 모르겠다
③ 아니오

※ 귀하의 방송대 대학원 재학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8~35).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경험한 적 없음
26. 개설 교과목의 종류						
27. 수업 내용						
28. 매체강의 방식						
29.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온라인 상에서의 실시간 원격강의 및 채팅)						
30. 오프라인 세미나						
31. 교수님과의 관계						
32. 튜터와의 관계						
33. 동기 및 선후배와의 관계						
34. 진로 및 취업지도						
35. 장학제도						
36. 행정서비스						
37. 졸업논문 지도						

38. 최근 방송대는 박사과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방송대에 박사과정이 신설된다면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잘 모르겠다

③ 아니오(39번~45번은 통과하고 46번부터 응답해주십시오)

※ 귀하가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박사과정 진학 희망자만 응답)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39.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서					
40. 직업과 관련된 경력관리를 위해					
41.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42. 전공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과 역량 개발을 위해					
43. 전문적인 연구자(교수, 연구원, 강사 등)가 되기 위해					
44.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어서					

45. 귀하가 박사과정에 진학한다면 다음 중 어떤 계열의 전공을 선택하겠습니까? (박사과정 진학 희망자만 응답)

① 인문과학(문예창작,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등)
② 사회과학(법학, 행정학, 영상문화, 심리학, 사회복지 등)
③ 자연과학(농업생명과학, 생활과학, 정보과학, 이러닝학, 통계학, 환경보건학, 간호학 등)
④ 교육과학(평생교육, 청소년교육, 유아교육 등)
⑤ 경영학(경영, 금융, 회계, 무역, 마케팅, HR 등)

46. 귀하가 박사과정 진학을 고려할 때 가장 우려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비 부담
② 회사일과 병행하기 어려울 것 같음
③ 가족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 같음
④ 사회의 낮은 인식(평판)
⑤ 원격교육방식으로 인한 교육의 질
⑥ 박사학위나 배울 내용이 내 삶에 도움이 될지 확신하기 어려움
⑦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대한 어려움

※ 박사과정에 지원하여 학업한다면, 귀하께서 아래 제시된 항목이 얼마나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지 표기해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47. 비교과프로그램 강화					
48. 취업 및 창업을 지원					
49. 박사과정생의 연구역량 강화					
50. 수업계획 및 이행에 대한 평가, 피드백 제도 마련					
51. 엄격한 학사관리					
52. 학생 상담 및 지도 서비스 제공					
53. 장학금 지원					
54. 지도교수와의 개별적 지도 기회 제공					
55. 교수의 풍부한 연구 역량 및 경력					
56. 교수의 전공 분야					
57. 적정 수준의 전임교원 수					
58. 조교 및 튜터 확보 및 지원					
59. 박사과정생을 위한 별도 시설(연구시설 등) 제공					
60. 취약계층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					
61. 입학 사정 기준 관리					
62 졸업 사정 기준 관리					
63. 충실한 박사과정 학습을 위한 정원 관리					

※ 박사학위가 갖는 가치에 관하여,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64. 박사학위의 사회적 가치(승진, 인적 교류, 대외 활동 등)					
65. 박사학위의 경제적 가치(취업, 창업, 수익/수입 증대 및 창출 등)					
66. 박사학위의 산업적 가치(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등)					
67. 박사학위의 개인적 가치(자아실현, 학습욕구, 자기만족, 삶의 질 개선 등)					

68. 귀하가 졸업하신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검정고시
② 방송통신고등학교
③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④ 인문계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⑤ 외국어 및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⑥ 예술 및 체육고등학교
⑦ 외국 소재 고등학교
⑧ 기타_____

69. 방송대 입학 전 최종학력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 학위
② 사이버대학교 학사 학위
③ 일반 오프라인 대학교 학사 학위
④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학위
⑤ 학사학위 2개 이상
⑥ 석사 학위
⑦ 박사 학위

70. 귀하의 입학 전 최종학력에서의 계열(전공)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교육계열
④ 공학계열 ⑤ 자연계열 ⑥ 의학계열
⑦ 예체능계열

7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 임업, 어업
②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③ 초중고 교사
④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⑤ 교육행정직
⑥ 일반공무원
⑦ 군인, 경찰, 소방관
⑧ 회사원(사무직)
⑨ 회사원(관리,전문직)
⑩ 회사원(판매,영업직)
⑪ 회사원(생산기술직)
⑫ 서비스업 근로자
⑬ 단순노무직근로자
⑭ 간호사
⑮ 의료행정직
⑯ 의사, 약사
⑰ 대학교수, 시간강사, 연구원
⑱ 상담사, 사회복지사
⑲ 컴퓨터 프로그램개발자
⑳ 자영업자
㉑ 성직자,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㉒ 정치인, 법조인, 언론방송인
㉓ 전업주부
㉔ 전업학생
㉕ 무직
㉖ 기타

72. 귀하의 수입을 포함한 가정(가계)의 월평균 총 수입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73. 귀하의 거주 지역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학원 재학 중 주된 거주지를 한 곳만 표시해 주십시오).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세종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해외

실태조사 23-02

2023학년도 방송대 대학원 재학생 실태조사

2023년 7월 발행

연구책임자 : **이 은 경**

발 행 자 : **고 성 환**

발 행 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동숭동)
☎ (02) 3668-4310

인 쇄 처 : 가람문화사
☎ (02) 873-2362

〈비매품〉